



3

1979

문학예술출판사

어머니당이여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땅위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삼천리강산에 빛을 뿌리고
인민들 가슴에 희망을 주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여

그대의 사랑은 따사로웁고
그대의 기발은 찬란하여라
우리의 투쟁에 승리를 주고
우리의 앞길에 영광을 주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여

하늘에 비기랴 그대의 사랑
바다에 비기랴 그대의 은혜
우리는 행복한 당의 아들딸
광활한 미래로 달음쳐가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2호

(루게 376)



◆◆◆◆◆◆◆◆ 차 례 ◆◆◆◆◆◆◆◆

어머니당이여.....	1
위대한 당을 생각할 때.....	4
명대사창조의 불멸의 본보기.....	5
내용의 명백성을 보장한 언어형상.....	12
수령님 모신 영광 끝없습니다.....	15
후대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따라배우겠다.....	16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렵니다.....	18
주체의 락원에 행복이 꽃폈네.....	20
우리네 농촌은 도시를 닮아가요.....	20
유격구마울에 쌍그네 나네.....	21
풍년벌에 울리는 혼성 2 중창.....	21
은금의 강산 빛내여가세 (외 1 편).....	22
예가 바로 우리 마을 나서자란 고향일세.....	22
토지혁명에 대한 서사시적화폭.....	23
새봄을 맞는 농민들을 그리고저.....	30
계급투쟁의 생동한 화폭.....	32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34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 다함없는 경모의 인사 드리옵니다.....	35
김일성 동지의 탄생 예순다섯돐에 드리는 노래	36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37
복무자들	38
다듬은 말	45
탄부영웅	46
조국과 고향.....	50
한장의 차표를 사들고.....	52
굴진공의 기쁨	53
폭포처럼 쏟아지는 검은금.....	54
시대앞에 지닌 임무를 두고.....	57
공지와 기쁨.....	58
발동소리	60
출항의 아침	67
봉암령을 넘으며	68
나는 그저 듣기만 하고...(외 1 편).....	69
여름옷을 받던 날.....	69
경상도집 아들	70
병사시절에 바쳐	71
조국의 땅과 바다와 섬에 대한 생각	74
가사의 형상과 생활세부	76

위대한 당을 생각할 때

박인서

봄삭은 아직 눈속에 있고
움트는 계절은 멀리에 있어도
당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엔
꽃이 피여라, 충성의 붉은 꽃이...

빛나는 해와 달 흘러 흐르고
낮에 밤을 이어 새벽이 와도
당중앙의 창문가에 비치는 불꽃
그 불빛 숨엄하게 우리를 때
눈덮인 백두의 밀영이 떠올라라

아, 설레이는 밀림
삼지연의 맑은 물
이 땅에 새겨진 위대한 자욱이여
헤쳐넘은 폭풍만리
영광에 찬 그 길우에
세기의 기적을 창조하는 당이여

우리 바치는 평범한 로력도
위대한 수령님의 기쁨 되게 하고
우리 흘리는 작은 땀방울도
주체의 위업을 빛내이게 하는
은혜로운 향도의 해발이여

밀영의 귀틀집
수령님께서 한자두자 쓰시던 글발마다에
세차게 고동치던 당의 뜨거운 숨결
이 땅의 산과 바다 파원의 꽃향기로
끝없는 창조의 노래로 넘치여라

주체의 그 위업은
우리 당의 위업
수령님 모시는 인민의 마음은

당을 받드는 마음
속도전의 불바람은 세차고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여라

당을 생각할 때
마음은 백두의 밀림처럼 설레이고
당을 따라 가는 길에
향도의 빛발은
끝없이 찬란하거니

그 빛발 우러러
백두의 그날처럼
혁명의 폭풍이 나래치는 이 강산
그 빛발 따라
기관사는 두줄기 궤도를 달리고
탄부들은 막장으로 내리여라

그 빛발 우러러
초병들은 더 굳게 총창을 부여잡고
직포공들은 아름다운 꽃무늬를 짜고
가수들은 열정의 노래를 부르나니

아 사람마다 부르는 당의 노래는
천만년 수령님 모시는
영원한 봄노래
충성의 노래

당을 생각할 때
가슴속엔 불타는 충성의 한 마음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향도의 빛발을 따라
주체의 한길을 가고가리라

명대사창조의 불멸의 본보기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문학 예술작품의 대사창작에서도 불멸의 고전적본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인 문풍이 완벽하게 체현되어있는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에는 대사창작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그 다양한 수법, 형상방법들이 완전무결하게 구현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구현된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문풍을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문필가들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의 우수성을 옹계 살려쓰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논다. 특히 작가의 직접적설명을 허용하지 않는 대사문학인 희곡에서 언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희곡에서 우리 말의 우수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살려쓰으로써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완벽하게 표현한 불멸의 본보기로 된다.

× ×

주체적문예리론은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대사가 명대사라는것을 가르쳐준다.

대사의 뜻이 깊어야 정치사상적내용이 풍부해지며 사람들을 생활정서적공감에로 이끌어가는 견인력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심각한 사회적문제성을 담은 종자가 선택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형상적으로 가꾸어가는 대사가 뜻이 깊은 문학적인것으로 되지 못하면 종자에 심어진 심오한 정치사상적내용을 충분히 밝혀낼수가 없다.

뜻이 깊은 대사란 하나를 통하여 열백을 헤아리며 앞뒤를 짐작할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이러한 명대사는 풍부한 생활체험과 깊은 사색에 기초해서만 나올수 있다는것을 배워준다.

군수놈의 집에 보내야 **《귀인》**이 도와주어 딸의 **《팔자》**도 고칠수 있다는 무당의 속임수에 넘어간 박씨에게 복순이를 절대로 보내서는 안된다고 하는 돌쇠와 만춘의 대사를 실제로 들어보자.

돌쇠: 야, 종교와 미신은 아편과 같다더니 참말 아편보다두 더하구나.

만춘: 저놈의 성황당에 불을 탁 지르자!

돌쇠: 그까짓 빈집에 불을 지르는게 문제가 아니다. 그때 야학에서 배우지 않았니, 성황당에 불을 지르게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불을 질러야 한다구.

이 대사가 관중들을 그토록 깊은 사색에로 이끌어가고 공감시키는것도 돌쇠와 만춘의 대사마디마디에 작품의 종자가 깊이있게 담겨져있기때문이며 그들의 생활의 깊은 체험과 련결되어있는것과 관련된다.

박씨의 **《신》**에 대한 환상은 하루이틀에 형성된것이 아니며 오랜 생활과정에서 굳어진것이다.

박씨는 자기가 스물나이에 과부가 되어 불행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것은 처녀때 무당의 신수점대로 시집가지 않아 **《신령님》**의 별을 받을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 박씨는 결국 자기의 딸 복순이를 군수첩으로 보내려고 하는 놈들의 모략에 걸려들게까지 된다.

이렇듯 헤여날수 없는 무서운 미신의 함정에 떨어진 박씨에게 미신에 빠지지 말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들을리가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돌쇠와 만춘이가 가슴을 치면서 종교와 미신은 아편보다도 더하다고 말하는 대사는 심각한 생활의 체험에서 흘러나오는 매우 뜻깊고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종교와 미신이 아편보다도 더하다는 이 대사는 이 명작의 사상의 핵을 이루고있으며 작품에 반영된 모든 인간관계와 사건들도 이 종자를 꽃피우는 데로 집중되고있다.

종교와 미신이 아편보다도 더하다는 이 교훈적인 이야기로부터 종교와 미신에서 해방할데 대한 기본 주제와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기본사상이 흘러나온다.

작품은 종자가 제기한 문제를 마지막장면에서 생활적이며 뜻이 깊은 대사로 계속짓고있다.

돌쇠: 우리가 잘살려면말이에요. 없는 귀신을 믿을게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해요.

△군중들이 돌쇠의 말에 주의를 집중한다.

돌쇠: 여러분! 모두다 잠에서 깨여납시다.

작품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반영한 이 대사는 심각한 생활철학을 담고있음으로 하여 천금의 무게를 가지고 힘있게 울리고있다.

중이 내세우는 《부처님》이나 전도부인이 제창하는 《하느님》 그리고 무당이 설교하는 《신령님》들은 근로하는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위장물이라는것을 폭로규탄한 돌쇠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열렬히 호소함으로써 만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이것은 등장인물의 체형에서 우러나온 뜻깊은 말을 한두마디 하는것이 작품의 사상을 얼마나 뚜렷하게 돋구어주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대사가 이처럼 뜻이 깊을 때 긴 설명이 없는 한 두마디로써도 능히 희곡작품에서 제기한 문제를 형상적으로 밝히고 심금을 울려줄수 있다.

뜻이 깊은 대사는 또한 무게있게 써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말 뒤에 말이 있다는것과 하나에서 열을 헤아리게 하고 레사로운 말로 생활의 진실을 새롭게 깨우쳐주는 대사만이 훌륭한 예술적인 어라는것을 가르쳐준다.

말뒤의 말에는 인간의 속심과 그 숨결이 굽이쳐 흐른다. 직선적인 대사보다도 말뒤에 말이 있는 대사는 인간들의 성격과 작품의 사상적내용의 폭과 심도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는 속심있는 말 씨먹은 말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형상적으로 전개되고있다.

전도부인이 예수와 《하느님》을 설교하는 대목에서 돌쇠의 대사에 비낀 속심을 레로 들어보자.

돌쇠: 나같은 사람두 천당엘 갈수 있습니까?

전도부인: 아, 갈수 있지 않구요. 예수만 잘 믿으세요.

돌쇠: 거 예수를 안믿구 공짜루 가게는 좀 못해줍니까?

구장: 이놈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돌쇠: 난 예수는 사랑이 많다가에...

(제1장에서)

돌쇠의 대사에서 로출된것은 천당엘 가게 해 달라는것이며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속대사에는 그와 반대로 예수구, 천당이구 허튼수작 하지 말라는 날카로운 야유가 깃들어있다.

다시 말하여 이 대사에는 농민들을 슬슬 얼려 예수를 믿게 하는 감언리설은 그만두라는 강렬한 주장이 있으며 예수를 믿어야 천당엘 가서 잘살수 있다는 예수교의 《법전》에 도전한 돌쇠의 반항정신

이 있다.

돌쇠: 주사님이 참말 면장이 되십니까?

지주: 그렇다! 오늘 수비대장님이 반송낙은 했으니 이제 탁군수만 합의되면 문제없다.

그렇게 되면 방서방은 면장님차부야 면장님차부! 하하...대단하지!

돌쇠: 그러면 난 면장님머슴이 되겠군요?

지주: 그렇다. 그러면 너두 대단하다.

돌쇠: 야 이거 참말 대단하게 됐는데...

(제1장에서)

황각쟁이가 오늘 당장 면장이나 군수, 임금이 된 다하더라도 머슴군에게는 아무런 리해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면장님의 머슴이 되면 대단하다는 대사는 그 어떤 《자랑》이나 상전에 대한 아침이 담겨져 있는것이 아니라 권세욕과 치부욕에 눈이 어두운 미욕한 상전의 가소로운 처사에 대한 비꼬임과 조소가 번득이고있는것이다.

지주: 참 듣자니까 구장이 요새 면장운동을 하신다두만요.

구장: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하겠소. 군수령감이 자꾸 그럴 의향이 없느냐구 하기에 내 좀 생각해보겠다구는 했습니다.

(제2장에서)

지주와 구장은 서로 면장이 되겠다고 으르렁거리는데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이이다.

군수령감이 자꾸 면장이 되라고 권고하나 자기는 벼슬자리를 바라지 않는다는 구장의 이 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누구보다도 권세욕에 환장한 구장은 면장벼슬을 얻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놈이다. 그러나 구장이 지주에게 하는 이 대사는 면장자리는 내가 이미 차지하게 됐으니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랬다고 면장될 생각은 아예 꿈에도 생각지 말라는 뜻이 숨어있다.

패썸하기 그지없는 구장놈의 비양조에 더욱 화가난 지주놈은 울화통을 터뜨리지 않을수 없다.

이 혁명연극은 대사의 숨은 뜻을 로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극적관계속에서 성격을 호상 계발하는 대사를 말 뒤의 말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으로 깊이있게 씌으로써 대사의 무게를 보장하고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대사들은 부여된 정황과 밀접히 맞물려있음으로 하여 진실하고 생동하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도 작가가 정황에 맞게 뜻있게 쓰는가 못쓰는가에 따라서 명대사로 될수도 있고

되지 못할수도 있다.

극적인 정황은 극적인 대사를 낳게 된다. 사실에 있어서 정황에 어울리는 가장 정확한 대사는 하나 밖에 없는 것이며 그 하나가 바로 명대사로 될수 있다.

대사의 심오성, 그의 정확성은 부여된 행동과 정황의 논리에 맞는가 안맞는가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

제1장에서 전도부인이 예수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이며 그것을 믿으면 《하느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된다고 장황하게 력설하며 나가자 돌쇠는 《흥, 참새를 복아먹었나, 재잘거리긴...》하는 대사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입에 침바르고 온갖 미사려구로 가난한 농민들을 속이는 위선적인 전도부인의 성격과 농민들이 봄내 여름내 피땀 흘려 일군 성황터부대밭에 레배당을 지으려는 전도부인의 처사에 대한 돌쇠의 못마땅한 감정의 폭발을 그대로 감득할수 있다. 감정축적이 된 극적정황속에서 적중한 극적계기에 돌쇠가 이 대사를 함으로써 성격을 더욱 예리화하고있다.

《하느님》이요 예수교요 하면서 감언리설로 전도하는 전도부인의 성격을 참새처럼 재잘거리는것에 비유하고있는 동시에 《참새》를 미워하는 돌쇠의 성격도 이 한마디 대사로 밝혀내고있다.

같은 장면에서 지주놈과 구장놈의 강박에 의하여 성황터 부대밭을 내놓을뿐아니라 복순이를 군수놈의 집에 보내게 되자 미신에 깊이 빠진 박씨는 《성황님께 빌자!》고 말을 한다.

부여된 정황과 축적된 감정의 필연적인 결과로 흘러나온 이 간단한 대사는 박씨의 고민의 깊이를 예리하게 드러내 보이고있다.

박씨에게 있어서 난생처음 제손으로 피땀흘려 일군 성황당부대밭과 자기의 유일한 마음의 기둥인 복순이를 뺏긴다는것은 상상도 못할 청천벽력같은 타격으로 된다. 심각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방황하자 박씨는 자기의 운명을 《성황님》에게 의탁하려고 한다.

이러한 심각한 극적정황속에서 박씨는 《성황님께 빌자!》라는 대사의외에 다른 말이 나올수 없다.

이 대사는 한평생 천대와 수모를 받으며 설음을 당해온 박씨의 인생관의 집중적표현이다.

이와 같이 등장인물이 처하고있는 정황에 맞게 그 사람답게 말을 하고 행동함으로써 대사는 생동하고 진실하게 안겨오고있다.

같은 말을 가지고서도 정황에 따라서 다른 뜻을 나타내는것은 생활과 언어의 법칙이므로 정황에 맞게 대사를 진실하게 써야 한다.

이 혁명연극은 대사는 부여된 정황의 요구에서

찾아야 할뿐아니라 중요하게는 성격자체의 요구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주어진 정황과 성격에 맞는 가장 정확한 대사가 명대사이다.

연극에서는 행동이나 미술, 음악 같은 형상수단들도 대사처럼 인물의 사상감정을 직접적으로 생동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대사는 인간의 성격적특질과 생활을 그리는데 기본목적이 있는것만큼 그것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개성화할 대신 일반적이고 류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산인간의 형상을 기대할수 없다. 성격과 생활을 떠난 대사는 산인간의 말로 될수 없다.

개성화의 중요한 수단인 대사는 매개 등장인물들의 성격적특징에 맞게 표현하며 그들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명백히 표현해줄수 있는 가장 적중한 어휘들과 표현형식들을 탐구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성격과 생활에 어울리는 대사로 하여 진실하게 들리며 인간을 생동하게 그려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가르치고있다.

대사를 개성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물의 사상상태를 밝히는데 기본을 두고 그의 심리와 정서를 섬세하게 드러내는데 있다.

방서방: 그러면 주사님은 무얼 타구 내려오시게요?

지주: 거 인력거바퀴가 자꾸 닳는게 아까워서 그러네. 이제 내가 면장이 되면 면에 나가서 매일 인력거를 타야 할게 아닌가?

(제1장에서 머슴이 황지주에게 인력거에 타라고 권고하는 대목)

지주처: (돈주머니를 붙며) 여보, 돈 좀 내우, 돈이요.

지주: 그래 얼마면 되겠나?

지주처: 적어도 오십원은 봐야겠는데 내 이십원을 낼테니 령감은 삼십원만 내우.

지주: 삼십원이면 소가 한짝이야, 소가!

(제3장에서 무당한테 뽕물로 바칠 돈을 내라는 장면)

돈과 재물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인력거바퀴가 닳는것이 아까워서 남이 안보는데서 걸어다니는 위인, 무당의 힘을 빌어 복순이를 피여 군수에게 바치려고 하면서도 구장집으로 가는 무당을 가로채는 순간에는 돈때문에 주저하는 수전노, 그러기에 이 동네뿐만아니라 린근마을 아이들까지 《황각쟁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인력거바퀴가 자꾸 닳는게 아까워》하며 《삼십원이면 소가 한짝》이라고 펄쩍 뛰는 황지주를 《황각쟁이》의 고유명사로 부르게 한 대사형상을

은 황금만능주의자이며 수전노로서의 성격의 기본값을 예리하게 드러내고있다.

이처럼 한두마디의 말투로 황지주의 얼굴이 환히 떠오르게 대사를 구사한것은 대사창조의 고전적본보기로 된다. 성격적인 대사의 모범은 중의 말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전도부인이 성황터부대발자리에 레배당을 짓겠다고 지주놈과 언약을 하려고 간사하게 접근할 때 중은 지주놈에게 《그 땅은 우리 절에 바치기루 방금 언약한것이니 그리 아시우. 부처님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가서 집게로 혀를 뽑히웁니다.》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리고 전도부인이 자기를 비방하자 《부처님에게 죄를 지으면 죽어 지옥에 가서 류황불가마에 들어가리라!》고 말한다.

중을 돌부처같은 놈이라고 하지만 그가 안속까지 돌부처처럼 무표정한 놈은 아니다. 돌부처는 내장까지도 돌로 빚어졌지만 이놈의 내장은 무서운 치부욕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집게로 혀를 뽑히운다거나 류황불가마에 들어간다고 위협공갈하는 대사들은 뽀뽀스럽고 음흉하며 낮가죽이 두터운 중의 성격적본질을 적라라하게 드러내고있다.

특히 주인공 돌쇠의 대사는 생활적으로 아주 구수하고 성격적이다.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을 명료하게 까발힐수록 작품의 문제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그것은 작품에서 제기한 문제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심화되고 해명되기때문이다.

제1장에서 박씨가 성황당에 갖다놓은 강낭떡을 먹지 않았는가고 물어볼 때 돌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떡구오지 않구요. 이 아까운 떡을 성황당 까마귀한테 먹이겠어요? 배두 고프던 참인데 잘먹었수다.》

돌쇠의 이 대사 하나를 통해서도 세상에 신이란 있을수 없다는 작품이 제기하는 주장을 명백히 구현하고있다.

성황당에 바친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앞에서 서슴없이 강낭떡을 태연히 먹으면서 우스개소리를 하는것은 주인공의 생활락천적인 성격을 잘 표현해주고있다.

대사는 뜻이 깊으면서도 진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작품의 사상적내용이 아무리 폭넓고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대사에서 진실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으며 형상의 참신성과 생동성을 기대할수 없다.

종래의 풍자극에서는 양상을 통일시킨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마감까지 웃기려고만 하던 나머지 대사자체가 풍자적인 말로 일관되어있었다.

그리하여 생활의 논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재담촌

극적인 대사들과 희극적인 대사들로 엮여지게 함으로써 생활의 진실성을 담보할수 없게 하였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양상이라는 형식에 생활내용을 틀어맸추던 낡은 틀을 타파하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당시 농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놈들을 통쾌한 웃음으로 전복케 하던 지혜롭고 락천적인 돌쇠는 제5장에서 소작인들이 지주에게 바친 쌀가마니를 지면서 이렇게 말한다.

《집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윤식이네가 이 벼 한가마니 남은것마저 빼앗기면서 온 가족이 나와 눈물이 그렇게 서있던것이 생각나서 그렇니다. 세상에 못할 노릇이 지주놈네 머슴살이지...》

이런 말을 남기며 돌쇠는 한숨쉬인 노래를 부르며 나간다.

고통을 우스개소리로 넘기고 슬픔을 웃음으로 이기면서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을 하던 돌쇠가 이렇듯 깊은 한숨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것은 단순히 지주놈의 머슴살이에서 오는 고역에서가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빈손을 털며 피눈물을 떨구고있는 소작인들의 가슴아픈 정상이 그의 가슴을 지지고있기때문이다.

풍자극이라고 하여 웃기기만 하던 주인공들과는 달리 돌쇠의 대사에는 생활락천적인 웃음이 있는가 하면 의리와 인정미가 있는 눈물과 기쁨이 어려있음으로 하여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공감되는것이다.

이 작품에서 상전과 머슴군간의 계급적신분관계가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안겨오게 되는것은 지주나 구장놈을 폭로하는 궁정인물들의 대사를 직선적으로 로출시키지 않고 겉으로는 주인공들의 기분에 거슬리게 하지 않으면서도 대사의 밑바닥으로 흐르는 뜻에는 풍자의 날창이 번뜩이게 하는 형식으로 대사를 구사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적문제이론이 밝힌바와 같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답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대사에 작가의 주관적인 의도가 앞서서는 안되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활동방식의 요구에 맞게 제나름대로 말하여야 한다.

대사의 진실성과 생동성은 당해 사회의 시대상을 정확히 반영할 때만이 보장된다.

언어는 로동의 산물일뿐아니라 시대의 제약을 받는것만큼 그 시대의 언어생활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대사의 생활적진실성이 담보될수 없다.

사상, 경제, 문화, 도덕생활에서 자기 시대의 영향을 받고있는 등장인물들의 말속에는 당대사회의 력사적풍조가 반영되어있으므로 시대의 력사적특징이 력력히 비껴지기마련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대사들에는 사회정치제도와 경제관계, 문화도덕상태가 명백히 반영되어있다.

중이 중얼거리는 격식화된 념불과 전도부인이 성경책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설교하는 말들, 무당이 신수점을 치는 말과 장돌뱅이와 옛장사가 물건을 팔기 위하여 부르짖는 말들은 1920년대의 시대적풍조를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 근로하는 농민들의 대사는 시대상을 나타내는 고유한 조선말을 기본으로 하여 엮여지고있다.

우리 고유어는 우리 인민의 오랜 생활과정에서 생겨난것으로서 우리 말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알기쉽고 귀맛이 좋으며 가장 친숙해진 말들이다.

우리의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엮여진 이 작품의 대사는 작품의 민족적색채를 한층 더 돋구어준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에 창작된 작품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투나 외래어는 찾아볼수 없으며 그야말로 고유한 우리 말의 어근을 바탕으로 하여 대사를 조직하고있다.

대사구사에서 력사주의적원칙을 관철한다고 하여 고어를 비롯한 낡은 언어잔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문학예술창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문풍을 완전 무결하게 구현한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인민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는 인민적언어와 시대의 력사적구체성속에서 생동하게 형상한 대사를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훌륭하게 구사하고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대사가 진실한것은 또한 대사자체가 행동과 밀접히 유착되어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등장인물의 사상감정을 주로 대사를 통하여 표현하는 극에서 행동이 안반침되지 않으면 대사의 생동성과 참신성을 보장할수 없다.

물위에 뜬 기름과 같이 행동과 동떨어진 대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극적대사는 아니다.

배우의 무대행동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대사는 행동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연극의 제4장 말싸움장면의 대사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것은 그것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는 전도부인과 중, 큰무당의 행동과 밀접히 련결되어 진행되기때문이다.

전도부인은 전도책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중은 목탁을 두드리며 불교를, 큰무당은 《신수점》을 치는 방울을 흔들면서 《신령님》을 서로 내세우면서 자기 교의 《우월성》을 력설한다.

여기에 행동과 결부된 이 장면의 대사가 풍자적성격을 띠고 웃기게 하는 요인이 있다.

박씨: 내가 어리석은년이됐지! 이런 도깨비당앞에 와서 손이 발이 되두룩... 에이!

△ 박씨 몽둥이를 들고 성황당을 후려갈긴다.

성황당이 나가넘어진다.

박씨 더욱 소리를 지르며 성황당 허물어진것을 박산낸다.

박씨: 내가 못산건 사주팔자때문이 아니라 이 도깨비당을 믿었기때문이다. 도깨비당!

(제9장)

이것은 연극의 절정장면에서 미신에 빠졌던 박씨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황당을 까부시는 대목이다.

미신에 빠졌던 탓으로 박씨는 자기의 외동딸을 무서운 악마의 소굴에 들이밀려는 지주와 구장, 무당의 흉계에 걸려들면 한다.

미신은 인간을 무서운 함정으로 몰아넣는 아편과도 같다는 생활의 진리를 현실적으로 깊이 인식한 박씨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성황당을 까부신다.

성황당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도깨비당》에 대한 대사를 하게 함으로써 장면의 통쾌성을 더욱 돋구게 한다.

극에서 등장인물이 행동한다는것은 곧 생활을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사의 진실성은 행동의 진실성, 생활의 진실성을 전제로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생활축적이 없는 인물에게서는 결코 명대사가 나올수 없다고 가르치고있다.

생활적안반침이 없는 그 어떤 멋진 말은 대사의 진실성을 파괴하며 비록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이라도 풍부한 생활체험에 기초한다면 깊은 뜻을 담고 진실하게 안겨올수 있다. 지주놈과 구장놈의 싸움이 한창 고조에 달했을때 그들의 녀편네들이 이 싸움에 끼여드는 제2장을 보자.

지주처: 아니 결가마는 왜 끊어?

구장처: 안끊구. 원가마가 끊는데 결가마가 안끊을가?

구장: 여보, 어서 가거나 합시다. 우리 인품이 떨어지겠소.

△구장과 구장처 나가려고 한다.

지주처: (그들을 향해) 되젠 인품이 높다. 그 주제에 면장이 되겠다구? 흥!

구장처: (되돌아와서) 왜 못될것 같니? 너 같은것 좀 부러워하라구두 기어쿠 면장이 돼야 하겠다.

옴두꺼비같은년!

△구장과 구장처 나간다.

지주처: 뭐 옴두꺼비? 저 구미여우같은년이?

주인놈들을 의미하는 《원가마》와 그들의 너편네들을 가리키는 《결가마》는 얼마나 생활적이고 형상적인 표현인가!

그리고 미옥하고 뚱뚱한 지주너편네를 《옴두꺼비》로, 얄미웁고 빼빼마른 구장처를 《구미여우》로 비유한 대사는 또 얼마나 생동한 형상적표현인가.

또한 제3장에서 구장처가 지주집마당으로 뛰어들면서 큰무당을 이놈의 집에서 가로챘다는게 사실인가 물어볼 때 돌쇠가 《글쎄요. 가로챘는지 모로웠는지 큰무당이 이 집으로 들어간것만은 사실이에요.》 하는 형상성이 높은 평범한 생활적대사는 얼마나 웃음을 폭발시키고있는가.

제4장에서 전도부인이 자기 교를 지나치게 내세우자 중은 돌쇠에게 사람들을 위한 인심좋은 《부처님》이라는것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우리 부처님의 귀 생긴것만 보시오.》라고 하는 대사라든가 제8장에서 돌쇠가 구장놈앞에서 지주놈의 흉내를 내며 《면장자리는 이제 꼭지만 툭 치면 툭 떨어지게 했으니 그렇게만 되면 그 족제비같은 구장놈을 그저 도적개 몰듯 몰아서 아예...》라는 대사들은 인민구두어에 기초한 생활적인 말들이다.

꼭지만 툭 친다는것은 지주가 마치나 면장이 다 된것처럼 자처하는 꼴을 생활적으로 표현하는 대사이다.

돌쇠의 이 말은 구장놈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부아통을 터친김에 기어코 면장이 되어 보려고 더욱 기승을 부리게 하였다.

우의 대사들은 그야말로 생활적인 말투로 일관되고있다.

이 명작은 생활적인 말을 쓰기 위한 요구의 하나는 대사를 알기쉽고 통속적으로 쓰는것이라는것을 가르쳐준다.

희곡은 극장에서 관중에게 말하는것까지 예상하는 문학이기때문에 낯설고 어색한 표현들, 조잡하고 까다로운 말을 쓰는것은 강력 피해야 한다.

배우가 나와서 아무리 《말재주》를 부려도 관객이 인차 알아들을수 없는 대사는 작품의 사상에술성을 그만큼 손상시킨다.

대사를 알기쉽고 통속적으로 쓴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말, 한번 들어보아도 그 내용이 머리에 쑥쑥 들어오는 말을 의미한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문장짜임새와 글의 구성이 순탄할뿐아니라 생활적인 인민구두어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씌으로써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수 있

다.

생활적인 말을 알기쉽게 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대사를 될수록 짧게, 간결하게 쓰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곱씹어 설명하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될것을 길게 늘어놓는것은 모두 사상의 요점을 강조하고 인상을 돌구는데 방해로 될뿐이다.

말을 험루게 길게 늘어놓으면 씨가 먹지 않는 빈말밖에 나올것이 없다.

함축성있는 말이란 뜻이 깊은 맵짠 말, 밀도가 높은 말을 의미한다.

대사가 함축성이 있고 간결할수록 관중의 머리에 인상깊게 쑥쑥 들어올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에서 쓸데없이 되풀이하는 빈말을 버리고 하나의 말마디라도 영글은것을 골라쓰며 짧은 표현들과 단순문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대사들은 빈말이 없이 함축되고 간결한것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제8장 구장집 장면에서 지주네가 면장이 되기 위하여 성황당에 빌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장놈과 그의 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구장처: 어서 돼지를 잡아라 돼지! 그간놈들이

돼지를 잡는데 우리라고 못잡겠소. 면장

만 된다면 돼지는새루 소두 잡겠는데...

구장: 소는새루 너편네두 잡겠다.

구장처: 뭐요?

면장자리에 남보다먼저 타고았기 위하여 구장놈은 지주놈보다 될수록 한발자국 먼저 성황당에 올라가 빌어야겠다는 조급한 욕망에 불탄다.

《소는새루 너편네두 잡겠다》는 짤막한 대사는 면장이 되는 일이라면 소나 돼지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너편네까지 잡을 구장놈의 정신세계의 극한점을 예리하게 드러내고있다.

장황하고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짤막하고 간결한 이 대사는 구장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표현해주고있다.

경험은 곱씹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함축성이 있고 간결한 씨가 먹은 맵짠 말을 골라쓴다면 그 어떤 복잡한 내용도, 웅심깊은 성격의 깊은 굽도 얼마든지 석연히 표현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사를 짧고 통속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독자나 관객에게 모호하거나 흐릿한데가 없이 톡톡하게 전달할수 있는 알기쉬운 어휘와 표현을 써서 생생한 느낌을 주게 하며 이야기의 봉우리들이 두드러지고

대사에서 노리는 주되는 목적이 뚜렷해지도록 해야 한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는 오랜 세월을 두고 친숙해진 형상적밀도가 높은 생활적인 구두어들과 비유의 수법을 많이 씌으로써 대사의 민족적인 색채를 더 한층 돋구고있다.

돌쇠: ...어떻거면 저놈의 미신을 십년묵은 학질
때듯 똑 떼주나.

만춘: 흥, 십년묵은 학질은 때두 복순이 어머니미
신은 죽을 때까지 못뎌다.

(제1장에서)

또한 사기협잡꾼이며 신령의 탈을 쓴 미신광신자 큰무당을 《마귀》로, 《예수》의 신자로 자처하는 위선자 전도부인을 《요사스럽고 간사한년》으로, 교활한 권세탐욕자 구장놈을 《죽제비》로, 간사하고 고양이처럼 생긴 구장처를 《구미여우》로, 뿔머리가 드세고 미옥하기 그지없는 지주처를 《옴두꺼비》로 각각 풍자적으로 비유한 형상적인 대사들은 그중은 실례의 하나로 된다.

이 작품에서는 비유의 수법뿐만아니라 또한 과장법과 대비법, 독백과 방백들도 다양하게 리용하고 있다.

그 한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구장과 그의 처가 신바람이 나서 지주집에 들어올 때 지주는 《야, 요놈이 밭다니까 모루 기누나.》 하는 방백을 한다.

이 방백에는 교활한 구장놈의 처사에 본격한 지주놈의 앙심이 깃들어있으며 적수를 당장 요정내지 못하는 지주놈의 음흉한 모태김이 비껴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사상적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은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명대사에 의하여 담보되고있을뿐만아니라 주옥같은 명가사의 거대한 표현적기능에 의하여서도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탄생은 이때까지 연극에서 극히 부차적인 수단으로서 저버림을 받고있던 음악을 기본형상수단의 하나로 되게 하였다.

음악이 연극의 기본형상수단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극에서 대사와 함께 가사가 인물의 내면세계를 극적감흥속에 돋구어주는 정서적기능과 종자를 심어주고 그것을 꽃피어나가는 얹음새 발전과정에서 철학적문제성을 천명하는 형상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세상 넓다 해도 믿을곳 없어
불쌍한 어미딸은 눈물로 비네

그 누가 저들을 구원해주라

(제1장에서)

작품은 1장에서 《신령님》밖에 친구 의지할데가 없다고 하는 박씨를 두고 불쌍한 인민들을 그 누가 구원해주겠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성을 담은 방창가사를 주고있다.

이야기의 심화과정을 따라 종교와 《귀신》에게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이 없다는것을 점차적으로 밝혀주다가 작품의 절정부분에서 종자가 완전히 해명되도록 가사를 도입하고있다.

얼씨구 좋네 절씨구 좋아 미신에서 깨여났네
십년묵은 학질때듯 성황당귀신을 똑 떼어버렸네
얼씨구 좋아라 춤도 절로 난다
하느님도 부처님도 사주팔자도 모두 없다네
얼씨구 좋아라 새길을 찾자

이처럼 가사는 첫머리에서 문제성을 제기하고 그것을 얹음새발전과정에서 점차적인 풀이형식으로 전개하다가 마감부분에서 그 문제성을 완전히 해명해주고있다.

철학적사색의 정화물로 이루어진 명가사는 대사와 극적사건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극발전의 매듭들에서 가장 적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극의 사상적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이 작품의 가사는 고도로 세련되고 함축된 형식 속에 깊은 사색과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을뿐만아니라 비록 몇줄 안되는 가사라 하더라도 뜻이 명백하고 정서적색깔이 뚜렷한 시어들로 이루어지고있다.

가난과 천대속에 맺어진 사랑
가시밭속에서 피는 꽃인가
고생하신 어머니 함께 모시고
새살림 오בות 꾸려가리라
(제5장에서)

소박하고 통속적으로 씌여진 이 하나의 가사는 얼마디 스무마디의 대사로써도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만춘이와 복순이의 행복한 태일에 대한 생활의 꿈을 정서적으로 진하게 채색하고있다.

성황터결에 있는 남은 땅두 마저 일구고 논두 한때기 얻어부쳐 새살림을 오בות 꾸리려는 아름다운 리상이 정서적인 화폭속에 감명깊이 구현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극문학예술발전에서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명대사의 역사적뿌리를 마련한 첫 혁명적인 대작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인민적문풍을 따라 배움으로써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리대철

내용의 명백성을 보장한 언어형상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고-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남호두회의방침을 관철하시기 위하여 무송의 수림속을 거쳐 백두산기슭까지 진출하시어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신 역사적사실을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묘사하였기때문에 내용이 명백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준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내용의 명백성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개성적성격을 생동하게 그린 언어형상의 특성파도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입니다.》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옹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성격을 생동하고 개성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형상은 개성적일수록 생동해진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모두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따르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공통된 사상정신적특성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있다.

언제나 리지적이고 침착한 리경준, 활달하고 락천적인 장기령, 세심하고 다정다감한 윤칠너를 비롯하여 강세호, 최선금, 권학식, 박문필 등은 각이한 생활경위와 서로 다른 성격론리를 가진 생동한 개성들이다.

작품에서는 생동한 묘사와 개성적인 대화를 구체적인 정황에 맞게 쓰면서 등장인물들의 개성적특성을 두드러지게 밝혔다.

작품에서는 대화를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살리는 데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장동무의 자기비판은 정당합니다. 보초가 자기의무를 잊어버리고 잡념에 빠져있었다는것은 엄중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과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행군을 합니까? 육체적인 생명이나 구하자는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혁명을 하

자고, 그래서 잃어버린 조국을 찾자고 이렇게 어려운 행군을 하는것입니다.》

장기령의 과오를 준절하게 비판한 리경준의 대화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서의 그의 사상정신적품모가 뚜렷이 비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왕청유격근거지의 인민혁명정부에서 일해온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있었기에 억울하게 《민생단》 혐의를 받고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길을 걷는것이다.

리경준의 대화는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혁명적각오정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혁명동지가 범한 과오의 본질을 정확히 밝혀내고 혁명투쟁의 목적과 의의를 예리하게 분석하는 그의 높은 정치적식견은 사리정연한 론조속에서 그대로 표현되였다.

특히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문제를 파고들면서 사상감정을 펴나간것은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더욱 생동하게 드러내보일수 있게 하였다.

대화는 등장인물들의 사상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보이는 표현적특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개성을 살리는 힘있는 수단의 하나로 된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기만 하면 실겠다는 장기령의 말은 극성스럽게 일하는 그의 능청스럽고 활달한 성미를 그대로 살리고있으며 철창속에 갇힌 아들을 찾아 면회온 아버지에게 이제라도 나라를 찾는 의로운 일을 도와나서라고 일깨워주는 박문필의 대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서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초상묘사를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첫머리에서 간명하게 줌으로써 매 인물들의 개성적성격을 구체적인 생김새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그려볼수 있게 하였다.

인물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의 정신세계를 인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초상묘사의 특징은 등장인물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일반적으로 제시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매 인물들의 개성을 살릴수 있도록 간명하게 주어졌다는데 있다.

리복철의 담담한 눈매와 다부진 몸매며 장기령의

쩍 벌어진 어깨에 우람찬 몸집이며 권학식의 주름잡힌 이마와 꺼져들어간 두볼이며 한남실의 날렵한 몸매 등은 각이한 인간들의 모습을 얼마나 형상적으로 부각시켜주는가.

언제나 혁명의 사령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리복철경위중대장의 예리한 관찰력과 민활한 동작은 그의 답답한 눈매이며 다부진 몸매와 조화되어 있으며 활달하고 락천적이며 극성스럽게 일을 해제끼는 장기령의 성격적특징은 그의 우람찬 몸집과 조화되어있다.

종파분자들에게서 환멸을 느끼고 은거생활로 여생을 보내려고 결심하였던 권학식의 복잡한 생활경위는 그의 주름잡힌 이마이며 꺼져들어간 두볼에 그대로 비껴있다.

작품에는 전개된 초상묘사는 없으나 매 인물들이 등장하는 첫부분에서 간명하게 주어짐으로써 개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데 이바지하였다.

초상묘사와 함께 등장인물들을 특징지어 부른 별명들도 개성적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표현적효과를 주고있다.

《대통령감》, 《장터리》와 같은 표현들이 바로 그러하다.

《대통령감》은 파이프로만 담배를 피우는 권학식이의 특징적인 행동에서 나온 별명이면서 그의 지난날의 생활경위와 사상정신적특성까지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파이프는 이른바 《유지》들속에서 류행되었던 것으로서 이전의 낡은 대통과 구별되며 일정한 년장자들속에서 리용됨으로 하여 청년들이 사용하던 일반 물부리वाद도 구별된다.

파이프속에 풍기는 이러한 시대적색채가 지식인으로서 《독립운동》에 관심하여 온 권학식이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데서 표현적효과를 준것처럼 《장터리》도 우스개소리를 잘하는 능청스럽고 활달한 장기령의 개성을 부각시키는데서 높은 표현적효과를 주었다.

작품에 반영된 사상적내용의 명백성은 또한 등장인물들의 풍부한 감정과 섬세한 심리를 여러모로 잘 표현한 언어형상적특성과도 관련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혁명가들의 정치적신념과 강요한 의지만 보여줄것이 아니라 그들의 리상과 포부, 구체적인 심리와 감정까지도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게 그려야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한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풍부한 감정과 섬세한

심리가 공허한 감정과 심리로 되지 않고 아름답고 풍부한 생활적인 감정심리로 독자들에게 안겨오는것은 그것이 전형적인 생활과 밀착되고 성격론리에 맞게 개성적으로 묘사된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기기 위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간고한 혈투를 벌리면서 돈화의 수림속을 거쳐 백두산기슭까지 당도한 리경준, 최선금, 윤칠녀, 장기령의 모습이며 수많은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적들의 흉계를 짓부시며 험악한 수림속을 헤쳐 마안산에 이르러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한남실이의 모습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겠다는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항일유격대를 따라나선 권학식이의 모습이 그토록 생동하게 안겨오는것은 그들의 풍부한 내면세계를 생활과 밀착시켜 성격론리에 맞게 묘사하였기때문이다.

이 작품의 언어는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생활과 성격론리에 맞게 여러 모로 문체의 변화속에서 구사되었다.

등장인물들의 풍부한 감정과 심리를 혁명적정서가 진하게 풍기는 설화로 혹은 분석적인 묘사로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개성적인 대화로 속마음을 속속들이 드러내보이기도 하였다.

(태양에는 두가지 속성이 있다. 빛과 열이다. 금성장군님께서도 두가지 성품을 지니고계시니 즉 빛나는 예지와 뜨거운 사랑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 그것은 곧 태양의 빛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사랑, 그것은 곧 태양의 열이다.

그 광휘로운 빛과 따사로운 열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는 인간세계의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이시다!)

이것은 력사적인 연단에서 조국광복회창립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깊이 우러르는 권학식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인 심리묘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는 권학식의 내면세계가 감동적으로 안겨오는것은 그것이 정론적이면서도 소박한 문제로 깊이있게 묘사되었기때문이다.

정론적이고 분석적인 심리묘사는 주체사상의 진리를 리론적으로 파악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가이 모시고 생활하는 과정에 그이의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품모를 심장깊이 체득한 권학식의 성격론리에 맞게 주어졌기때문에 풍부한 내면세계를 생동하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정론적이고 분석적인 심리묘사가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려면 그 인물의 생활과 성격론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심려는 도말아 안으시고 수하사람들에게는 오로지 기쁨만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시고 또 마음쓰시는 사령관동지!

새삼스러운 그이의 유별한 사랑에 목매여 최선금은 소리내어 흐느꼈다.

<세상에... 우리 사령관동지 같으신분이... 또 어디 계시겠어요!>

경준이도 한참 이야기를 못하다가 말을 이었다.

<정말 그렇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모든 유격대원들과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더 좋게 해주시려구 늘 자심하게 마음을 쓰시고계시오. 오늘날 해도 그렇지. 사령관동지께서는 내가 아이들과 당신을 꼭 만나보구 길을 떠나게 하시려구 우리 아이들의 옷을 자신께서 받으시었다가 나한테 내주셨소.>

최선금은 행복에 겨워 그냥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막지 못했다.

행복한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지금의 자기 식구들처럼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으랴! 유격대원들치고 그 누구인들 장군님의 고귀한 은정에 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랴만 자기네 가정처럼 큰 은정, 큰 행복을 받아안은 가정은 둘도 없을것이다.

최선금은 그지없이 송구스럽고 안타까웠다.

<어떡하면 이 은정에 보답할가요? 저는 이렇게 앓고있지, 저 애들은 어리지... 혁명에 도움줄 대신 부담과 근심걱정만 더쳐주고있으니...>

<그러게 어떻게 하나 어서 건강을 회복해주오.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면 그만큼 앞당겨 심려를 덜어드리게 되질 않겠소?>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새로운 삶의 보람찬 길을 걷게 된 리경준부부의 내면세계가 절절하게 안겨오는것은 개성적인 대화와 서정이 짙은 심리묘사를 생활의 구체적정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말은 인물의 사상과 감정, 심리의 표현인것만큼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직접 드러내는 작용을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참말로 개성적인 대화는 등장인물들의 사상감정을 자신의 말로 드러내는 표현적특성으로 하여 내면세계를 묘사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

특히 개성적인 대화는 심리묘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리경준부부의 내면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바지하였다.

대화의 생동성은 등장인물자신의 사상감정을 개

성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적특성으로 하여 발현되며 심리묘사는 대화속에 깔려있는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표현적특성으로 하여 풍부한 감정과 심리를 그대로 보여줄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리경준부부의 무한한 함모의 감정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오는것은 《민생단》 혐의를 받고 억울하게 살아온 생활과 밀착되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오려는 소망이 실현된데로부터 오는 사상감정을 대화와 묘사로 깊이있게 보여주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 안긴 마안산아동단원들의 기쁨과 《민생단》 혐의를 벗고 혁명의 참된 길을 걷게 된 항일유격대원들의 내면세계가 명백하게 안겨오는것도 개성적인 대화와 심리묘사를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진지하게 추구해나간 묘사 표현적특성과 관련된다.

자연묘사도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훌륭하게 이바지하였다.

문예작품에서는 성격을 살릴수 있는 풍경이나 사물을 골라잡고 의의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자연의 독특한 생김새만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성격을 살리는데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것으로 된다.

작품속에 주어진 자연의 모습은 그것이 전면묘사이건 부분묘사이건 관계없이 인간생활과 무조건 관련되어야 하며 성격을 살릴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자연묘사는 사건이 심화되는 가장 적중한 계기들에 주어진으로써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하였다.

검은 구름도 가없는 밀림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쪽으로 훨훨 날아가는 수리개의 모습은 하루빨리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기고싶어하는 장기령의 내면세계를 부각시켜주고있다.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산새의 울음소리이며 깃을 치며 날아에는 비둘기의 모습도 최선금과 한남실의 생활과 밀착시켜 묘사되었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만을 끝없이 함모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정신세계가 선명하게 안겨온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사상적내용이 명백하게 안겨오는것은 이렇듯 력사적사실을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일반화한 언어형상의 특성과도 관련된다.

리병제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고-

수령님 모신 영광 끝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혁명투쟁에 나선 다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동지들의 사랑이 더 귀중합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부모와 떨어져서는 살수 있지만 혁명동지들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보존하며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게 합니다.》

나는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고 가장 숭고한 사랑과 동지애로 얹혀있는 혁명가들의 참다운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으며 그 밑바탕과 원천에 대하여 가슴뜨거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은 샘으로 솟아나 줄기찬 흐름으로 도도히 굽이치며 소용돌이쳐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스며드는것입니다. 이 사랑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별마냥 그 광휘로운 해발이 미치는곳마다에서 새 인간을 탄생시키고 혁명의 대오를 불러일으키는것입니다.

장편소설은 너무도 생생하게 이 모든것을 펼쳐보여줍니다.

한번 보고 또 보고 감동의 눈물속에 다시 보는 소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고나면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아버이로 모신 끝없는 영광 비길데 없고 행복이 가슴속 그들먹이 차오릅니다.

소설은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항일혁명투쟁의 실제적인 력사적으로정과 사건속에서 생동하고도 감동깊게 펼쳐보여주고있습니다.

생일을 쇄여주기에는 너무도 어리고 너무도 평범한 한 어린 대원의 생일날까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두셨다가 행군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색다른 음식상을 차려주시는 장군님.

혁명전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어찌 친부모의 사랑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수령님의 혁명전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긍지높은 혁명가라는것을 다시한번 절절히 느꼈습니다.

소설은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나의 마음을 흥분시켜나갔습니다.

미혼진에 도착하신 장군님께서서는 다리쉽도 하시기전에 못사람들의 한결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십명의 무서운 열병환자들부터 찾으십니다.

모자간이나 부부간도 격리시킨다는 무서운 열병환자들을 만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신 장군님께서 어떻게 만나시도록 하겠는가, 강세호, 리복철 등 지휘관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병원귀틀집문앞에 막아섭니다. 유격대를 찾아온 권학식이기도 굳이 장군님을 만류합니다.

이때 장군님께서서는 오히려 사정하시듯 말씀하시는것입니다.

《권선생, 선생까지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저안에 앓아누워서 고통을 받고있는 동무들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싸움에 나선 사람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대원들이 앓아누워있는데 내가 이마도 짚어보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프고 피로울 때면 사람이 더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나는 동무들의 생사를 책임진 사람이 아닙니까! 동무들이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나만은 들어가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혁명전사 한명 한명을 금싸라기처럼 아끼시며 키워오신 장군님의 자애깊으신 말씀에 대원들은 걱정엔 넘쳐 흐느낍니다. 그 정경이 삼삼히 안겨와 독자로

눈물을 삼키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이 위대한 인간애앞에 그 어떤 난치의 병인들 머리숙이고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장군님의 사랑은 앓고있는 대원들에게 그대로 불사의 명약으로 되어 소생의 활력을 안겨주는것입니다.

마안산의 찬눈속에서 홀것을 입고 《민생단》런 루자로까지 몰려 고생하는 아동단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이제야 온 나를 용서해라.》하시며 눈물 지으시는 장군님. 그 아이들을 위하여 장군님께서는 오래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강반석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스며배인 돈 20원을 내놓으시여 옷감을 사오도록 하십니다.

《민생단》이라는 억울한 루명을 쓰고 혁명가의 존엄까지 유린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믿음을 주시고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는 장군님.

한 전사의 희생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가시돋친 나무가지에 군복자락을 걸채이고 손등이 허비우고 날카로운 침엽수의 바늘일들이 얼굴을 스치는것도 모르시고 비분속에 숲속을 걷고걸으시는 장군님.

그것은 가장 숭고한 높이의 공산주의적인간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지니실수 있었던 사랑입니다.

나는 격동과 흥분을 새기지 못한채 다음의 대목을 외워봅니다.

(저렇게 회의장도 거의 다 돼가고 동무가 앉을자리까지 저기 마련했는데... 동무는 어디 있소? 그렇게 애써 조국광복회창건사업을 준비해온 동무가 창립대회를 열게 된 이 기쁜 때에 십여리밖에 안되는데까지 와서 못들어오고 거기 누워있단말이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밀영문턱밑에까지 와서 누워있는 법이 어디 있소? 내가 기어이 오라구 했구 동무도 꼭 오겠다구 약속해놓고 못오다니?...)

이 위대한 사랑이 있기에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은 아무리 험난한 가시덤불길도 단숨에 날아넘으며 강철의 투사로 자라는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한 혁명가들이기에 그들은 살아 영광스럽고 죽어도 영생하는 빛나는 삶을 누리는것입니다.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력사적행군로정은 곧 사랑의 로정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무수히 태어나는 위대한 로정이였습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독자의 마음을 세차게 울려주는 사랑의 대서사시입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아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사랑이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따뜻이 비쳐들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는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 사는 우리 인민처럼 크나큰 영광을 누리는 인민은 결코 없습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탄부인 나에게 귀중한 고무와 충격을 안겨줍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탄부들에게 가장 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여 인민경제 주타격방향의 보람찬 전선에 세워주셨고 탄부들을 아끼시여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고계십니다.

나는 더 많은 석탄을 캐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치는것으로서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렵니다.

고원탄광 청년골진갱 분초급사로청

위원회 위원장 김기의

후대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따라배우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예술부문일군들은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적문학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최근에 널리 애독되고있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사상적충격과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소설은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로부터 그해 5월에 이

은 동강회의에 이르기까지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조선혁명을 일대양양으로 불려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실로 감격과 흥분 없이는 읽을수 없는 백두산기슭까지의 간고한 로정은 열다섯명의 전사와 한정의 기관총이 혁명무력의 최정에주력부대로 변하고 혁명가의 존엄과 인간적가치를 상실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운명과 력사의 주인으로 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서사시적화폭이다.

이는 또한 2천만의 온 겨레를 조국해방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우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위대한 사랑의 화폭이다.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교육 교양에 대하여 책임진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어린이들을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나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끝없이 고매한 위대한 품모에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아동단지도원 한남실이가 10여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왕청유격근거지를 떠나 장군님을 찾아 눈덮인 태고연한 밀림속을 헤치며 무송현의 깊은 산골인 마안산까지 왔으나 이곳에 있던 민족배타주의자들은 그들이 유격활동에 큰 《부담》으로 된다고 하면서 귀찮게 대하였고 전혀 돌봐주지 않고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식량조차 대주지 않았고 엄동설한에 떨고있는것을 보고도 의복 한벌 해입히지 않았으며 심지어 《민생단》련투자라는 터무니 없는 딱지를 붙여놓고 아동단원들을 천대하고 멸시하였다.

그러나 나 어린 아이들의 뜨거운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 오직 하나의 신념, 위대한 장군님을 뵈겠다는 굳센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 마안산으로 오시였던것이다.

철부지라고밖에 할수 없는 그들이였으나 것처럼 그리워하던 사령관동지를 뵈게 된 크나큰 기쁨을 안고서도 너무나도 험상궂고 람루한 자기들의 옷차림때문에 선뜻 그이의 품에 안기지 못하였다.

아이들을 그러안아주시려고 두팔을 벌리시고 마주 걸어오시던 사령관동지께서도 아이들이 멈춰서자 팔을 벌리신채 한동안 말없이 서계시기만 하시였다.

그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의 행복과 광명한 래일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돌려오신 사령관동지께서 붉게 된 진달래꽃같이 웃음꽃을 피우며 에워쌀 혁명의 꽃봉오리들이 것처럼 된서리를 맞아 처참하게 시들어버려 단 한송이의 웃음꽃도 피우지 못하는것을 보시게 되었으니 그이의 마음이 오죽 쓰리고 아프시였겠는가!

아이들에게로 다가가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응남이를 다정히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얼굴이 다 이렇게 텅구나 하시며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주시기도 하시였다.

가슴아파하시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는 그이의 손길과 자애로운 목소리에는 진정 오래동안 갈라졌던 자식을 품에 안으신 친어버이의 사랑과 정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귀틀집안으로 들어가시여 앓아누워있는 아이들을 자애로운 품에 안아주시였다.

집안이라고는 하지만 스산하기 그지없어 온기가 아니라 싸늘한랭기가 돌고있었고 앓고있는 아이들은 한장의 모포도 덮지 못하고 누워있었다.

한없이 자애로우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추위에 떨고있는데 내가 백벌의 외투를 입는다 한들 내 마음이 더워질수 있겠는가 하시며 자신의 외투를 벗으시여 앓아누워있는 아이들을 덮어주시였다.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자신이 잘 싸울뿐아니라 혁명의 장래가 달려있는 저 아이들을 잘 길러내야 하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혁명가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는것이요.》

이 말씀에는 혁명의 후비대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는가!

장군님께서도 혈벗은 아이들의 옷을 해입히시기 위하여 무장대오의 조직을 위하여 집을 떠나실 때 강반석어머님께서 주신 돈 20원을 강세호에게 주시였다.

어머님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이 깃들어있는 돈의 사연을 잘 알고있는 강세호는 그것을 선뜻 받을수 없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혈벗은 아이들, 혁명의 후비대들을 위해서 혁명에 쓰는 돈이니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쓰는줄 아시면 기뻐하실거라고 하시며

돈 20원을 쥐여주시고 거둬 손을 풀어주시었다.

혁명의 후비대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보살핌에 의해 아이들은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으로 믿음직하게 나설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그 뜨겁고도 깊은 은정은 조국의 미래와 더불어 마를줄 모르는 생명수와 같이 영원히 흘러넘치는것이다.

소설은 끝났어도 조국의 미래와 아이들의 장래를 두고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모습은 더욱 뚜렷한 영상속에 력력히 비껴오고있다.

너무나 치참한 마안산의 아이들을 쓰다듬으시며 머리를 들라고 하시던 장군님의 갈리신 목소리가 방금 곁에서 울리시는듯하고 백두산 저멀리 조국의

수많은 별들을 구원을 기다리는 조선의 어린것들의 눈동자로 느끼시며 조국광복회 교육조항을 더듬으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몸가까이 뵈옵는것만 같다.

나는 어린이들과 혁명전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철저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준비하겠다.

그리하여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학생들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아버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 잘 키워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다진다.

금성고등중학교 부교장 정형진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립니다

요즘 많은 동무들속에서 널리 탐독되고있는 혁명소설 《백두산기슭》을 나도 역시 깊은 감명속에 보고 또 보았다.

나는 《백두산기슭》을 읽고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난관을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과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매 장면마다에서 느끼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의 길을 개척해온 항일선열들이 발휘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생동하게 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열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항일빨찌산들이 백두밀림에서 싸우던 그런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1936년초~1936년 5월 기간의 력사적사실들을 실제 목격하는것과 같은 실감을 주었다.

나는 소설을 읽고 느낀 많은 이야기들중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싸우면서 발휘한 무한한 충성심의 몇가지만을 말하려고 한다.

미혼진을 얼마 앞둔 혁명대오에서련대장 강세호

는 경위중대장 리북철에게 사령관동지를 호위하는 전사들이 명심해야 할것들에 대하여 준절하게 타이른다.

《동무에게는 하치않은 일이란 없다는걸 알아야 하오. 동무가 하게 되는 모든 일은 불을 피울 나무를 고르는것이나 밥지을 물을 뜨는 일이나 어느것 하나도 허술히 여길 일이 없다는걸 알아야 하오. ... 말하자면 동무가 하는 일에는 어느것이나 최고의 중대성을 기해야 한다는거요. ... 동무들의 일거일동은 레외없이 다 그이를 모시는 사업의 한부분이 기때문이요...》라고.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기 위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을 명령지시수행에서나 전투임무수행에서는 물론 생활에서 사소하다고 생각될 점들까지도 어김없이 철저히 수행하여왔다. 실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산 모범으로 되며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사업에서는 그 어떤 사소한 일이라는것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게 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모든 유격대원들의 심정과 념원이 바로 이러하였고 그이를 충성으로 높이 모시는것을 혁명전사의 첫째가는 본분으로 지켜왔었다.

오늘 우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묵숨으로 옹호보위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조국

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 통일된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있으며 주체사상위업의 전세계사적승리가 잇닿아있는것이다.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할 열화같은 일념으로 충만된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임무수행에서도 얼마나 충실했던가.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정치공작원의 임무를 받고 무송시내로 들어온 리경준은 자기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가! 평소에 사령관동지께서 입고계시는 낡은 군복을 새것으로 마련해드리지 못해 안타까이 고심해오던 리경준은 무송시내에 들어와 우선 사령관동지의 군복감부터 마련한다.

그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요구해서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더 높이 더 잘 모시려는 수정같이 맑은 충성심이 뜨겁게 맥박칠 때 혁명전사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건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리경준은 《금강사진관》 주인 박문필을 조국광복회창립대회에 참가시키라는 사령관동지의 지시를 전달받은후에도 이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박문필이 일제에게 체포되었으나 리경준은 혁명임무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과감한 투쟁을 벌려 끝내 그를 구출하여냈으며 동강밀영을 향하여 떠난후 뒤늦게나마 밀정놈들이 따라오고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단호한 결심을 채택한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집행하기 위하여, 사령부의 행처를 원수들에게 로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박문필을 꼭 보내야 하며 자기가 뒤에서 적을 때내야 한다고 결심한 그는 적탄을 맞아 최후를 마치면서도 박문필에게 사령관동지를 잘 모시고 싸워줄것을 최후부락으로 남기였다.

이름없는 외진 들길에서 자신의 육체적생명을 앓기우면서도 장군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고 사령부의 안녕을 지켜낸것으로 자신의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려는 고결한 충성심을 볼수 있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바치는 한생은 그 생애의 길이에 관계없이 영원한 삶으로 되어 오늘 우리들의 가슴속에

도 뜨겁게 살아있다.

또한 《백두산기슭》을 읽고 나는 항일유격대원들을 비롯하여 어린이들과 늙은이들까지도 모두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끝까지 따르고 죽어도 살아도 장군님 곁으로 가겠다는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뜨겁게 느끼였다.

엄동설한에 천리수해를 헤치며 허기진 배를 풀뿌리로 달래이며 두 어린것들까지 데리고, 부상당한 대원을 담가에 눕히고 담가행군을 하는 간난신고속에서도 혁명적락관에 넘친 리경준일행과 한남실을 비롯한 10여명 어린이들이 마안산까지 간고하게 행군해온 화족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라도 따르려는 충성심이 날아준 초인간적힘이며 혁명적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려는 충성의 한마음을 굳게 가졌을 때 그 앞길을 막을 그 무엇도 없다는 생활진리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고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으며 항일혁명선열들이 수령님께 바친 열렬한 충성심을 따라배워 석탄생산전투에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된다. 아마도 나와 모든 탄부들이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보여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극복 못할 난관이 없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채취공업부문을 새 7개년 계획의 주타격방향으로 제시하여주시고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영예로운 과업을 우리 탄부들에게 맡겨주시였으며 석탄혁명을 일으킬것을 바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하는것, 석탄혁명을 힘있게 일으키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으랴!

내 기어이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며 바로 이 길에서 나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가련다.

전성청년탄광 노동자 최종갑

가사

주체의 락원에 행복이 꽃폄네

김두일

아름다운 만경대에 태양이 솟아
인민들이 주인된 락원이 펼쳐졌네
아 내 나라는 주체의 나라
수령님 사랑이 강산에 넘쳐 행복이
꽃폄났네

교육테제 빛발아래 누구나 배우고
무상치료 혜택으로 사람들 젊어졌네
아 내 나라는 주체의 나라

수령님 은덕에 우리 생활
그대로 기쁨일세
세금 없고 근심 없는 우리 살림에
자동화의 봄빛속에 로동은 노래로세
아 내 나라는 주체의 나라
수령님 세우신 인민의 락원
억만년 빛내가세

우리네 농촌은 도시를 닮아가요

최준경

양지바른 언덕아래 새 거리가 일어서고
집집마다 사랑어린 수도물이 쏟아지네
어버이수령님 은덕으로
우리네 문화농촌은 도시를 닮아가요

아침이면 버스 타고 농장벌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텔레비로 대극장도 구경하네

어버이수령님 은덕으로
우리네 문화농촌은 도시를 닮아가요
기계농사 지어가는 살기좋은 우리 마을
도시와 어깨걸고 한살림을 펼쳐가네
어버이수령님 은덕으로
우리네 문화농촌은 도시를 닮아가요

유격구마을에 쌍그네 나네

강혁

오월이라 유격구에 종다리 노래하고
동네방네 부녀회원 그네놀이 즐거워라
날아라 쌍그네야 우리 세상 왔구나
혁명주권 기발아래 너도나도 날아보자

이름 없던 부엌너도 야학에서 공부하고
머슴살던 갓난아도 제땅에서 씨뿌리네

날아라 쌍그네야 해방의 봄이 온다
희망의 방울소리 조국땅에 울려보자

한번 굴러 앞을 보면 조국산천 안겨오고
두번 굴러 다시 보면 원썩칠 맘 불갈구나
날아라 쌍그네야 해방된 조국땅에
장군님을 모시고서 우리 주권 다져가자

풍년벌에 울리는 혼성 2중창

윤두근

풍년가를 설참이라 오락회 흥겨운데
군민의 2중창을 저마다 부르래요
목청 고운 처녀동무 어서 먼저 떼시랴요
선창이야 일손 빠른 군인동무 불러야지요
아 풍년벌에 우리 노래 정을 담아
울려가네

우리 함께 장단맞춰 풍년가를 불렀더니
소곤소곤 귀속말이 바람결에 들려와요

군민의 정 담은 노래 독창도 좋지마는
보기에든 듣기에든 2중창이 더 좋대요

주고받는 노래속에 살뜰한 정 오고가니
농장원도 군인들도 마주보며 싱글벙글
수령님의 한품에서 군민일치 꽃피나니
금나락도 흥에 겨워 넘실넘실 춤을 춰요
아 풍년벌에 우리 노래 정을 담아
울려가네

가사

은금의 강산 빛내여가세 외 1편

리정술

내 나라 어데 가나 자원도 많고 많아

삼천리 아름다운 은금의 강산일세

아 수령님 높이신 뜻을 안고

이 땅의 보화 모두다 캐여 내 조국

빛내가세

천년만년 잠을 자던 땅속의 은금보화

인민들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네

아 수령님 높이신 뜻을 안고

이 땅의 보화 모두다 캐여 내 조국

빛내가세

은금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내 나라

온 세상에 이름도 높은 조선을 빛내이세

아 수령님 높이신 뜻을 안고

이 땅의 보화 모두다 캐여 내 조국

빛내가세

예가 바로 우리 마을 나서자란 고향일세

시내물 속삭이는 산기슭에

정답고 아담한 우리 마을

푸르른 벌도 파일산도

기쁨을 안겨주네

아 수령님 꽃피주신

예가 바로 정든 우리 마을

나서자란 고향일세

수령님 주신 땅에 첫씨앗 뿌린

그 날의 감격도 스며있네

어머니조국 지켜싸운

자랑도 여기 있네

아 수령님 꽃피주신

예가 바로 정든 우리 마을

나서자란 고향일세

끝없이 설레이는 이삭들도

오늘의 이 행복 속삭여주네

이 한몸 바쳐 빛내여 갈

보람찬 일터라네

아 수령님 꽃피주신

예가 바로 정든 우리 마을

나서자란 고향일세

토지혁명에 대한 서사시적화폭

-장편소설 《새봄》에 대하여-

류만

장편소설 《새봄》(김규엽)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갖 극좌, 극우 분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던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한 성과작이며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힘있는 교과서로 된다.

작품의 시대적배경으로 되고있는 해방직후로부터 토지개혁실시에 이르기까지의 반년남짓한 시기는 미제와 결탁한 착취계급과 반동들의 준동을 짓부시면서 새 조국 건설의 첫걸음을 내딛던 매우 어렵고 복잡한 그러나 보람찬 시기였다. 이 시기에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에서 지주계급과 반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면서 토지문제해결의 력사적과업을 하나하나 성과적으로 해결해나아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개혁의 실시는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일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놓았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농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비상히 높여주었습니다. ...

토지개혁에 의하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던 봉건적생산관계와 가장 반동적계급인 지주계급이 청산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이 마련되게 되었습
니다.》

토지개혁은 농민들의 생활에서와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장편소설 《새봄》은 토지개혁을 전후한 사회력사적환경을 진실하게 재현하면서 그 근처에 우리나라에서의 토지혁명은 어떻게 빛나게 수행되었으며 그것이 농민들의 생활과 처지에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제기하고 있다. 즉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력사적인 토지개혁은 농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땅을 다루는 농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한 일대 사변이며 토지개혁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과 농민들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생활의 봄, 력사의 새봄을 맞이할수 있게 되었다는것을 기본문제로 깊이있게 심어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형상적으로 구현하면서 작품에서는 철저하게 당시의 력사적사실들과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바 그것은 그에 반영된 구체적인 사건과 인간관계 설정 등을 통하여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작품에는 인민정권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 농촌에서 3.7제를 위한 투쟁과 토지개혁의 실시, 농민조합의 조직과 농촌위원회 조직 등 력사적사실들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작품에서는 특히 당시의 사회계급관계를 정확히 보여줄수 있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첨예한 갈등속에서 그것을 풀어어나가고있다. 여기에는 당시 농촌에서 핵심력량들이였던 고농, 빈농들과 중농, 부농들뿐아니라 지주계급도 포함하여 여러 계급과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하고있다. 실재하였던 력사적사실들과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인물을 형상하면서 작품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당의 계급정책에 립각하고있는바 이것은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사상적심오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 기본조건이였다.

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계급정책에 립각하여 당시의 사회력사적사변들과 인간관계, 사람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특히 형상전반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인민정권건설과 토지개혁수행을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감동적으로 깊이있게 그리였다.

혁명적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형상전반을 통하여 심오하게 그려내는것은 필수적요구이며 그것은 인민정권건설과 토지개혁과 같이 거창한 력사적사변을 취급하는 작품창작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왜냐하면 우리 인민의 모든 생활이 다 그러하지만 거창한 력사적사변들은 그 어느 하나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건설과 토지개혁의 력사적과업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제시되고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밑에 그이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빛나는 승리로 계속되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조선의 가난한 농민들이 땅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땀과 피눈물을 흘리였는가고 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땅에 대한 그들의 맺히고 맺힌 소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에 개선하시어 민

주개혁의 첫과업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준비사업으로 농조를 꾸리고 3.7계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이며 날카로운 계급투쟁인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민정권을 튼튼히 꾸리고 그 독재기능을 강화하는데 큰힘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6년 2월 8일, 우리 조선의 참된 인민정부 북조선로동자인민위원회를 세우시고 계급적원썹들의 반항을 진압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수 있도록 그 독재기관들을 꾸리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기에서 지주를 비롯한 반동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고 토지개혁을 법적으로, 무력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혁명무력과 보안기관, 사법검찰기관 등을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내놓으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양지말에도 리인민위원회가 조직된다.

토지개혁을 위한 이러한 제반 방침들과 준비사업에 기초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6년 3월 5일 역사적인 선언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시었다.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토지혁명을 위하여 내놓으신 구체적인 방침들과 조치들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세기적변혁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촌문제해결의 기본과업으로 토지문제를 내세우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명하게 내놓으신 독창적인 방침들과 혁명적시책들을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재현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양지말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와 양지말 농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그려내었다.

항일투사 문승범을 영광스럽게도 당창건대회에 대표로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통하여 양지말농민들이 아버지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햇쌀을 삼가 올린 사연을 보고 받으시고 양지말사람들과 우리 농민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양지말농민들의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마을 농민들이 땅에 명줄을 걸고 어떻게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땅에 대한 그들의 욕망은 어떤지 알아보자고 하시며 최명진의 아버지 최진국과 양지말농민들의 지난날의 피맺힌 생활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신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해온것도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자는것이였소, 무엇보다도먼저 땅없이 고생하는 가난한 농민들을 땅의 노예살

이로부터 해방시켜주는것을 민족해방후 첫째과업으로 내세운것도 그래서였소. 양지말농민들이 우리한테 햇쌀을 보내준것도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땅에 대한 그 피맺힌 소원을 하루빨리 풀어달라는 간절한 념원에서였을것이요 라고 하시며 우리가 일을 더 잘해서 명년봄 밭갈이전으로 빨리 토지개혁을 하여 농민들을 어엿한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신다.

양지말농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루빨리 풀어주어 참된 해방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강추위도 무릅쓰시며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어 양지말이 속한 면을 몸소 찾아주신다. 양지말농민들과 하루밤을 지새우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소박한 생각도 귀중히 들어주시며 손수 쓰신 토지개혁법령의 매 조항을 완성하시였으며 땅을 나누어주어도 물이 없다면 토지개혁이 무슨 일을 내겠는가 하시며 농민들과 함께 저수지자리도 잡아주시고 씨앗이며 부림소, 농쟁기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토지개혁은 농촌에 굳건한 민주주의터전을 닦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시며 명진이들에게 당원인 동무들은 바로 이 위대한 혁명의 선구자들이며 투사들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었다.

작품은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지난날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히던 우리 농민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새 사회의 담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토지문제해결을 위한 수령님의 로고와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토지혁명의 역사적과업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는것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의 령도밑에서 농민들은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주성을 찾게 되었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생활 창조의 길에 당당하게 들어서서 준엄한 계급투쟁속에서 투사로, 혁명가로 성장할수 있게 되었다는것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형상전반에서 깊이있게 보여주며 작품의 주제사상을 심오하게 밝히는데서 중요한 형상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군당비서 문승범의 형상이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수령님의 신변보위를 제일생명으로, 생활의 신조로 삼아온 경위증대의 소대장이였던 문승범은

항일의 그날에 그러하였던것과 마찬가지로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나날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높이 받들어나아가는 그 길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바쳐 싸운다.

그의 성격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광범한 군중을 바로 그렇게 교양하고 이끌어어나아가는것이다.

해방직후 토지개혁전야의 농촌실정은 매우 복잡하고 험악하였다. 문승범이 파견되어 일하는 군에서만 하여도 군인민자치위원장자리를 타고났은 임광섭이가 좌경을 휘두르며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웨쳐대는가 하면 극우분자들과 강병기를 비롯한 착취계급들은 집요하게 준동해나섰다. 한편 명진을 비롯한 빈농과 고농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몰랐으며 지어 일부 사람들은 부단한 동요상태에 있었다.

이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나아가는 문승범에 의하여 정확하게 성과적으로 해결되어나아가는것이다.

문승범은 언제나 로동자, 농민들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토지개혁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그 관철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며 농민들을 이끌어나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농민들에게 심어주며 그 가르치심대로만 투쟁하여야 한다는 문승범의 확고한 신념과 정력적인 노력에 의하여 초기에 일시 편향을 범하였던 농조조직도, 3.7제를 위한 투쟁도 다 성과적으로 결속되어가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창건대회에 참가한 문승범이가 대회기간에 박진에게 연락하여 대회에서 채택된 《토지문제 결정서》가 실린 《정로》신문을 명진에게 한시바삐 보이도록 한것이라든가 그가 대회에서 돌아오자 곧 양지말로 와서 당창건대회에서 제시된 방침을 농민들에게 침투시키는 정력적인 활동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문승범의 숭고한 사상정치적공모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통하여 대중을 조직하고 이끄는 조직선전자로서의 문승범의 정치사상적공모를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그것은 문승범이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계급정책을 확고히 견지하여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처단하고 박진, 최명진을 비롯한 로동자, 농민들을 참다운 계급의 전사로, 새 조국 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토지개혁수행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힘있게 이끌어나가는데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나아가는 항일혁명투사인 군당비서 문승범의 형상을 생동하게 창조함으로써 작

품전반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경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구현하고 혁명전통의 계승성, 조직선을 깊이있게 부각하였다.

장편소설 《새봄》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교과서로 된다.

그것은 이 작품이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당의 계급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진실하게 형상한데 기인한다.

장편소설 《새봄》은 토지개혁을 위한 준엄한 계급투쟁속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생활과 땅의 주인으로, 건결한 혁명가로 성장하는 농민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이러한 농민들의 형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것은 최명진, 동석준, 변귀남, 손억쇠, 동형근, 리분옥 등 빈고농출신의 농촌핵심들이다.

작품에서는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토지혁명의 거대한 력사적사변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성장하였으며 빈고농들이 농촌에서 어떻게 핵심적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예술적형상의 바탕에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힘을 자각한 수백만 근로대중이 계급적으로 각성할 때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 근로인민대중이 주인된 새 사회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다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가 깊이있게 깔려있는것이다.

주인공 명진은 작품의 이러한 사상적지향과 기본형상과제를 집중적으로 체현한 인물로 생동하게 전형화되었다.

일찌기 열두살때부터 지주집머슴을 살면서 누구보다도 땅에 대한 괴머한 사연을 가지고있는 명진에게 있어서 해방이 안겨준 감격과 기쁨은 류달리 큰것이였다. 일제의 《동원령위반죄》로 한해반에 걸치는 감옥살이까지 하고 고향에 돌아오는 그는 일시에 모든것이 달라지고 고향도 사람들의 처지도 근본적으로 변하였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맞아준 고향땅은 아직은 옛모습 그대로였다. 명진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한달음에 고향에 왔으나 지주놈은 여전히 살아있고 착인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고있었다. 집이라고 쓰고 살던 초라한 초가집마저 뒤범벅이 되고 어머니는 남의 결방살이로 쪼들려 살고있었다. 동석준로인이며 분옥이와 장과부네도 지주집 머슴사는 억쇠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해방이 되여 《징병》과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와 감격적인 상봉들이 벌어지군하였지만 해방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변화의 예감을 주며 떠나닐뿐 모든것이 아직은 옛날 그대로였다.

작품에서는 해방직후 양지말의 이러한 형편을 생동하게 펼쳐보이면서 명진이가 자기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처지, 운명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어떻게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싸워나가는가를 당시 농촌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사변들과의 관계속에서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해방이 되었으니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과 마을일을 이끌어줄 마을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첫걸음을 떼었으나 명진은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저 자주들에 대한 피맺힌 원한과 증오만이 땅에 대한 지울수 없는 욕망과 어울려 펄펄 끓어올랐으며 때문에 그는 지주를 반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면, 지주를 반대하는 일이라면 경우를 따져볼새도 없이 무턱대고 공감해나섰던것이다. 명진이 군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임광섭에 의해 지시된 소작료불납투쟁이며 이웃마을인 홍상농장에서 지주놈의 창고를 습격한 사실에 크게 흥분한것도 그리고 임광섭이를 만났을 때 지주를 모조리 때려부셔야 한다고 이것이 혁명이라고 하는 말에 《어쩔수 없는 힘》을 느끼며 그를 《훌륭한 정치가》로 생각하고 그의 지시대로 당장 들고 일어나 지주를 칠 생각을 굳히게 된것도 다 그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지주강병기네 고간습격에서의 실패는 명진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어떻게 해야 지주놈들을 모조리 때려눕힐수 있겠는가, 설사 고간습격을 해치운다 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심장은 불같이 끓어번지고 안타까움은 소용돌이쳤으나 명진을 향방을 잡을수 없었다.

이러한 때 명진에게 있어서 등대처럼 앞길을 밝히 밝히며 크나큰 투쟁의욕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것은 3.7제를 실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7제투쟁은 해방후 농민들이 지주계급을 반대하여 진행한 첫 전투였으며 그 과정에 많은 농민들이 계급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민들은 지주가 악랄하고 교활하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지주들의 착취와 예속에서 벗어나려면 단합된 힘으로 지주와 맞서 싸워야 하며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승범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을 농조에 튼튼히 묶어세워 소작료를 3.7제로 밀고나가며 이 투쟁을 통해서 작인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되어야 지주의 땅을 뺏는 토지혁명을 승리할수 있다고 하신 가르치심을 전달받는 순간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의 마음에 휩싸이며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뒤설레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7제를 위한 투쟁방침이 당시 우리 나라 농촌실정에 맞는 가장 현명하고 정당한 방침이며 그 투쟁이 해방후 농민들의 의식령역과 생활에서 얼마나 거대한 전변을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면서 명진이를 비롯한

농민들이 그 과정에서 정치사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새롭게 성장하였음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때까지의 투쟁이 그저 해방의 감격과 기쁨에 들뜬 막연한 투쟁이었다면 3.7제를 위한 투쟁은 명진에게 있어서 곧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따라서 이 투쟁은 동시에 그의 의식장성의 과정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는것이다. 그의 의식장성에서 첫째기로 된것은 농조조직을 위한 투쟁이었다.

항일투사 문승범의 지도밑에 농조조직에 착수한 명진이는 변귀남이와 동석준, 형근, 성실이와 분옥 등 핵심들과 함께 군중들을 깨우치고 농조에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 이러한 투쟁은 그대로 난관이 겹치고 실패도 맛보는 간고한 투쟁이었다.

강병기를 비롯한 착취계급들은 농조를 반대하여 음으로 양으로 책동해나섰다. 놈들은 서울에 등지를 틀고있는 미제와 반동들과의 련계밑에 교회신자들을 부추기고 교회부속일요학교인 《신성학원》을 정규학교로 《승격》시키며 소작계약을 고쳐하는 등 온갖 모략을 다 꾸미었다. 또 임광섭은 농조에서 자작농은 배척하고 고농과 빈농만 받으라고 좌경을 휘둘러댔다. 그런가 하면 강건너마을의 《봉화덕》 머느리며 자작농 마종대를 비롯한 일부 농민들은 의연히 동요하며 망설이고있었다. 이 모든것을 이겨내고 농조를 조직한다는것은 명진에게 있어서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러나 명진은 원수들의 간계를 짓부시고 군중을 교양하면서 농조조직을 힘있게 이끌어나간다. 지어 그는 강병기놈과 마름 장기택놈의 꾀임수에 일부 농민들이 넘어가 첫 농조조직이 실패하였을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교훈을 찾아 새로운 투쟁에 나선다. 이 과정에 명진은 계급적원썬들의 본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계급적으로 성장하며 조직적수완을 깊이 쌓아간다.

작품에서는 문승범의 지도밑에 명진이를 비롯한 변귀남, 동석준 등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양지말에 농민조합이 조직되고 농민들이 지주강병기놈을 반대하는 군중시위까지 벌리는 모습을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3.7제와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에서의 농민들의 승리와 그들의 의식장성과정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인하였다.

명진이를 비롯한 마을농민들의 의식장성에서 또 한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첫 3.7제투쟁에서의 승리이다.

농조조직후 명진은 마을에 선전실을 꾸리고 야학을 운영하여 사람들을 계몽하고 각성시키는것은 한편 동형근 등으로 자위대도 조직한다. 명진에게 있어서 하여야 할 일, 바쁜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으며 싸움도 나날이 간고하여졌다. 그러나 그는 3.7제를 위한 첫 마당질에서 이겨야 동요하는 농민들을 교양할수 있다는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였기에

놈들이 위조문서까지 만들어 휘두르며 악착하게 반항해나섰지만 끝내 물리치고 《토지개혁을 위한 예비싸움》이었던 3.7제타작을 성과적으로 결속짓는 것이다.

해방직후 투쟁의 길을 찾아 모대기던 그때로부터 3.7제를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를 이룩한 그때까지 명진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토지개혁의 끝바른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아간 간고하고 보람찬 투쟁의 로정인 동시에 그가 정치사상적으로 성장한 로정이기도 하였다. 이 길에서 명진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농촌혁명가로 자라났으며 수령님께서 발포하신 토지개혁의 력사적인 선언을 관철하는 그 길에서 마을의 첫 공산당원으로서, 농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기의 모든 힘과 정력을 다 바쳐나가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토지개혁의 력사적인 거류속에서 열렬한 투사로, 혁명가로 성장하는 그의 성격적특징을 깊이있게 형상하면서 변귀남을 깨우치고 억쇠를 참다운 삶의 길로 이끌며 장파부와 분옥의 아버지 리상옥 등 마을농민들을 꾸준히 교양하여 각성시킬 뿐아니라 분옥이와 아름답고 깨끗한 사랑을 나누는 고상한 내면세계를 통하여 그의 혁명적의리와 열렬한 인간애, 뜨거운 인정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토지혁명의 력사적인 전변속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농촌혁명가로 성장한 그 자랑찬 대오에는 명진이와 함께 동석준, 변귀남, 동형근 등 많은 마을농민들이 서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명진의 성장과정을 기본으로 깊이있게 그리면서 동석준, 변귀남, 동형근 등의 계급적각성과 투쟁속에서의 성장과정을 또한 진지하게 펼쳐보고있다.

한평생 야장일로 늙어온 동석준은 대바르고 의리가 강하며 착취계급을 끝없이 증오하는 강요한 의지의 소유자이다. 그는 양지말농민조합의 위원장으로서뿐만아니라 마을의 좌상으로서 언제나 명진들이 하는 일을 적극 뒤받침해주며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주는 것이다.

강병기네 고간습격에서 실패한 날 명진이와 함께 대장간에서 매질을 하는 모습과 명진이가 원썬놈들의 습격을 받아 몸을 다친 뒤 마을청년들과 함께 대장간에서 창을 버리는 모습 등은 동석준로인의 그러한 성격적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작품에서 변귀남의 형상 역시 매우 생동하고 개성적으로 그려졌다.

부농 태문갑의 머슴으로 잔뼈가 굵은 변귀남은 명진이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7제를 위한 투쟁,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에 선참으로 나서며 리인민위원장으로서 핵심적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장군님께서 하라시는대로만 해나가자》는것을 확고한 신조로 삼고 토지개혁수행을 위하여 억척같이 투쟁한다.

작품에서는 농촌혁명가로, 투사로 성장하는 그의

성격적면모를 3.7제를 위한 투쟁,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특히 그의 성격에 체현된 농민다운 소박성과 락천성,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땅의 주인으로 된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양지말을 보다 아름답고 훌륭하게 꾸려갈 생각으로 벅차오르는 가슴을 녹잡히지 못하는 귀남이, 정말 사는 보람이 있다면서 더 많이 배워 더 잘 일해보자는 귀남이, 변귀남은 그대로 토지개혁의 혜택을 한가슴에 받아안은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 미래에 대한 부풀어오르는 량만적지향의 체현자로 전형화되었다. 그의 꿈과 리상이 그처럼 소박하나 아름답고 숭고한것이였기에 원썬들에 의한 그의 희생은 토지개혁이 그만큼 준엄한 계급투쟁속에서 값높은 죽음우에 피어난 웃음으로, 행복으로 되게 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사상정서적충격을 안겨주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이밖에도 농촌청년의 체취를 확 풍겨주는 《님도 보고 뽕도 탄》동형근이며 순박하나 열정적인 분옥, 강의하고 굳세면서도 인정이 많은 권성녀 등 농민들의 형상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창조하였다.

작품에서는 각이한 생활로정과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성도 서로 다른 농민들의 성격을 창조하면서 해방후 그들의 심장마다에 고이 간직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뿜어오르는 충성심이 었다는것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보여주었다.

해방직후 갈길몰라 망설이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 그 순간부터 명진이며 귀남이들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이 세차게 뿜어번지기 시작하였다. 농조를 조직하고 3.7제를 실시하며 토지개혁을 진행하던 그 력사적인 나날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야말로 새조선의 앞길을 밝혀주고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영원히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나아가야 보람찬 생활도, 참된 삶의 기쁨과 행복도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깊이 간직하게 된다.

작품에서는 자기들에게 삶을 주시고 땅을 주시였으며 운명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농민들의 뜨거운 감사와 흠모, 충성의 마음을 구체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감명깊게 그리고있는바 그것은 특히 아버지수령님께 정성답아 햇쌀을 올리며 수령님께 감사의 편지를 삼가 올리는 그 절절한 심정에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밤을 꼬박 지새우며 한알의 누라도 섞일세라 정성스레 쌀알을 고르며 새 무명으로 쌀자루를 만들어 햇쌀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리는 양지말농민들의 심정,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다는 소식

에 접하여 기쁨에 이기지 못해 삼가 편지를 올리는 그들의 심정, 이러한 심정의 밑바닥에는 오직 수령님을 태양으로 우러르며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농민들의 한결같은 사상감정이 확고히 자리잡고있는것이다.

작품에서는 명진, 번귀남 등 양지말농민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자리잡고 날을 따라 더더욱 자라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다함없는 흙모와 충성심을 형상 전반을 통하여 심오하게 밝혀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자주성을 찾고 새생활과 새삶의 길에 들어선 농민들의 새로운 성격의 핵을 이루며 그 본질적특징으로 되는것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작품에서 명진을 비롯한 동석준, 번귀남, 동형근 등 농민들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7제를 위한 투쟁과 토지개혁의 력사적인 전변속에서 지난날 자주성을 유린당하고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어왔던 농민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심으로 하여 어떻게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게 되었으며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농촌의 어엿한 혁명가로, 땅의 주인으로 되어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시된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개혁은 사회경제적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을뿐 아니라 농민들의 운명과 생활에서도 거대한 력사적인 전환, 력사의 새봄을 가져왔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작품에서 박진은 이 시기 로동계급의 전형으로서 토지개혁수행을 위한 투쟁에서의 로동계급의 지도적역할과 방조를 형상적으로 구현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작품에서는 마중대를 비롯한 자작농들과 중농들을 교양개조하며 태문갑 등 부농을 고립시켜나가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우리 당 계급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잘 보여주었다.

토지혁명의 거대한 력사적변혁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작품에서는 토지개혁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주인들인 고농, 빈농 등 농민들의 형상과 함께 당시 우리 나라 농촌에서 토지개혁을 극력 반대해나선 지주계급과 반동들의 착취적본성과 악랄성을 날날이 폭로하였다.

작품에서 지주계급과 반동들의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지주 강병기와 그의 마름 장기택, 강병기의 아들 강영수, 총독부추천원참의를 지닌적이 있는 지주 전승수와 그의 아들 전계상, 과부지주 《순천택》, 그리고 월슨 등 미제침략자들을 들수 있다.

강병기 하나만 두고보더라도 고농, 빈농은 더 말할것도 없고 부농 태문갑에 이르기까지 조상으로부터 대를 내려오면서 양지말에는 그놈과 피맺힌 원한을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것이다.

작품에 나오는 지주계급과 반동들은 살쥔 경위

와 속심은 제나름이지만 그 성격의 공통적특징으로 되고있는것은 변하지 않는 착취계급의 본성이다.

해방이 되고 3.7제와 토지개혁이 실시되는 가운데서 제놈들의 옛터지와 지위가 더는 지탱될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놈들은 착취적본성과 야망을 버리지 않고 더욱더 반발해나서는것이다.

작품에서는 농민들의 투쟁이 고조에 이를수록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부추김밑에 《싸우지 않고서 우리 행복과 영화를 지켜낼수》 없다고 떠벌이면서 이를 악물로 발악해나서며 아들놈에게 토지문서를 넘겨주고 명진이들에 대한 공공연한 테로를 감행하는가 하면 과부지주인 《순천택》과 같이 토지분여의 날 《제땅》에 드러누워 팔다리를 벌리고 광기를 부리는 등의 책동과 추리를 통하여 착취계급의 본성은 변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또한 아직 각성하지 못한 일부 농민들이 제놈들에 대한 《고마움과 믿음》을 느끼도록 온갖 모략을 꾸미며 면의 토지대장문서와 실지로 지의 평수를 다르게 하고 농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등의 책동을 통하여 착취자로서의 지주계급의 교활성과 비인간성을 여지없이 폭로하였다.

해방후 농촌에서의 토지개혁수행을 악랄하게 반대해나선 미제의 부추김을 받던 지주계급을 비롯한 반동들을 등장시키고 놈들의 최후발악적책동을 폭로하였으며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뭉친 농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놈들이 멸망하여가는 과정을 힘있게 확증한 여기에 계급투쟁의 생동한 화폭으로서의 이 작품의 높은 인식교양적가치의 한 측면이 있다.

장편소설 《새봄》은 위대한 토지혁명의 거창한 력사적사변을 반영하면서 인간과 그 생활을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훌륭히 형상하였다.

작품이 거둔 높은 예술적성과에서 중요한것은 토지개혁당시의 사회력사적현실과 농민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폭넓고 진실하게 반영한것이다. 작품에는 해방의 감격으로 들끓던 당시의 현실과 해방직후에 벌어졌던 여러가지 사변들이 진실하게 재현되어있다. 작품에서는 실재한 력사적사변들과 사실들을 이야기줄거리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면서 당시 농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그리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성격을 형상할 때 어떤 시대, 어떤 처지, 어떤 계급적도대에서 자라난 인물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는 동시에 성격도 심오하게 밝힐수 있다.

작품에서는 고농, 빈농 출신들인 최명진, 번귀남, 손억쇠 등의 계급적도대와 처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써 생활묘사의 심각성과 사실주의 적진실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명진과 귀남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억쇠와 그의 어머니의 생활에 대한 묘사는 착취사회의 본질을 예리하게 해부한 하

나의 축도이며 자주성을 짓밟힌 인간들의 비참한 생활을 고발하는 문고장이다.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의 피맺힌 생활의 파고를 사실주의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그들의 높은 계급적자각과 열렬한 투쟁정신이 어디에 기초하고있으며 새 생활의 행복과 보람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하였다. 새생활창조에 나선 주인공들의 보람찬 생활과 함께 작품에서는 우리인민에게 고유한 민족생활과 인정세태생활도 섬세하게 그려보이고있다. 한가위날에 명진이네 제상을 차리라고 없는 생활에도 동네가 도와나서며 《징용》에 갔다온 분옥에게 저녁을 마련해주는 장면들 그리고 억쇠와 그 어머니를 온 마을이 도와나서는 장면들은 그대로 인정과 의리에 넘치는 아름답고 숭고한 생활화폭들이다. 그 어머니를 온 마을이 도와나서는 장면들은 그대로 인정과 의리에 넘치는 아름답고 숭고한 생활화폭들이다.

작품에는 또한 명진이와 분옥, 형근이와 복레와의 애정관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특히 형근과 복레와의 사랑은 진한 농촌의 정서와 향기를 풍기는, 순박하나 계급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농민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생활화폭으로서 매우 생동하고 선명하며 감명깊게 묘사되었다.

이 작품의 예술적성과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고 매 인물을 생동한 개성으로 전형화한것이다.

작품에는 여러 계급과 다양한 계층의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매 인물들이 산 개성으로 뚜렷이 형상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작품에서 매 인물을 옹계 설정하고 인간관계를 깊이있게 맺어주었으며 매 인물에게 뚜렷한 성격적파제를 준 사정과 많이 관련된다.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을 애초에 1장에서 그것도 처음 한두절에서 다 소개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시작부터 매 인물의 형상적 위치와 형상적파제를 뚜렷이 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사회계급적처지와 호상관계도 명백히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장편소설의 인물설정에서 그리고 성격을 개성화하는데서 하나의 긍정적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매 인물의 위치와 그 형상파제를 명백히 한 기초우에서 그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면서 뚜렷한 개성으로 전형화하였다.

명진이와 귀남이, 형근이들이 다 같이 토지개혁의 앞장에 선 투사들이면서도 다른 개성을 가지고 저마다 사랑스럽게 안겨오는것은 작품에서 이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추구하였기때문이다. 분옥의 경우를 두고보더라도 애인인 명진이와 함께 그들과 농조를 조직하고 3.7제를 실시하며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려는 내면적지향과 열정이 얼마나 강렬한것인가. 그러면서도 개조되지 못

한 아버지때문에 언제나 마음한구석에 그늘을 안고 살며 지어 그것으로 하여 마을을 뜨기까지 한 그리고 차마 명진이를 떼뗄이 볼수 없는 그의 착잡한 심리정서세계가 매우 생동하게 그려져있는것이다. 이러한 깊은 심리정서세계와 개방으로 하여 분옥의 성격은 농촌녀성의 소박한 품성과 새것을 사랑하고 지향하는 선진적리상의 소유자로 진실하게 그려졌다.

이 작품은 또한 묘사가 매우 선명하고 생동하며 회화적인 구체성을 띠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소설에서는 작가의 지문과 설화, 주정토로와 내면세계의 묘사가 이러저러한 형태로 구별되어있는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이것은 지문, 이것은 주정토로, 이것은 내면세계묘사 하고 생각할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묘사에서 특징적인것은 이것은 지문, 저것은 주정토로 하고 나눌사이 없이 그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침투되고 조화되어있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사건묘사와 심리묘사, 내면독백과 작가의 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으며 그 전체로써 하나의 묘사를 이루고있다.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방금 사건묘사를 보았는데 어느새 그에 대한 작가의 주정토로에 끌려들어가게 되며 주인공의 행동이 그려지는데 벌써 내면세계가 펼쳐지는것을 보게 되는것이다.

묘사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작품자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되게 하였으며 환경과 성격, 내면세계를 밀접히 결합시켜 인간을 하나의 산 개성으로 훌륭히 전형화하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심화하여 깊이있게 묘사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작품에서 대사는 매운 생활적이고 뜻이 깊고 정황에 잘 맞는 좋은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묘사와 대사에서 속담과 경구, 방언 등을 효과적으로 많이 쓰고있는바 이러한것은 이 작품의 예술적탐구의 새로운 성과로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작품은 섬세하고 구체적이며 정서가 폭 뻗 묘사로 일관되어있으며 따라서 작품전반이 높은 형상적경지를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작품은 이밖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시종일관 극적 흥미와 기대를 가지고 읽게 하며 사건조직이 짜이고 갈등이 예리한것 등 좋은 예술적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의 토지개혁은 어떻게 수행되었으며 농민들은 어떻게 새생활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예술적화폭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계급교양의 참다운 교과서로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귀중한 사상정신적양식으로 되고있다.

새봄을 맞는 농민들을 그리고저

김규엽

봄! 해마다 봄은 찾아오건만 해방전 우리 농민들에게는 봄이 없었다.

얼음속에서 조잘대는 물소리가 들려오면 강쪽의 버들강아지가 연회색으로 봉긋봉긋 부풀어오르며 양지바른 밭고랑에 제비꽃이 아련히 피어나는 봄, 멀리 뻗어나간 두줄기 철길우에 아지랑이가 하늘하늘 타오르는 봄의 화창한 날씨가 오면 처녀애들은 식량보탬으로 봄나물 뜯기에 정신팔린다.

소생하는 봄, 푸른 하늘 높이 종다리 즐겁게 우짖는 봄이건만 우리 농민들은 굶주린 창자를 졸라매고 부질없는 가을을 내다보며 밭갈이를 하고 고역의 헛된 한해농사일을 시작해나가곤하였다.

봄은 오건만 그들에게는 참다운 봄은 찾아오지 않았다.

피맺히는 한숨소리, 반디불같은 호롱불, 밝으면 먼지가 풀신거리는 께진 갈자리, 해묵어 갈라진 흙벽...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행여나 제땅 가지고 일해볼 날이 오려니 하고 꿈같은 그날을 그려다가 속절없이 죽어가면 그 자녀들이 숙명적으로 또다시 그 굴욕과 가난의 멍에를 메고 죽지 못해 살아가던 우리 농민들이었다. 기쁨과 희망도 짓밟힌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새봄이 찾아온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그들에게 새봄을 안겨주셨던것이다.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에 개신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원을 헤아리시고 토지개혁사업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선차적과업으로 힘있게 밀고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항일혁명투사들과 견실한 로동계급을 해방된 농촌기지에 파견하시어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시였으며 농민들 자신이 땅의 주인으로서 토지개혁법령을 직접 담당집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농민들의 피맺힌 숙망은 드디어 실현되였다. 해방된 첫 봄, 얼마나 애타게 바라고 바라던 새봄이었던가!

이 나라 전야마다에, 농민들의 멍든 가슴마다에 찾아온 위대한 새봄은 억압자들, 착취자들에 대한 첫 포격을 개시한 봄이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킨 력사적전변의 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한 결과 반민주주의적반동세력의 사회경제적토대인 봉건적토지소유제도는 우리 농촌에서 영원히 청산되었습니다. 봉건적질곡에서 해방된 북조선농민들앞에는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자기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지개혁! 그것은 말그대로 거대한 사회혁명이였으며 계급적원썹들과의 치열한 판가리싸움이였다. 더우기 우리 나라 토지개혁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으리만큼 불과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된것으로 하여, 그 투쟁의 철저성으로 하여 세계에 그 류례를 찾아보지 못한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 우리 나라 토지개혁이 어떻게 하여 이처럼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될수 있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독창적인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전쟁의 가렬한 싸움속에서 벌써 1930년대초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토지개혁을 단행하시어 농민들의 세기적숙원을 풀어주시였다.

그후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도 토지개혁을 반영하시였다.

바로 이 선행한 토지개혁 경험과 방침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농민들을 농민조합에 뭉치게 하여 계급적눈을 띄워주시였으며 3.7제를 설정하시이고 그 실시를 위한 투쟁을 마련해주시어 그들이 지주와 맞서 싸우면 이길수 있으며 능히 땅의 주인으로 될수 있다는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셨던것이다. 그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없이 천대받던 가난한 농민들을 몸소 찾으시어 일깨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이고 토지개혁법령을 더욱 완성하시면서 농민해방

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

우리 나라 토지개혁이 그렇게도 빠른 속도로 철저하게 수행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농민들에 대한 뜨거운 어버이사랑과 천리혜안의 통찰력과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 거창한 력사를 반영한 소설을 창작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우리 작가들에게 맡겨주시었다. 그러시며 작품의 종자에 대해서와 농민들의 계급적각성단계문제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두차례에 걸쳐 전해 받은 나는 감격으로 목이 메였으며 글을 쓰지 않고서는 못견딜 창작적충동에 사로잡히었다.

그러나 막상 창작의 붓을 들고보니 그 창작적충동에 비해서는 너무도 자신의 준비가 부족하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해방전에 소작농생활도 체험했고 정전직후 협동조합 못는 일에도 참가해보았으며 그후 협동농장에 나가서 생활도 해보았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이 위대한 력사적시기를 폭넓게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화한 현실체험이 부족했고 농민들에 대해서도 사실 아는것이 적다는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더우기 암흑의 땅, 미제와 반동들이 살판치는 남조선사회에 있으면서 그 거창한 토지개혁투쟁을 체험해보지 못한 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초고를 썼지만 제대로 될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난한 농민들을 지주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해주시기 위해 베푸시는 그 어버이사랑을 사실 그대로 더욱 감명깊게 그려내야 하였다.

땅냄새 나는 농민들의 얼굴, 그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도 더 잘 나오게 해야 하였다. 농민들을 찾아다니며 취재도 더해보고 신문자료들도 연구해보았지만 여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생활체험이 몸에 배이고 머리속에 넘쳐나지 않는데 창작에서 어떻게 바랄만한 결심을 얻을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작품을 제대로 창작해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은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농민들속으로 들어가자, 그들과 함께 땀흘려 일하면서 창작하자.》 드디어 나는 이렇게 결심하였다.

농민들과 함께 자신이 또한 농민이 되어 일하고 어스름이 깃드는 논머리 물고에서 손발을 씻고 그

들과 나란히 앉아 담배를 나눠피우며 다정하게 주고받는 이야기속에서 나는 농민들의 참된 감정을 읽었다.

어려운 일, 고된 일, 비가 오나 눈보라치나 그들과 함께 두엄을 쌓아올리고 모판을 만들고 모를 내고 김을 매고 가을걷이를 하는 두해남짓한 로동과정은 나에게 농민들의 참된 모습을 리해하게 해준 귀중한 체험기간이었다.

농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사상감정을 나 자신, 작가자신의것으로 만들 때 창작의 샘물은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내가 사귀 농민들속에는 농촌위원회 위원장으로 토지개혁투쟁의 앞장에서 지주계급을 때려눕힌 70고령의 농민들로부터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란 새세대 농민들도 있었지만 그들모두가 한결같이 작가인 나에게는 서로 다른 사랑스러운 인간성격의 본보기였다.

나는 장편소설 《새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현실그대로 살아움직이는 개성적이고 흥미있는 생동한 인간들로 형상해보려고 애썼다. 나와 같이 일하며 생활하는 매력있는 인간들을 전형화하기 위해서 현실체험은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들과 같이 생활하며 해방전의 그 피눈물나는 생활과 토지개혁당시 제나름으로 겪고 보고 들은 체험담들, 나의 창작을 여러모로 고무해주고 풍부히 해주었다.

비록 해방후 태어난 새세대이지만 그의 성격적특질을 파악한 기초우에서 해방전 생활속에서 재현하는것도 흥미있는 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에 이끌리어 문맹을 퇴치하고 계급적으로 눈을 뜨게 된 소박한 농민들, 지주계급을 때려눕히지 않고서는 땅의 주인으로, 자주적인 인간으로 행복을 누릴수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깨닫고 성장해나가는 우리 농민들의 슬기로운 투쟁모습을 나는 형상해보려고 했다. 그 어떤 반동들의 간악한 책동도 음흉한 꾀임수도 짓부시고 극좌적인 기회주의자들의 망동도 물리치면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그들의 력사를 쓰고싶었다.

《새봄》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슬픔과 고역을 겪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현실속에서 눈물겨운 생활을 겪어온 많은 농민들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과거일 잘

은것을 누구나 다 체험한 평범한것으로 치부해버리는것이였다. 우리 농민들의 피땀한 고난의 력사가 그렇게 만든다. 작가는 그들의 그 《비밀보물고》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들은 쉽게 그 《보물고》를 열어보이지 않는다. 한 살불이처럼 다정해지고 서로 속을 터놓고 집안일까지 의논하는 사이로 되기전에는 결코 그 《비밀보물고》를 열어보이지 않는다.

내가 로동체험속에서 얻어낸 귀중한 소득은 바로 그 《비밀보물고》의 열쇠를 얻어내어 마음대로 그 속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보물고》속에 있는 가지가지 이야기도 들을수 있게 된것이다.

작가에게는 또한 자기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지나간 추억의 바다속에서 언제든 필요할 때 그것을 들춰올려 재현해나가는 또하나의 다른 《보물고》가 있다.

풍만한 체험만이 창작에서 생동하고 폭넓은 생활을 그려내게 해주며 개성적인 인간들을 그려낼수 있는 작가의 창작적밀천으로 된다.

장편소설 《새봄》에서 최명진, 변귀남, 동석준, 장파부, 동형근, 손억쇠 등은 로동과정에서 친숙해진 원형에 기초하여 형상으로 재현한 인물들이다. 《새봄》에서 비교적 쉽게 쓰고 두번다시 손질함이 없이 완성해낸 대목들은 내가 직접 체험한 생활들을 재현한 장면들이다. 례를 들면 손억쇠의 어머니

의 기구한 운명은 곧 머슴살이의 고역속에서 속절없이 숨겨간 우리 어머니의 생활을 그린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이 알기 쉽고 리해하기 쉽게 글을 쓸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 나는 장편소설 《새봄》을 쓰면서 농민들이 쉽게 읽을수 있고 리해할수 있도록 제판에는 노력을 기울이느라고 했지만 아직도 탐구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작가로서 너무도 미숙한 내가 거창한 계급투쟁인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장편소설로 써서 세상에 내놓을수 있는것은 나를 농촌현실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온갖 창작조건들을 아낌없이 마련해주셨으며 작품의 종자까지 가르쳐주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손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배려의 덕분이였다.

그러나 장편소설 《새봄》을 내놓고보니 내가 받은 그 높은 은덕과 배려에 비하여 나의 충성심과 노력이 너무도 부족했다는 자책감을 어찌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토지혁명사상을 형상으로 충실히 그려내려면 아직 나의 창작기량이 너무도 어리고 식견도 부족하다.

나는 이번 창작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지금 준비하고있는 애국농민 김제원을 원형으로 하는 장편소설을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할 결심이다.

혁명적소설에 대한 반향

계급투쟁의 생동한 화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주, 자본가들을 계속 미워해야 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주와 자본가들의 범죄적인 착취와 략탈행위를 폭로하는 영화나 연극도 많이 만들고 이와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책도 더 많이 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영화나 소설 같은것을 다 보고 그전에 지주,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부모를 어떻게 착취하고 억압하였는가를 잘 깨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장편소설 《새봄》은 해방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 진행되였던 토지개혁의 성과적실시를 위한 날카로

운 계급투쟁을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정확히 반영한 계급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된다.

주인공 최명진의 계급작성과정, 계급의 전위투사로 장성하는 과정은 매우 진실하게 반영되였다.

해방의 기쁨을 안고 무언가 커다란 일을 하고싶은 충동에 가슴 들먹이면서도 옳바른 지도를 받지 못해 모대기고있던 명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파견하신 항일투사 문승범의 영향을 받아 점차 각성되고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선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극좌, 극우 분자들과의 심각한 투쟁과정이었다.

명진이가 초기에 좌경분자인 임광섭의 화려한 말에 흥분되어 강병기네 고간을 무턱대고 들이쳤을 때에 선손을 써서 쌀들을 모조리 뒤로 빼내고 또한

쌀과 막걸리 껌수로 농민조합무이모임을 파탄시킨 계급적원썬들의 음모책동은 참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

타작하는 날에는 무기까지 가지고 달려들어 3.7제를 파탄시키려 날뛰며 서울에 있는 미제농상전과 손을 잡고 토지개혁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발악하는 원썬들 토지개혁을 준비하려 땅을 재는 마당에까지 따라나와 자를 꺾어버리고 논판에 펄쩍 드러누워 악을 쓰는 파부지주 《순천택》의 몰골.

《네 이놈들, 날 여기다 묻구 내 땅을 뺏어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전엔 못다친다아...》

이것이야말로 자기 시대를 다 살고 멸망해가는 착취계급의 단말마적부르짖음이며 최후의 비명인 것이다.

나는 이 장면에서 계급적원썬들의 악랄한 착취적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 진리의 참뜻을 다시 한번 심장깊이 느끼게 되었다.

지난날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 호의호식하던 간악한 흙혈귀, 강병기패와 명진이네와의 투쟁은 그야말로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이었다.

그것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던 기본인물인 변귀남의 억울한 희생에서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작품에서는 적대계급과의 치열한 계급투쟁과 함께 낡은 사상과의 투쟁과정도 진실하게 반영되었다.

지난날 다같이 지주의 착취와 억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노예적굴종사상으로 인하여 자기들을 해방하기 위한 계급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며 주저하고 동요하는 장과부와 리상옥, 손억쇠의 장성과정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가.

특히 지주의 미움을 사서 땅을 부치지 못하게 될 가봐 겁이 나서 딸을 잃으면서까지 지주에게 굽신거리며 일해주는 리상옥이 늦게나마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깨닫고 토지개혁투쟁에 적극 나서는 과정은 낡은 사상을 뿌리빼는 투쟁도 심각한 계급투쟁임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소설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심각한 계급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 뜨거운 눈물속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농민들의 모습을 감명깊게 펼쳐 보이고있다.

《갓은 구박과 가난 속에서 조들리던 자기들에게 행복과 영광, 보람과 희망을 안겨주신 위대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그들의 심장마다에서 불타고있었다.

억쇠는 손을 높이 쳐들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모여선 사람들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두손들을 높이 높이 쳐들고 만세를 웨치고 또 웨쳤다.》

이 웨침이야말로 땅의 노예로부터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웨침이며 치열한 계급투쟁에서 승리한 우리 농민들이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아가려는 충성의 맹세인 것이다.

참으로 장편소설 《새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토지개혁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농민들이 진행한 간고한 계급투쟁의 역사를 감명깊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우리들에게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훌륭한 교과서로 리용되고있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오늘 이 땅우에 펼쳐진 풍요한 대지며 꽃피는 사회주의문화농촌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볼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한없이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신념화, 신조화 하고 로동계급의 관점을 더욱 튼튼히 세워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미래의 교육전사로 믿을직하게 준비할것을 결의다진다.

평양제2사범대학 국문과

제3학년 김혜련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말가슈
라짚바자피 줄로딘 작사, 작곡

1.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태양

만민이 따르는 위대한 태양

(후렴)

수령님 우리러 인민은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혁명의 태양 **김일성** 주석이시여

2.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이 나갈길 밝혀주시네

(후렴)

3. 우리 말가슈 인민들도

수령님께 영광의 노래 드리네

(후렴)

4. 인류해방의 위업 위하여

이룩하신 그 업적 찬란히 빛나네

(후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 다함없는 경모의 인사 드리웁니다

말가슈
안드리아나씨 싸무엘 작사, 작곡

1. 혁명의 영웅주석께

인사를 삼가 드리웁니다

인류의 앞길을 밝히시는

그이는 주체의 태양

(후렴)

그이는 영원한 혁명의 태양

주체의 사상은 누리에 빛을 뿌리고

우러러 따르는 온 세상 인민들

김일성 주석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2. 주체시대 밝히신 주석께

인사를 삼가 드리웁니다

현명하신 그이의 령도에

원썬들도 머리를 숙였네

(후렴)

3. 인민의 수령 주석께

인사를 삼가 드리웁니다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크나큰 사랑을 주시네

(후렴)

4. 온갖 시련 이기신 주석께

인사를 삼가 드리웁니다

세계혁명 위해 바치시는

고귀한 한평생은 빛나네

(후렴)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수다섯뚝에 드리는 노래

네데를란드
콘라드 보에메르 작사, 작곡

1. 온 세계 모든 인민들은 수령님께 인사 드리네
위대한 그이를 우러르며 노래를 삼가 드리네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여 승리의 길 밝히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네
(후렴)
동지이시며 벗이신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시여 한평생을 바치시네
2. 지난날 조선인민들은 나라 잃고 헤매일 때
수령님께선 일제치실 단호한 결심하셨네
인민을 가르쳐주시고 인민에게서 배우시며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시었네
(후렴)
3. 그이는 원쑤놈들을 여지없이 쳐부셨네
온 세계 청년남녀들은 그이께 영광드리네
자주와 자립성 지키려 청년들 노래를 부르네
그 노래 울려 퍼진다네 조선에서 라인강까지
(후렴)
4. 유구한 력사 빛나는 조선은 원쑤에 의해 갈라져
분렬의 고통 당하여도 통일의 날 멀지 않았네
수령님 모시고 싸우기에 통일의 날 멀지 않았네
인민은 오직 한마음으로 그이따라 승리하리라
(후렴)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허옥녀

분회장 하던 우리 아버지
철부지였던 나를
꼭신한 무릎에 앉혀주시어
저녁마다 들려주신 이야기
장군님의 전설같은 이야기

《장군님은 축지법 쓰시여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왜놈들을 족치셨단다...》

그럴 때면
우리 세 남매의 가슴 부풀고
눈동자는 반짝반짝
마치나 꿈을 꾸듯...

그때로부터 이십여년
두 남매의 엄마가 되었어도
이 세상 가장 숭고한 이름으로
내 가슴속에 고이고이 새겨온
그 이름- **김일성** 원수님!

비록 고향 흙내는 몰랐어도
수령님 마련해주신 배움터에서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쓰고
조선의 넋을 키워온 세월
이 가슴엔 그늘진적 없었습니다

조국이 걸어온 투쟁의 자취를 알고
위대한 주체의 뜻으로 눈을 떠
가장 고귀한 또 하나의 생명을
받아안았을 때로부터

내 심장속에 더더욱 뜨겁게
희망의 태양으로
거연히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님!

제가 갈길 제가 찾고

자기 힘을 믿고 살며 일하여라
조국 위한 한길에서
꽃은 계속 피워야 한다
참된 삶의 길 깨우쳐주신 수령님

우는 애기 남겨두고
밤길을 나설 때면
이 땅이 이국임이 뼈에 사무쳐
나약한 마음 발걸음 무거웠건만

수령님 이끄시는 이 길만이
가장 곧바로 빨리
민족의 숙원 이룩하는 길
아이들이 걸어갈 행복한 길임을
신념으로 간직하였기에
그 어떤 시련도 이길수 있었습니다

수령님이시여
가난과 고난 앞에선
눈물 참을수 있었어도
자애로운 수령님의 영상 우리를 때면
뜨거운 은정에 포근히 싸여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막을길 모르옵니다

아, 수령님이시여
수령님께서 계시여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데 이 몸
내 이 길에서
무엇을 가리며 무엇을 주저하리까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여
5천만 조선인민의
가장 경건한 녀원과 함께
저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도 담아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
삼가 축원하옵니다

복무자들

백남룡

저녁무렵.

유철진지배인은 담배를 피워문채 성긴 눈썹이 흘날리는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방금 공장의 월생산을 결속한 뒤여서 마음은 가벼웠다. 그래서인지 눈내리는 한적한 바깥풍경은 지배인의 가슴에 야릇한 감회를 자아냈다.

유철진이 이 기계공장에 부임하여 사업을 인계받은 날도 눈이 내렸었다. 그날 유철진은 새 임무로 무거워지는 마음을 안고 이 창가에 오래도록 서있었던것이다.

(벌써 한달이 지나갔구나…)

그는 오래간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난 일들을 되새겨보았다. 아름다운 생산조직과 수천명 노동자들의 생활, 아래일군들과의 사업, 합숙, 자재, 난방문제… 얼마나 많은, 크고작은 일들이 공장의 호주인 그의 손에서 해결을 기다리고있었던가.

한달을 하루마ტ잡이로 사업에 열중한 그 분명한 날들에 남모르는 고충과 번뇌는 있었어도 지금에 와선 그것이 은근한 긍지와 기쁨의 총화로 되는것이었다.

성에 불린 창유리에 담배연기를 후련히 내뿜고 난 그는 머리를 쓸어넘겼다.

전화기가 찌르릉거렸다. 유철진은 송수화기를 들었다. 뜻밖에도 그가 전에 기사장으로 있던 철제일용품공장의 로임지도원이었다.

《내 지배인이요… 아, 잘 있었소?… 음. 내륙지방에 새로 개발된 광산공무직장말이지… 거기서도 선반공을 보내게 됐소? … 우리 광훈이가?!》

《…작업반들에서 올라온 명단에 광훈이도 있었는데…》

《그래 어떻게 됐소? … 뭐?! 시병원? … 우리 집사람이?! …》

《예, 그래… 광훈이를 명단에 빼려구 하는데…》

《…가만… 후에 다시 좀 보지요.》

유철진은 송수화기를 놓은채 손을 댈줄을 몰랐다. 어쩐지 안해의 그런 경망스러운 처사에 대한 노여움보다도 아들에 대한 대견한 생각이 앞섰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지 두해밖에 안된 아들인데 벌써 선반기능공이 되어 제구실을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에 든든한 기둥이라도 받쳐놓은듯이 흐뭇했다.

창가에 다가선 그는 도시의 교외에 있는 철제일용품공장쪽을 바라보았으니 눈발에 가리운 도시는 안개속처럼 흐릿하였다.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송이들은 벌써 가공직장들의 널찍한 마당을 두텁게 덮어버렸고 철기둥을 받쳐 높이 세운 《모두다 제2차7개년계획 수행에로!》라고 쓴 구호판우에도 흰 띠를 지으며 소복이 내려앉군한다.

(해발 2,000미터가 넘는 고장이라지…)

산협의 언땅을 깎아내려 자동차길을 냈다는 그곳은 령하 30도를 오르내리고 변화한 거리도, 문화회관도, 집처럼 아늑한 잠자리도 아직 마련되어있지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유철진지배인에게는 산악을 뒤흔드는 발파소리, 대형자동차들과 굴착기들, 천막과 통나무집들에서의 어렵고 랑만에 찬 생활, 나라에 첫 광석을 실어보내는 기쁨과 보람… 청춘을 단련하는 대자연의 거창한 용광로가 눈앞에 선히 보였다. 아들의 나이에 전쟁의 포화속에서 의지를 키운 유철진에게는 그곳이 광훈이를 위해 좋은 기회로 생각되었다.

(…끼고있어야 자립성이 약한 응석받이로밖에 될수 없지…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산다는 말두 있지 않는가…)

유철진은 뒤집을 지고 방안을 거닐었다. 그제야 문득 생각나서 책상을 마주앉았다.

며칠전 도에서는 이 기계공장에서 선반기능공 한사람을 압록강변의 내륙지방에 새로 개발된 광산의 공무직장을 꾸리는데 보내라는 지시가 내렸다. 새 7개년계획 수행에서 주타격방향인 채취공업의 한 고리를 추켜세우기 위한 긴박한 조치였다. 공장 로임파에서는 공훈기계제작공인 최성순작업반에서 끌라보내자는 의견이었다.

탁상일지에 시선을 던진 유철진은 《오늘 저녁시간에 최성순반장과 담화》라는 아침에 적은 글줄을 보자 마치 어려운 생산과제를 맡았을 때처럼 진중해지였다. 도시중심의 이 크고 현대적인 공장을 떠나 철도연변에서도 오백리나 떨어진 벽지에 보내는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간단히 쉽게 선발할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그러쥐는때문이었다.

유철진은 몇번의 설비검열때와 가공직장에 나갔

던 인상을 더듬어 선반공들의 얼굴을 그려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부임한지 얼마 안되는 지배인의 안중에는 누구도 뚜렷한 표상을 가지고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는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덧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고있었다. 재빛하늘은 컴컴해왔다. 파도식으로 지붕이 잇달린 담갈색의 공장건물은 짙은 눈발속에 잠겨, 불을 켜 커다란 창문들만이 어렴풋이 보였다. 주물직장 용선로의 고깔모자 밑에서는 창살같은 불길이가 내뿜고있었다. 빨간 불씨들이 눈발속으로 한참씩 날아다녔다.

복도에서 누구인가 발을 탁탁 터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 지배인의 방문을 투박하게 두드렸다.

《예-》

나직이 대답한 유철진은 창가에서 돌아섰다. 최성순반장이었다.

《아, 기다렸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유철진은 저으기 반가와 서둘러 의자를 내놓았다.

《허. 눈이 참 많이 오는군.》

성순반장은 기름묻은 장갑을 벗어 어깨며 옷주머니뚜껑에 붙은 눈을 툭툭 털었다. 찬 쇠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유철진은 저도모르게 마음이 밝아지고 상쾌한 기분에 잠겨들었다. 긴 앞상을 마주하고앉은 유철진은 그에게 담배갑을 내밀었다.

성순반장의 머리에는 아직 채 녹지 않은 눈송이가 붙어있었다. 담배를 끄집어내는 그의 손은 강철쇠가락처럼 마디가 굵고 든든해보였으나 어쩐지 가늘게 떨리는것 같았다.

유철진지배인은 이 유명한 선반공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별로 특징적이랄데가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다. 오십고개를 훨씬 넘은 사람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희스희스한 머리는 모자를 썼던 자리 때문인지, 총이 서서인지 양쪽으로 정히 넘어가지 못했으나 탄력있는 주름살이 박힌 넓은 얼굴과는 잘 어울리었다. 담배를 빨며 앞상우의 한곳만 응시하는 그의 눈은 젊은이들처럼 몹시 정채가 돌았다. 그 눈빛과 든든한 어깨와 힘줄이 불거진 팔에서는 사십대 장년의 혈기가 넘치는듯 싶었다.

유철진은 이따금 가공직장에 들릴 때면 기대공 청년들이 성순반장을 《공훈선반공아바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던 일이 생각났다. 그것은 선반공인 자기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벌써 이 공장에서 선반을 돌린 반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일것이다. 기사장의 말처럼 성순반장은 이 기계공장의 산력사였다. 유철진은 지난번 설비검열 때 이 《공훈

선반공》의 티끌 하나 없이 알뜰하게 정리된 공구함을 본 일이 있었다. 공구함은 생산되는 제품과 함께 그 기대공의 얼굴이며 량심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성순반장의 공구함에는 각종 규격의 공구와 기구들이 윤기도는 강철빛을 띠고 자기를 썰달라는듯이 정연하게 놓여있었다. 반원들의 공구함들도 그랬다. 유철진은 공장참모회의에서 긴급가공품이나 어려운 절삭품이 제기될 때면 기사장이 《지령장동무, 그건 <공훈선반작업반>에 맡기오.》하는것을 여러번 들었다.

바로 그런 기둥이 있는 작업반에서 기능공 한사람을 골라보내려는 로임과의 의견이 지배인에게는 공정이 갔다.

《반장동무는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유철진은 어서 이렇게 묻고싶었지만 성순반장의 심중한 기색을 보자 채털이만 당겨놓고는 잠자코 있었다. 두줄기 담배연기가 사람문제를 두고 선풍말하기 저어하는 그들의 심중을 비추거나 하듯이 꼬리를 물고 천정으로 퍼져갔다.

유철진은 담배를 끼워든 성순반장의 손가락이 아까처럼 가늘게 떨리는것을 눈여겨보았다.

(선반을 오래 해서 그러는 모양이구나...)

선반일이 사람의 강한 팔힘과 손아귀힘을 요구한다는것을 잘 아는 그는 성순반장을 인젠 나이로 보아서도 선반을 그만두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작업반에서 오래 일한 동무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른 직장들에 기능공으로 뽑혀가구, 지금은 스무살안팎의 젊은 녀석들뿐이지요.》

《한창나이 청년들이니 도시를 떠나 머릴 외판 고장에다 보금자리를 틀라면 섭섭해할겁니다.》

《글쎄... 아마 그런 녀석들두 있겠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유철진은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보낼만한 청년이 있습니까?》

《지배인동무, 내가 가는게 어떻습니까?》

《...?!》

앞상에서 몸을 뻗 유철진은 한참이나 성순반장을 놀랍게 쳐다보기만 하였다.

《반장동무... 꽤 롱이 세군요.》

《진담이우다.》

성순반장의 붓끝같은 눈썹꼬리가 꿈틀거리었다.

유철진은 생각에 잠겼다. 작업반장은 반원들의 어머니나 다름없다. 사회생활의 세로인 작업반을 가정처럼 단란히 꾸리고 반원들과 어려움도 기쁨도 나누며 그들에게 기능을 배워주고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반장이다. 낡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그들을 내놓기란 자식을 떼놓는 어머니의 심정에 못하지 않다는것을 유철진은 잘 알고있었다. 성순반장이 그래서 자기가 나선것이리라...

그러나 유철진은 랭정히 실무적으로 말마디에 그루를 박았다.

《그런 결심을 듣자고 반장동무를 찾은건 아닙시다. 광산의 전망은 젊고 기능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

지배인의 얼굴에서 모든것을 읽었는지 성순반장은 눈시울을 내리칸채 말이 없었다. 노여움과 서글픔이 뒤섞인 표정이였다. 그의 손에 끼인 담배는 길다란 재를 그냥 달고있었다.

이윽고 성순반장을 담배꽂초를 재털이에 비비고 나서 말했다.

《지배인동무, 그럼 우리 작업반에서 명호를 보내기루 합시다.》

《명호요?...》

《예. 그 녀석이 내 견습공이였대서 자랑하는건 아니지만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구 삼년째 선반을 해오는데... 작업반에서 그래두 그 애가 제발루 걸어간지 그중 오랩지요.》

성순반장의 얼굴에는 거절당할가봐선지 초조한 빛이 어리였다.

(명호라...)

부르기 좋고 흔한 이름이 돼서인지 귀에 익었다. 그러나 어데서 들었던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성이 뭐니까?》

《최명호지요...》

그제야 유철진은 얼마전에 공장정문속보판에 대문짝같은 글씨로 나붙었던 선반공 최명호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고속도 총형바이트》를 창안하여 크랑크축가공에서 대혁신을 했다는 속보의 주인공이였다. 웬만큼 기능이 없이는 창안을 하기 어렵다는것을 잘 아는 지배인은 그 청년에게 벌써부터 마음이 끌렸다.

《이제 만나봤으면 좋겠군요.》

명호가 대학 1학년 통신등교수업을 가서 며칠있으면 돌아온다는 성순반장의 말에 유철진은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청년이 반대하지 않을가요?》

《글쎄...그 앤 갈거웨다. 보내야지요. 기능이 어지간하구 끝끝한 녀석이니 광산공무직장에 가면 확률 단단히 할겁니다.》

성순반장의 말에는 보낼 청년에 대한 믿음과 확

신이 느껴졌다.

이때 탁상우의 전화기가 바쁘다는듯 연신 찌릉거렸다.

《그럼, 반장동무 결심대로 하도록 합시다.》

유철진지배인은 이렇게 담화의 끝을 맺었으나 머리속에는 그 청년을 한번 만나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남았다.

성순반장은 만족한 표정을 지은채 모자를 쥐고 일어섰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약간 구부정하면서 바위같이 든든한 어깨와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늘어뜨린 한쪽팔을 이윽히 지켜보던 유철진은 송수화기를 들었다.

《...후방과장동무요? ... 물고기를 실어왔다? ... 수고했구만. 수고했소...그런데...뭐요?...래일부터?... 안되오. 과장동무. 시간이 없다고 그래선 안되오. 좀 늦더라도 오늘 로동자동무들한테 꼭 공급해야 하오...》

그가 송수화기를 미처 놓기전에 또 다른 전화기가 울었다. 송수화기를 집어 들고 귀를 기울이던 유철진은 갑자기 이마살을 찌프렸다. 안해의 목소리가 울려왔던것이다.

《당신이에요요? ... 난 공장접수실에 와있어요...》

《왜 그러오? 응?!... 분주스레 왔다갔다 하면서 말이요.》

《호호, 참 당신두... 알고계시는 모양이군요.》

《알구모르구 어쨌든 당신 처사가 글렀소...》

《난... 그 애 어머니예요.》

《.....》

《여보세요. 성내진 말아요... 좀 토론할 일이 생겨서 왔어요... 기다리겠어요.》

《.....》

눈이 내린 도시의 밤은 차고 신선하였다. 아빠트 창문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길에 깔린 희고 깨끗한 눈에 뚜렷한 빛발을 던져주었다. 가로등열, 방울나무아지들이 늘어진 밑으로 퇴근길에 오른 로동자들이 걷고있었다.

먼저 지나간 차바퀴자리들이 깊숙한 눈길로 보라빛의 지배인승용차가 천천히 미끄러져갔다. 유철진지배인은 안해와 함께 승용차를 먼저 보내고나서 길을 걸기 시작하였다.

오랜 의사직업에 습관된 안해의 속삭이듯 정겨운 목소리는 유철진의 가슴속에서 가늘고 예리한 금선을 울렸다.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둔 유철진에게 있어 아들 광훈이의 장래문제는 관심밖의 일이 아니였다. 자식을 둔 모든 부모들의 심정과 같이 유철진이도 아

들을 몹시 사랑했고 그래서 귀하게 자라왔다. 중학 시절에 아들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여 수학경연대회에도 자주 뽑혀나갔다. 재치있게 탁구를 쳤고 학교예술소무대에서 단소를 훌륭히 불어 다른 학부형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다만 부모로서 아쉬운 점은 아들의 체질이 좀 약한 것이었다. 의사인 안해의 섬세한 노력도 크게 열매를 보지는 못하였다. 해가 지나 어느덧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그 시절, 그 나이면 누구나 온 세상의 모든것을 다 해보고싶도록 무턱대고 꿈이 많고 포부가 큰 것이다. 유철진은 아들의 장래에 갈래지어 뻗은 궤도우에서 첫 사회생활의 전철기를 어느 방향으로 제껴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많았다. 안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체질상 봐도 그렇고 안전하며 사람들의 신망이 있는 의학부문에 보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철진은 안해의 절절한 소망을 일시 눌러버렸다. 로동으로 잔뼈가 굵은 그는 아들을 먼저 로동계급속에서 단련시키고싶었다. 아들의 희망도 그랬다. 그리하여 광훈이는 철제일용품공장의 선반공으로 되었다. 그것이 바로 두해전 일이었다...

지금 안해는 광훈이를 보건간부학교에 보내자고 한다. 선반공으로부터 인간생명의 기사!... 사랑과 행복만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든지 택할수 있고 얼마든지 실현될수 있는 길이었다.

아들의 장래를 다른 궤도로 옮겨줄 전철기를 눈앞에 둔 유철진의 마음은 자못 복잡하였다.

(어디로 보낼 것인가? 준의양성반으로? ...그러면 광산공무직장은?...)

유철진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다.

어느덧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었다. 바람이 부는지 나무아지들에서 눈가루가 흩날렸다. 가로등빛에 날리는 그 눈가루가 들어오기라도 하듯 안해는 털이 부드러운 회색수건을 외투깃우로 당기며 말을 이었다.

《...이번 기를 놓치면 또 몇해를 넘겨야 해요. 림상은 젊어서 촉감이 빠를 때 배워야 하는거예요. 난 당신이 광훈이를 단련시키고 보자던 말을 잊지 않고있어요. 인젠 그랜 한다하는 선반공이 됐어요. 몸 두 퍽 나아졌구... 정말이지 그만하면 당신의 의도대로 광훈이가 자랐어요.》

유철진은 여전히 말없이 걸기만 하였으나 마음은 점점 더 난감해지었다. 이윽고 그는 자신에게라도 하듯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광훈이를 준의양성반에 보내는 문제는 당분간 좀 미루지요.》

《참, 당신두... 무얼 그리 생각해요. 인젠 지배인이면서...》

《허허. 지배인이 뭐 특별한 사람이요.》

유철진은 허겁게 웃어버렸다.

한동안 그들은 말이 없었다. 이윽고 안해는 남편의 침묵을 긍정으로 리해했는지 나직이 당부하였다. 《며칠어간에 꼭 짬을 내어 광훈이네 지배인을 만나 토론하세요.》

안해의 말은 간절했으니 유철진지배인은 바빠 걷고있는 사람들의 뒤모습에만 눈길을 주고있었다.

문득 그들속에서 낯익은 사람을 알아보았다. 구부정한 잔등, 넓고 듬직한 어깨... 성순반장이었다. 그는 옷가장자리가 둥그런 가방은 옆구리에 낀채 기운차게 걷고있었다.

유철진은 성순반장이 보내자던 명호라는 청년을 생각했다. 그는 자기 아들과 비슷한 나이일 그 청년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공장정문속보판의 커다란 글자만 안겨왔고 그 속에서 명호가 아니라 광훈이의 얼굴이 방불히 떠오르기만 했다.

유철진은 안해의 다심한 권고에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의 그늘이 강렬히 느껴지었다. 그러나 마치 무슨 파오라도 범한것처럼 마음속이 불안하고 깨름하였다.

(그래... 이견 명호의 작업반장과 마주앉아 결정 지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그 청년을 우선 만나 보자. 그의 부모도...)며칠이 지났다.

최명호가 저녁차에 오는길로 직장에 작업하러 나왔다는 전화를 받은 유철진지배인은 은근히 마음이 씩였다. 기대결에서 명호를 만나보고싶었다. 그는 작업복을 걸치고 가공현장에 내려갔다.

금방 지게차를 물고온 얼굴이 갈숨한 처녀가 소재를 나르고있었다. 지배인이 팔을 걷고 소재를 옮기자 처녀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유철진은 그러는 처녀에게 던지시 웃어보이며 어느 청년이 최명호인가고 물었다. 처녀는 명호가 조금전에 반장과 같이 작업반휴계실쪽에 갔다고 알려주었다.

가공직장 한쪽 아늑한곳에 치우쳐있는 아담한 작업반휴계실은 사람이 없는듯 조용하였다. 그러나 유철진이 문을 열려고 할 때였다.

《뭐?... 선반은 젊어서 한때라구?! ...그래 못가겠단말이냐?!》

성순반장의 목소리였다.

출입문유리로는 방안이 잘 들여다보였다. 부상화 나무 화문이 놓인 원탁옆에 팔굽을 짚고앉은 성순반장과 그 앞에 엇비스듬히 선 청년의 얼굴이 보였다. 중키에 어깨가 짙 벌어진, 첫눈에도 만만치 않

아 보이는 청년이었다. 잘 길들이지 못해 이마한쪽으로 흘러내린 머리는 청년의 나이를 짐작케 하였다.

《난… 못가겠다는게 아니구 다른 공장에 갈려고 그래요.》

《어데루 가겠단말이나?》

《전자관공장에 가겠어요.》

《거긴 왜?》

《지금 과학계에선 전자공학이 전도유망합니다. 선반공으루만 있으면 기술두 제한되구… 더 발전하지두…》

《뭇라구?!… 에-익!》

원탁을 치는 소리에 유리창이 드르륵거렸다.

휴계실안은 오래동안 잠잠했다. 청년은 금붕어가 오락가락하는 어항만 지켜볼뿐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성순반장은 피로운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는 손으로 이마와 관자노리부분을 천천히 문졌다.

《명호야, 난 너를 처음 선반앞에 세울 때 몹시 기뻐했다. 뭔가 내가 다하지 못한것을 네가 할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넌 선반을 다른 부문에 넘어갈 징검다리로 생각했었구나…》

성순반장의 음성은 누그러졌으나 어텐가 허전하고 침통하게 들렸다.

유철진지배인은 휴계실문을 등지고 돌아섰지만 걸음을 뻔수는 없었다. 청년의 지향에 대한 공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있었던것이다. 유철진은 창창한 미래에로 희망을 새롭게 꽃피우려는 명호의 열망을 누를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자기는 성순반장과 같이 명호의 푸른 꿈에 나래를 달아주고 밀어주어야 할것이었다. 명호의 부모도 아들의 그런 장래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있을것인가… 유철진은 성순반장을 설복할 결심이었다.

휴계실안에서는 성순반장의 웅글은 기침소리가 났다.

《아버지, 난 광산공무직장에 가기 싫어서 그러지는 않아요.》

《아버지라니??… 설마?》

유철진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쪼프렸던 두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심장은 벌써 쿵쿵거렸다.

《명호야… 넌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참된 값을 잘못 재는것 같다… 만약에 노동자가 어떤 과학자루 되었다면 그건 발전한게다. 그러구 노동자가 직장장으루 되구, 지배인으로 되었다면 그것도 발전한게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그만큼 더 재능이 필요한 자리에서, 책임적인 위치에서 복무할 능력과 자

질을 가진데 대한 당의 신임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네 말처럼 선반공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단조로운 초소에서 한뼉 일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

《삼년전에 넌 선반견습을 받으면서 내가 다른 기능공들처럼 인물대손잡이를 바른손으로 쥐지 않는것을 보고 이상하여 물은적이 있지… 난 습관이라구 했다. 그러나 너 바른손으로 쥐도록 배웠다. 그것이 편리하고 옳기때문이지…》

몇번이고 성냥을 그어대는 소리가 났다.

성순반장은 무언가 추억하는지 애꿎게 담배만 태우더니 조용히 말을 잇는다.

《너도 좀 알겠지만 해방전에는 이 공장자리에 <노구찌>회사의 철공소가 있었다. 난 열다섯살부터 그 안에서 키가 썩중한 구식<하늘소선반>을 돌리는 왜놈기술자들의 심부름군노릇을 했다…

천정이 낮은 철공소안이 몹시 무덥던 어느날이었다. 구마끼라는 왜놈이 당꼬바지주머니에 손을 지른채 휘파람을 불며 오더니 쇠팅통을 끌어내는 나를 보고 인물대에 소재를 물리라는것이였다. 원래 그놈들은 우리가 선반을 알가봐서 곁에 오지두 못하게 했구, 일이 끝나면 풍천을 썩워놓곤했지. 난 소재를 끼우고나서 인물대돌리개를 틀어쥐고 돌리기 시작했다. 이때 그 흉칙한놈이 스위치를 넣는것을 난 몰랐다. 그놈은 내가 소재를 알맞추 물리지 못하는것을 보구 고의적으로 그랬지. 웅!-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난 눈앞이 아찔했다. 인물대를 한팔에 안구 몸이 태질하듯 넘어간것이다… 내가 정신을 차린것은 이틀후였다. 천만다행으로 몸은 무사했지만 팔힘줄을 다쳤다. 그때부터 난 바른손보다 왼손동작이 빠르게 되었지…》

《?!…》

흑-하고 느끼는 소리가 났다.

유철진지배인은 며칠전 성순반장과 마주앉았을 때 담배를 끼워든 그의 손가락이 이따금 가늘게 떨리던것을 상기했다. 문을 열고 나갈 때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보이던 팔도… 가슴이 서늘해났다.

(그랬었구나! … 그런 팔로 선반을 해오다니…)

유철진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긴장하여 서있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해방이 되자 난 선반공이 되었다. 그래 지금까지 서른해가 넘도록 해오느라니 어떤 땐 힘들기두 하구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허지만 물려서지는 않았다. 일본놈들밑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천대받던 이름없는 노동자였던 내가 이 공장의 주인

이 되어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선반 하나 돌리는 게 무슨 큰일이겠나... 솔직히 말해 난 일생에 빛이 나게 해놓은 일이란 별루 없다. 내 경력은 보잘것없다. 리력서에 써두 한줄두 못체운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분에 넘치게두 공훈기계제작 공칭호를 주시었구나...

명호야,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노동자건 과학자건 무슨 일군이건 관계없이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얼마만큼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사는가에 참된 값을 재는 진짜 척도가 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편지에는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젊음을 바칠것을 호소했다. 당에서 근심하는 어려운 부문에 자진 어깨를 들이미는 사람이 삶의 가치를 깊이 아는 사람이다.》

청년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채 세찬 격정으로 가슴을 들먹이고있었다.

《명호야, 작업반에 네포래 청년들이 많다. 그렇지만 난 예비로서 너를 꼭 보내구싶구나... 가거라, 너도 인제는 사회의 지붕밑에 고이 앉아 고스란히 행복만 누리던 시절은 지나갔다. 성실히 땀을 흘려 보답할 때가 왔다. 일생을말이다. 그러니 편안하게 살려고는 생각지 말어라... 나나 너는 언제나 이 고마운 사회를 떠받드는 주춧돌로 살아야 한다.》

《아버지!!...》

명호의 흐느낌소리는 유철진의 가슴을 아프게 굽어내렸다.

(명호가 진정 성순반장의 아들이었다말인가! ...)

드센 물체에 충격을 받은것처럼 머리속이 뒹뒹거렸다. 그러나 유철진은 이 엄연한 사실을 더 가늠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작업반 휴계실을 떠나 공장정문을 나섰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

세찬 눈보라가 눈을 못뜨게 맞받아왔다. 얼어붙은 눈길은 몹시도 미끄러웠다. 바람은 줄곧 우-우-소리를 내며 눈발을 안고 몰려와서는 유철진의 품에서 무언가 날려버릴것이 있는듯 외투자락을 사정없이 들추었다. 뿌연 가로등열으로 늘어선 방울나무 우듬지들이 몸부림치고 전선줄이 신음소리를 냈다. 눈바람은 마치 땅우의 불필요하고 속된 모든것을 일구고 쓸어버리려는듯 기승스레 불어쳤다.

지배인의 승용차가 눈보라속으로 길다란 불줄기를 내저으며 따라왔다.

유철진은 운전사쪽을 향해 아무렇게나 손을 흔들어버리고는 그냥 내쳐 걸었다. 발밑에서는 판아진 눈이 그의 피로운 마음처럼 뚝뚝뚝 소리를 냈다. 걸음마다 지나온 잊을수 없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추억되었다.

고중모자를 군모로 바꿔쓰고 총창을 거머쥐었던 전화의 나날... 조국의 한치의 땅을 위해 병사들과 함께 피를 흘리던 준엄한 그날들이 어제런듯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전승의 축로 오르던 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열병식장에서 하늘땅을 진감하며 흐르는 장엄한 대오속에는 유철진의 구리빛 얼굴도 번쩍였다. 포화에 그슬은 군복을 입은채 그는 복구건설의 삽을 틀어쥐었다... 세월은 흘렀다. 유철진은 대학을 나왔고 여러곳에서 기술일군으로 사업했다. 큰 공장의 중요한 직장사업을 책임졌었고 기사장을 거쳐 지배인으로 자랐다. 어느덧 유철진의 머리에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유철진은 생애의 그 벽찬 전환점들에서 언제나 당의 두터운 신임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다. 당앞에서 한점의 티도 없는 깨끗한 량심으로 일생을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마음이 쓰렸다. 과연 이리도 가슴을 저며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문득 눈보라치는 아득히 멀리에서 아들을 놓고 준절히 타이르던 성순반장의 다른 목소리가 그의 심장의 흉벽을 세차게 두드렸다.

《...사람들은 당앞에서 10년, 20년, 30년을 자기의 재능과 정력을 바쳐 충실해온다. 그러나 결코 그것만으로는 그의 충성심의 깊이를 다 말할수는 없는것이다. 재능과 열정과 힘은 아끼지 않고 바쳐오면서 그 이상의것을 바치기에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철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보라는 여전히 우-우-소리를 내며 불었고 가슴속에서 자책의 파도는 끝없이 설레이기만 한다.

(...성순반장은 일생을 선반만 해온 사람이다. 그는 오늘도 자기의 성실하고 평범한 경력을 여전히 보석처럼 빛내이고있다. 어떠한 공명도 안일도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복무해온 그런 길로 서슴없이 아들을 보낸다...)

그런데 나는 나의 아들을 성순반장처럼 조국과 시대의 장래를 위한 숭고한 정신에서 보내려 했던가!...

유철진은 외투주머니에 손을 지른채 걷고 또 걸었다. 그는 자기가 과거에도, 오늘에도 누구보다도 당의 신임과 배려를 많이 받아왔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또 새겼다. 눈굽이 뜨거워나고 목이 메었다. 아득히 흘러간 유년시절, 왜놈기관구위에서 석탄채를 헤집던 유철진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텔레비존화면이 흐르는 불빛 찬란한 문화주택, 웃음꽃 피

는 가정, 슬픔과 불행이란 의미도 모르는 아들딸들...

(그렇다! 난 누구보다도 당에 더 충실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사이 아래사람들만 지도하는데 습관되었는가... 어찌하여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나 자신과 가정적인 모든것을 융합시킬수 없었던말인가... 지배인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들도 그 덕에 편안한 자리에 가겠는가! 아니다. 결코 한순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유철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보라속에서 희미한 두갈래길이 나졌다. 이쪽은 집으로 가는 길이고 저쪽으로 가면 아들이 다니는 철제일용품공장이 있다.

유철진은 아침에 안해가 오늘은 꼭 광훈이네 지배인을 만나보라고 신신당부하던것을 생각하자 아픔을 당한 사람처럼 이마살을 찌프렸다.

얼마후 유철진지배인은 철제일용품공장을 향해 외투자락을 펄럭이며 걸어갔다.

눈보라는 잦을줄 몰랐다.

출발을 앞둔 시외버스정류소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북방의 겨울날치고 보기도문 잠풍하고 따뜻한 아침이었다. 차고 깨כות 대기는 유리알처럼 맑았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눈이 사물거렸다. 나무가지에서 솔새들이 날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머리우에 눈가루가 반짝거리며 흩어졌다.

명호와 악수하고나서 년장자답게 한쪽에 물러선 유철진지배인은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까부터 성순 반장이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아마 좀 늦어지는 모양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몇달동안 어디로 이동작업에 보내는것도 아닌데 늦어질 무슨 이유가 있느라!...

검은 털모자를 쓰고 깃에 털을 댄 솜옷을 탄탄히 입은 명호는 작업반청년들의 부러운 시선속에 둘러싸여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리별의 서운한 감정은 찾아볼수 없었다. 휴양을 떠나는 청년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어딘가 들뜬듯한 표정이였다.

유철진지배인은 버스안에 이미 자리잡고 앉은 자기 아들 광훈이의 얼굴에서도 그런 혼연한 기색을 보자 더없이 기뻐다.

광훈이의 곁에는 나온지 퍼그나 오랜 안해가 여직껏 앉아있었다. 인젠 별로 할말도 없어선지 아들을 그저 쳐다보기만 하였다.

너무도 뜻밖에도, 아들의 장래를 결정지은 남편앞에서 안해는 어머니의 권리로 열렬히 항변도 하였고 지난 일을 애로한 심정으로 상기시키기도 하였

으며 하많은 중에 유독 광훈이가 그런 길을 갈 필요가 어디 있는가고 《리론》도 내놓았었다...

그러나 스무해가 넘도록 함께 살아오는 남편에게서 한번도 볼수 없었던 근엄하고 결연한 태도를 보자 긴 속눈썹을 내리깔며 한숨을 쉬었다. 그날밤 유철진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행복과 의무에 대한 심각하고 절절한 이야기를 하여 끝내는 안해의 얼굴에서 눈물을 보고야말았었다.

유철진지배인은 지금도 안해가 그런 좁고 다심한 모성애를 극복하고 시대앞에서 가정적울타리를 밀어제치며 나서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얼마후 안해는 유철진의 민망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았음인지 버스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이 많은데서 침울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회색수건을 얼굴앞으로 당겨쓰고난 안해는 유철진의 곁에 다소곳하니 섰다.

동무들과 인사를 마친 명호는 열려진 버스문옆에 서있는 풍채좋은 오십대의 녀인앞에 다가섰다. 그 녀인의 두눈에는 축축한 광택이 어려있는듯하였다.

《어머니...》

명호의 나직한 부름이였다.

그 녀인은 한참이나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솜옷의 차끄를 마저 달아주었다.

《명호야, 아버지는 나오지 못한다. 출근했다.》

《?!...》

유철진은 무엇인가에 얼어맞은것처럼 어정쩡해 짐을 느끼였다.

(출근하다니?! ...바래우고도 시간이 있지 않는가!)

유철진은 조각처럼 까딱않고 서있었다.

그 녀인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작업반에서 오늘 가공할 주물소재가 잊저녁에 내려오지 못했다고 걱정이더라.》

명호는 아무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너머 도시쪽의 큰길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서운하니?...》

《참, 어머니두, 서운하지 않구요. 난 아버지하구 년간계획을 누가 먼저 끝내는가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자식두!... 그러려무나. 내 말하지 않으리... 명호야, 어제밤 네가 잘 때 아버지는 짧은 시절에 쓰던 선반공구들을 트렁크에 넣었다.》

《그건 아버지가 귀중히 여기던건데...》

울먹이는 명호의 순진한 얼굴에는 고요히 미소가 피여오르고있었다.

《일을 잘해라.》

하고 아들의 등을 뺄스쪽으로 밀어세우는 녀인의 두눈에도 티없이 맑고 행복한 미소가 넘쳐흘렀다.

뺄스가 기운차게 부름거렸다.

유철진은 혹시나 하여 도시로 통한 큰길을 초조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성순반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반한 눈길에는 기대를 가져볼 비슷한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수 없었다. 그래도 그는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드디어 뺄스는 유철진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실오리같은 미련을 끊어버리며 요란스레 경적을 울렸다.

뺄스는 흰 눈길우에 생생한 바퀴자국과 푸른 연기를 남기며 멀어져갔다.

유철진의 옆에 조용히 서있던 안해는 한숨쉬인 목소리로 가만히 말하였다.

《저 집에 두 아들이 하나뿐이라지요?》

안해가 하는 말의 속대사를 짐작한 유철진지배인은 이마살을 찌프렸지만 숨을 깊이 킁고나서 나직이 대답하였다.

《외아들이요... 딸두 없소, 참, 훌륭한 가정이지

...》

유철진은 안해의 얼굴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흰눈을 우장처럼 들썩 가로수들이 들어선 길로 멀어져가는 뺄스에만 쏠려있었다.

뺄스는 산굽이를 돌더니 다시금 멀리 흰 산의 원경속에서 아물거린다. 그것마저도 연기같은 안개발속에 아주 들어가버렸으나 유철진지배인은 사색에 잠긴 근엄한 얼굴로 오래도록 서있었다.

행복이 넘치는 시대라고 단 한순간이라도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양탄자를 깔 평탄한 길로 보내서는 안된다. 우리 시대에 쌓아올린 수억만재부의 탑들을 후대들이 높이 빛내이도록 언제나 창조와 투쟁의 어려운 길을 걷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또 자기의 후대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충성으로 떠받드는 그런 빛나는 길로 걷게 할것이 아닌가!

그렇다! 평범한 로동자건, 어떤 위치의 일꾼이건, 무슨 일을 하건, 귀한 자식을 둔 모든 부모들은 다같이 조국과 시대의 장래를 책임진 이름없는 복무자로 살아야 한다.

다듬은 말

본래말

기반
기존
기한
기일
개간
개기일식
개기월식
개답
개방
개점시간
개찰
개찰하다
개폐문

다듬은 말

명예, 굴레
이미 있는, 있는
굶주림과 추위
날자, 정한 날자
땅일구기
웅근해가림
웅근달가림
논풀이
열기
여는 시간
표찍기
표를 찍다, 표찍다...
여달이문

본래말

개화
개화기
개입하다
~개월
객실
객토
게재하다
계산척
과수
과반수
과부하
과신하다

다듬은 말

꽃피기
꽃핀때
끼어들다...
~달
손님방
깔이흙
심다, 내다...
셈자
우두머리
절반너머, 절반나마...
겨운집
지내 밋다, 지나치
게 밋다...

탄부영웅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로력영웅 김갑출동무에 대한 이야기-

책상앞에서의 그는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소리도 잔잔하였다. 선이 가는 얼굴은 어찌 보면 서재의 학자를 연상시켰다. 눈은 내리깔고있었다.

그럴 때면 사색하는 인간, 탐구하는 인간의 초상처럼 보였다.

《중대 모이시오.》

갱앞에서는 또 다른 그가 있었다.

대원들을 살피는 그의 눈동자에는 끝수 없는 정열과 패기가 빛발쳤다. 목소리도 씩씩하였다.

참호에서 《돌격준비!》 구령은 웨치는 군사지휘관들이 이리했다...

《무슨 얘기를 하라는것인지...》

취재수첩을 펼친 나의 앞에서 영웅은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담배를 두대씩 피웠으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만약 이때에 몸매 다부진 두명의 탄부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침묵은 피로를 정도로 오겠을것이다.

《중대장동지, 떠나겠습니다.》

김갑출영웅을 쳐다보는 두 탄부의 눈길에는 선생의 결을 떠나는 학생들에게서 볼수 있는 연연한 애정과 서운함의 빛이 어롱거렸다.

《××갱으로 가는 동무들입니다. 26번째로 가는 <기술고문>들이지요.》

김갑출영웅이 그들을 소개했다.

갱들이 늘어나는데 따라 채탄기를 설치하면 거기의 초급지휘성원은 대체로 김갑출영웅의 중대에서 많이 뽑힌다는것이다.

이때 그의 얼굴엔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긍지, 환희... 눈에서는 불꽃이 튀겨나는것 같았다.

영웅은 나에게 잠간 기다려달라고 미안쩍게 말하고는 두 탄부와 무릎을 대고 마주앉았다.

처음에는 《손님》이 있는것을 고려함인지 자그마한 소리로 인계에서 다른것이 없었는가. 식당에서 무얼 대접하든가... 등 범상한 이야기를 펼치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절절한 조언과 교훈의 말들이 쏟아져나왔다. 그 어조에는 다심한 걱정과 고무와 축원의 음향이 깃들어있었다.

중대장은 나를 잊었고 사업에 들어선것이다.

《...일이 안될 때도 있지. 그럴 때일수록 주저하지 말아야 되네.

한발자국 후퇴는 두발자국 후퇴를 가져오구 두발자국 뒤걸음질한 사람은 백걸음을 후퇴하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땐... 머리가 백동강이 돼도 드팀없어야 되네. 그러느라면 마음고생이 크네.

그러나 이런 맘고생은 고생이 아니라네...

...하긴 지금이야 첫 채탄기 때와는 다르지...》

입을 강문 영웅은 한동안 어둠서린 창밖을 묵묵히 응시했다.

꼭질이 많았다는 첫 채탄기의 도입력사를 추억하는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에 회미할수 있지만 영웅은 그때를 잊을수 없다.

× ×

그는 첫 채탄기운전공이었다.

탄광에 채탄기가 처음으로 들어오던 날, 그는 하루종일 채탄기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저녁밥팩을 들고 그를 찾아다니던 안해는 달이 빼죽이 머리를 솟구친무렵에야 채탄기에 붙어서 쇠불이들을 쓸어만지고 닦고 하는 남편을 발견하였다.

《당신은 여기서 뭘하세요. 기계가 무슨 얘기가 되는것 같군요.》

《얘기에 비하겠소. 하긴 이제 첫걸음마를 뎌다는 데서는 애기지.》

갑출은 이렇게 말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가 첫걸음마를 뎌 때 부모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이리 온! ...》

《이리 온! ...》

손벽을 쳐가며 아이를 지켜보다가 아장아장 그 걸음이 자기 품에까지 와닿게 되었을 때 부모들은 환성을 올린다. 그러나 채 오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

《잘될가요?》

안해는 근심스럽게 물었다.

이 순간 갑출은 이제 자기는 화선에 진출하는 병사로 되여야 한다는 느낌을 얻었다.

《잘돼야지. 탄부들은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관철하는 일이 아니요.》

갑출은 일이 순탄지 않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럴수록 마음의 준비를 튼튼히 하여야 할것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첫째로, 당정책을 옹호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것처럼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참된 혁명전사로 살것을 갑출은 이 시각 다시금 굳게 맹세다졌다.

채탄기를 설치하는 날, 갱은 명절같았다.

탄부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위생복차림의 식모들까지 떨쳐나 탄개기에서 사람의 손을 대신하는 위력한 기계를 황홀한 눈길로 쳐다보았고 그 기계의 운전공으로 될 김갑출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었다. 갑출이와 함께 채탄기를 보게 된 박동무는 흥분한 나머지 얼굴이 벌겋게 피어올랐다.

강물처럼 쏟아질 탄더미를 그리며 사람들은 일주일 넘게 예견한 채탄기설치를 불과 24시간만에 끝냈다.

드디어 갑출은 첫 채탄기의 첫 시운전을 했다. 그런데 채탄기는 돌아갔으나 탄은 깎이지 않았고 그나마 채탄기도 멎고말았다. 커다란 기대와 믿음을 안고 막장에 모였던 사람들속에서 실망에 찬 속삭임들이 튀어나왔고 미구하여 그것은 합창으로 되고 말았다.

두번 세번... 역시 같았다. 근기있게 시운전을 돌보던 갱장은 탄벽에 주먹땀을 한번 대고는 밖으로 나가고말았다.

그날저녁 갱장실에는 갱지휘성원들과 기술일군들, 탄광의 오랜 기능공들이 모였다.

방은 덥지 않았건만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았다. 사람들은 가슴답답한 감을 느꼈던것이다. 갑출이도 처음엔 그랬으나 인차 가슴답답한것도 주위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것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움짱 앉았다. 갑출의 온 정신은 머리속에서 움직이는 채탄기에 가있는것이였다.

지배인이 그를 두번씩이나 부르는것도 몰랐다. 누구한테선가 옆구리를 찔리우고서야 일어서야 한다는것을 알았다.

《...갑출동무 생각엔 어떻습니까?》

지배인은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방도를 묻는 것이였다.

갑출은 눈앞에서 얼른거리는 채탄기의 모양을 지우지 못하고 대답했다.

《해야지요.》

《그거야 모르우. 안되는 원인과 해결방도 그것이 뭔가 하는것이 아니요.》

갱장이 지배인보다 한발 앞서 췌기를 쳤다.

방안의 모든 시선이 갑출이에게 쏠렸다.

갑출은 긴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래 생각지 않고 대답했다. 너무나 명백한것이기때문에.

《기계채탄은 당의 방침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야지요.》

그렇다 해서 지금의 저로서 이렇다할 묘안은 없습니다. 하느라면 되지요.》

허를 차는 소리, 가벼운 한숨, 의자 밀치는 소리가 오래오래 울렸다.

신통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 협의회가 끝나자 갱장은 채탄기가 있는 막장으로 가는 갑출이를 불러 세웠다.

《인원은 다 써야 되오?》

탄이 쏟아지지 않는 《시험적작업》에 끝끝한 노력을 《목이》는것이 아까운 갱장이였다.

갑출은 안타깝고 서운하였다.

지금 당장 탄을 못내는것을 생각하면 채탄기에 붙은 로력을 한둘쯤 떼여 다른 채탄에 돌렸으면 좋을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한걸음 후퇴를 의미하는것이였다. 우선 채탄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채탄기를 잊을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새기술도입》에서 하다가 잘 안되면 물러서도 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수 있는것이다.

갑출의 마음을 읽은 갱장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타산을 잘 세워보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 뒤 모습을 바라는 갑출의 가슴은 아팠다. 그러나 아픔에 빠져있을 여가가 없었다.

갑출은 회의나 학습 때에 밖에 나왔을뿐 채탄기가 있는 갱막장에 들어가서 닻새동안이나 나오지 않았다. 밥그릇을 날라온 안해가 하는, 아이들이 보고싶어하는 말도, 나와서 꼭 잘데 대한 당비서의 간곡한 요구도 그를 움직이지 못했다. 석수에 온몸이 젖은채 채탄기와 씨름하였고 드디어 약간 개조한 채탄기를 돌리게 되었다. 이것을 알고 바람같이 나타난 갱장은 채탄기가 움직이긴 하나 탄을 제대로 허물어내지 못하는것을 보고 이마에 깊은 주름살을 지었다. 그런데다가 채탄기는 쏟아져내리는 탄층에 묻히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 기술집단이 오고 《론의》가 붙었다.

왜 안되는가.

이번에는 안되는 원인들에 대한 분석이 대담하게 튀어나왔다.

이곳의 석탄층에는 채탄기가 맞지 않는다는것, 채탄기가 아직 불원만하다는것이였다.

《그러면 할수 없다는것이요?》

지배인이 노염어린 어성으로 묻자 분명 안되다는 결론으로 나가던 론의들이 잠시 휴식을 했다가 방향을 바꾸었다.

《...채탄기를 좀더 합리적으로 완성하고 이런 탄층에서 작업방법이 뚜렷이 선 다음에-》

《그걸 누가 해야 되오?... 어디 개천사람들이 아

니면 순천동무들이...?)

시중 웃으며 이야기를 듣던 당비서가 몹시 격한 음성으로 말했다.

갑출은 이 말을 들으며 얼굴이 훗훗 타올랐다.

그는 더 앉아있을수가 없어 벌떡 일어섰다.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합시다. 어쨌든 기계채탄은 우리 조선의 탄부들중 누군가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가슴속에 넘쳐나는 말은 많았으나 목구멍이 타들며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가 못한 말을 대신이나 하듯 당비서가 가슴이 활 열리는 소리를 했다.

《동무들, 나는 기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것은 기계채탄은 할수 있는 것이며 또 반드시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갑출은 새로운 신념과 용기를 안고 채탄기개조보수에 달라붙었다. 작업방법도 연구하였다. 채탄기에 대한 책이란 책은 다 읽었고 기계에 밝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찾아가 토론을 벌리고 조언을 받았다.

무언가 잡히는것이 있었다.

지금 있는 채탄기의 약점들이 제거된 채탄기머리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명가의 진통기가 닥쳐왔다.

않으나 서나 그는 채탄기만을 생각하였다. 사람들과 만나도 별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말이 없어진 그를 두고 이야기들이 많았다. 계속된 실패로 우울해졌다거니 탄을 못캐여 사람 볼 낫이 없어 그런다거니... 하긴 갑출이네는 몇달째 석탄계획을 못하고있었다.

갑출은 1호결굴을 지나다가 이러루한 말들을 귀결에 들었다. 그와 함께 채탄기개조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던 당비서도 그 말을 들었다.

갑출은 고개를 들수 없었다.

(탄을 못캐니 저런 말을 들어 싸지.)

걸음걸음에 뼈를 허비는 아픔이 뒤따랐다. 그때 당비서가 웃으며 룡말을 했다.

《머리털이 세겠소.》

《비서동지!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갑출은 당비서의 룡담속에 깃든 따뜻한 정을 가슴뜨겁게 안으며 간신히 말했다.

《넘어지겠소.》

당비서는 안전등으로 로반을 비춰주며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했다. 갑출은 비서의 안전등 불빛이 닿는 길로 걸으며 속깊이 맹세를 다졌다.

(넘어지지 않을것이다. 넘어지지 않을것이다!)

그날밤부터 갑출은 설비보수의 동무들과 함께 채탄기개조에 달라붙었다. 오랜 고심끝에 새로운 채

탄기를 만들어 장벽에 설치하였다. 그 채탄기는 시동을 걸자 처음부터 멋지게 탄을 깎았다. 전진속도도 좋았다. 그러나 30미터까지 무사히 나가던 채탄기가 몸을 떨더니 이바퀴를 튕겨버리며 벗어섰다. 튕겨난 이바퀴를 그러안은 갑출은 돌처럼 굳어진채 한동안 자기를 잊고있었다. 누구의 말소리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 정녕 안된단말인가.)

갑출의 번민을 엿본 사람들은 위안할 방도가 없음을 한탄하며 밖으로 나갔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채탄기도입의 첫날부터 밤낮을 가림없이 일한 박동무였다. 그는 눈물이 글썽해 갑출이를 보았다. 갑출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찬찬히 보았다. 불이 켜이고 석수에 버물린 탄가루를 한벌 뒤집어쓰다싶이한 박동무를 보느라니 가슴이 찢어졌다.

《그냥 하겠소?》

통명스럽게 묻는 박동무의 입술은 푸들푸들 떨렸다.

《그러면 어찌겠소.》

그 말에 박동무는 웨치듯 말했다.

《안돼, 이젠 우리도 체면이 있어야지. 벌써 몇달째 탄을 못캐구있다. 사람들이 뻐라는줄 아나? 공밥먹는 사람들이라우 우릴...에익!》

박동무는 주먹을 들어 허공을 내지르고 돌아섰다. 갑출은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가겠으면 가라구.》

박동무는 이 말에 흠칫하였다. 순간 갑출의 목소리는 엄해지었다.

《그러되 당조직에 가서 말하라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할 로동계급의 의지가 없어 물러서노라고-》

그리고 갑출은 비척비척 일어나(그는 자기가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것을 이때야 알았다.)빠져나간 이바퀴를 살펴보았다.

박동무는 나가지 못하고 동발에 머리를 대이고 서있었다. 갑출은 왜서인지 가슴이 찢어지는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를 보았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으며 약해지려는듯한 자신을 다잡으며 입술을 강물었다. 그리고 박동무에게 다가가 그에게도 자기에게도 필요한 말을 하였다.

《박동무, 나도 피로울 때가 많소. 여기서 뛰쳐나와락와락 탄을 캐굴을 때도 있소. 하지만 안되오. 당장은 그것이 마음 편하고 쉬울수 있지만 당적량심앞에서 두고두고 피로울것ियो.

용기를 내자구.

어버이수령님께서 크나큰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계시오.》

갑출의 말은 토막토막 끊어졌으나 불덩이처럼 열을 뿜고있었다.

터질듯한 긴장을 안고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출랑! 출랑! 떨어지는 석수소리마저 들렸다.

갑자기 박동무가 갑출이에게로 육박하듯 한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어글어글 탔다.

《갑출이!》

박동무는 한번 불려놓고는 더는 말하지 않고 이바퀴를 썩- 들어 죽에 갖다맞추기 시작했다.

그를 바라보는 갑출의 눈언저리에는 뜨거운 것이 고였다.

이때 밖에서부터 한동무가 뛰어들어와 채탄기를 들어내게 된다고 말했다.

《뒤투구.》

갑출은 짹짹 놀랐다.

《우에서 기술일꾼들이 내려와 결론까지 했다는 것 같아요.》

갑출은 뒤통수를 한대 맞은듯했다.

좀 있어 채탄기문제로 협의회가 있다면서 갑출이를 호출하는 갱장의 지시가 왔다.

...채탄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협의회장 입구에는 갱장이 줄곧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는 갑출을 보자 헤덕비며 다가왔다.

여느때면 속대사는 어찌했든 《수고했다.》는 인사말로 시간을 끌었겠으나 이때는 단호한 표정으로 《본론》을 꺼냈다.

《동무의 발언에 갱문제가 달렸소.

탄을 캐서 우리가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술한 자금과 로력을 낭비하며 지금 상태로 뭉개는가, 이것이요.》

자기가 썩은 굶으로 말을 하라는 로골적인 요구며 강박이었다.

갑출은 아무 대답도 안하고 회의장에 들어갔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갱장이 실패보고를 했다. 10여톤이 넘는 채탄기를 설치하던 때로부터 실패로 끝난 오늘까지의 과정을 개괄하고 구체적인 사실과 수자로써 이곳의 석탄층에는 채탄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론리정연하게 설명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에 공감했다.

갑출이 역시 그의 말을 들으며 계속 하자고 할 용기를 잃고말았다. 무엇보다 국가의 돈을 엄청나게 썼다는 죄의식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채탄기문제의 결정권을 위임받고 온 중앙의 일꾼은 갱장의 말을 듣고 한참이나 생각을 하다가 유감스러운 기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발파채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것입니

까.》

(발파채탄?!)

갑출은 그 말에 무슨 충격이나 받은듯 우쭐 일었다.

《채탄기운전공으로 말하겠습니다.》

첫마디는 용케 했으나 다음은 속만 끓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때 갱장의 억누르는듯한 시선과 마주쳤다. 그러자 가슴속에서는 산악같은것이 일떠섰다.

《물려설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서면 후대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후대들에게 인력으로 하는 발파채탄을 물려줄수 없습니다.

기계채탄을 못하겠다고 당에 보고드릴 량심들이 있습니까, 안됩니다. 안돼요.》

갑출은 뒤통게야 이런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말해선 안된다는것을 알았으나 쏟아진 물이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그런 속에서 누구의 목소리인가 힘있게 울렸다. 갑출은 다른 소리는 잘 가늠해 듣지 못했으나 채탄기를 계속 해야 한다는 말만은 정확히 들었다.

고마웠다. 저도모르게 눈물이 솟구쳤다. 지어 좀해서 흥분하지 않는 탄광기사장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기계채탄을 해결하자!》고 자기처럼 열을 내어 소리치는것을 들으며 갑출은 일어나 만세라도 웨치꽃은 충동에 휩싸였다. ...

...그로부터 얼마후 갑출이네 채탄기조는 막장으로 부터 밖에까지 사람들의 《목마》를 타고 나왔다. 공장방송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방송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직관원은 종이가 크지 못한것을 한탄했다.

탄광과 갱이 생긴이래 최고의 석탄을 캐냈던것이 다.

× ×

김갑출영웅은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오름인지 가스름히 감쥔 눈길에 불꽃을 날리며 열정어린 목소리로 두 탄부에게 말했다.

《...어려울 때마다 그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며 고무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만고생이 다 봄눈처럼 사그러지고 역세여치네.》

나는 그 말을 부지런히 수첩에 옮겨쓰며 무언가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무엇이 그에게 역세인 의지를 주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영웅으로 되게 했는가.

나는 수첩에 금방 적힌 그의 말을 다시 뇌여본다.

조국과 고향

홍현양

어데 가나 못잇는것은 고향이다.

멀리에 떠나면 그 땅이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워 지는것은 무엇때문일가.

어린 시절의 발자국이 바다가 모래불에 찍히고 푸르른 희망을 실어보내던 파도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기때문일가.

사람마다 가슴속에 고이 간직된 이 불같은 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한 더욱 강해지는 법이다.

태어난 고향은 서로 다를수도 있지만 어머니와 다정한 이웃들이 있는 자기 고향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하나같이 뜨거운것이다.

나는 얼마전 안주지구관광합기업소의 어느 한 탄광에서 인상에 잊혀지지 않는 한 처녀를 만났다.

권양기운전공인 그와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 끌리는데가 없는 보통 처녀로밖에 눈에 띄이지 않았다.

그러나 탄광마 을에서 며칠간 지내면서 그와 자주 만날수 있었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어딘가 인상적인데가 있다는것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것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큰것이였다.

나는 그가 이 탄광마을에서 태어난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레상외로 그의 고향은 물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섬마을이였다.

경치좋고 살기좋은 공장으로 이름난 섬이다.

언젠가는 한번 꼭 가보리라 마음속에 점을 찍어 두었던 그 마을에서 처녀가 왔던것이다.

내가 자기 고향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는 무척 반가워하였다.

《선생은 시인이라고 했지요?》

《아니 난 기자요.》

《우리 고향 꽃섬에 한번 꼭 가보시라요. 참 좋답니다.》

꽃섬에 있는 상암산의 푸른 소나무숲과 굴포만에서 다시마와 미역을 따들이는 양식공처녀들의 노래소리 그리고 자기들과 한시도 떨어질줄 모르던 갈매기에 대해서 바다처럼 끝없이 자랑을 펼쳐놓았다.

해당화 피는 쌍바위도래굴이에 대해서도 자랑속에 빠져놓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어 탄광으로 왔는가고 물었다.

처녀는 검고 시원한 눈으로 나를 한번 의미있게 바라보고는 속삭이듯 귀엽게 입을 떼었다.

《갈매기를 따라 왔지요.》

(갈매기를 따라 오다니?!)

나는 처녀의 말을 들으며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인차 머리에 피땀 떠오르는것은 자기들과 늘 떨어질수 없던 새가 바로 갈매기라고 하였으니 까 이것은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나는 받아들였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짙어둔 총각이 있는 모양이구만.》

나의 이 말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한심하다고 눈을 살짝 흘기는것이였다.

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지만 탄광에는 그와 꽃섬에서 함께 자란 체대군인 김동무가 있었다.

그는 굴진공이였다.

고향의 갈매기-사랑을 따라서 탄광마을에 처녀는 왔으나 그의 가슴속에서는 또 하나 다른 사랑이 꿈틀거리고있었으니 그것은 고향에 대한 못잇을 그리움이였다. 그곳으로 가고싶었다.

상암산, 굴포만의 다정한 벚들, 해당화 피는 쌍바위 도래굴이가 처녀의 마음을 못참게 부르는것이였다.

그러나 처녀가 떠나려고 하는 탄전으로 매일과 같이 체대군인들이 배낭을 메고 찾아들었다. 자그마한 간이역은 그들로 하여 더욱 분비였다.

조국은 새 7개년계획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주타격방향으로 청춘들이 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바다도 좋고 사회주의농촌도 좋고 쇠물이 폭포치는 용해장도 좋았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더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일터는 바로 석탄전선이였다.

새벽에 선전차들이 번개같이 달린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탄부들의 심장속에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들끓는 탄전의 생활이 온몸을 자극할 때마다 처녀는 생각하곤하였다.

자기가 따라온 김동무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피끓는 가슴속에 안고온 체대군인이 아닌가.

마음속에 자리잡고 사라질줄 모르는 고향에 대한 애뜻한 정으로 하여 아직 끓어번지는 탄전에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기는 정말 바다위에 홀로 떠있는 섬과 같았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전진하는 벽찬 시대의 숨결속에 한점의 티로 된다면 그것은 벌써 참된 사랑으로 될수 없다.

처녀는 스스로 이것을 깨달았다.

가장 가까운 김동무도 미처 알지 못하는 심중의 비밀을 자체가 똑바로 보게 되었을 때 두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다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위대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청춘은 어디 가나 아름다와야 한다.

고요한 포구마을에서 바라본 하늘이나 탄광마을에서 쳐다보는 조국의 하늘은 변함없이 맑고 푸르지 않는가.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이 어떻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할수 있으랴.

일터를 옮기고 정든곳을 떠났다고 하여 청춘의 열정이 식어질수는 없는것이다.

처녀는 잃을뻔했던 가장 귀중한것을 석탄을 캐내는 탄전에서 다시 가슴속에 새겨안을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고향의 갈매기가 영원히 보금자리를 튼 천길막장에서 검은금을 실은 탄차들을 권양기로 끌어내면서 날마다 높아지는 석탄산을 볼 때면 꽃섬의 상암산을 가꾸가는 자기를 느끼었다.

속마음속에 앓았던 티를 스스로 닦아내며 흘린 그 눈물이 이처럼 크나큰 보람과 기쁨을 자기에게 가져다주리라고는 처녀도 미처 생각 못하였다.

언젠가 김동무도 처녀와 똑같은 생각을 저탄장을 가리키며 말한적이 있었다.

노을이 지평선 한끝에서 타오르는 저녁이면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석탄을 실은 렬차들이 쉬임없이 달려가는 산골이길을 김동무와 함께 걷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오리떼들이 헤엄치는 탄광목장의 호수는 굴포만처럼 아름다웠다.

해당화 피는 쌍바위 도래굽이를 처녀는 이렇게 절을줄 알았다.

그리하여 탄광마을에는 그가 즐겨부르는 상암산, 쌍바위 도래굽이가 생겨났다.

만약 구슬같은 땀을 바쳐 안아올리는 검은금이 없다면 어떻게 고향의 소중한 이름들이 탄전에 생겨날수 있었겠는가.

정든 고향이 탄전으로 옮겨진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이라는 말이 생활속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표현될 때도 있다고 본다.

나는 바로 그속에 담겨져있는 거대한 힘을 가리켜 불같은 사랑이라고 쓰고싶다.

권양기운전공처녀가 지하천길막장에서 세일수없이 끌어내는 탄차마다에 자기의 고향을 사랑하는것과 같이 것처럼 불같은 지성을 고이지 않는다면 한덩이의 석탄은 돌로밖에 보이지 않을것이기때문이다.

처녀는 참답게 고향을 사랑할줄 알았다.

그것이 넓고넓은 조국과 이어져 얼마나 거대한 창조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러주신 새7개년계획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영예로운 초소에 삶의 뿌리를 영원히 내렸기때문에 처녀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그 고향은 지금 조국땅 모든곳에 창조의 불을 보내주는 《꽃섬》으로 되었다.

사람들은 살면서 혁명이 요구한다면 총을 잡고 포탄이 튀는 산밭을 넘어야 할 때도 있을것이며 또 그 누가 보지도 않는 깊은 막장에서 석탄을 캐수도 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때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정든 고향의 따듯한 창문이 못건디게 눈앞에 안겨오는 순간이 있을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주의조국과 한숨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기 한몸의 정신적위안을 찾는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송고한 감정으로 남을수 있겠는가.

고향은 곧 자기자신이며 조국은 모든것을 준 어머니라는것을 깨달은 처녀의 눈빛에서 혁명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인 사람의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나는 엿볼수 있었다.

때문에 그는 자기 한몸이 자라난 고향집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오늘은 온 조국땅 모든 사람들이 사는 집을 따듯이 더욱혀주고있는것이다.

나는 이때처럼 눈시울적시며 고향을 못잇는다는 말의 참뜻을 마음속에 새겨본적은 없었다.

고향을 못잇는다는것은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뜻이다.

석탄이 조국의 모든곳에 필요하듯이 매개 사람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는 피끓는 그 사랑이 이 땅 어디를 막론하고 혁명이 요구하는 초소에 남김없이 바쳐질 때라야 그것은 진정 아름다울수 있다.

내가 만났던 권양기운전공은 자기의 고향인 꽃섬에 한번 꼭 가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가본듯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왜냐하면 처녀가 온갖 정성을 다해 가꾸가는 《꽃섬》에서 나는 이미 그와 만났기때문이다.

한장의 차표를 사들고

김흥권

10시 5분

나는 북행열차의 차표를 끊었다
어느새 대합실엔 손님들이 가득차고
열차맞물림을 알리는 방송원의 목소리 울린다

탄광으로 간다는
경제선동대원들의 얼굴에도
어머니품을 떠나 시집가는 처녀의 얼굴에도
배낭 무거운 돌격대원의 얼굴에도
웃음과 기쁨 흥분이 가득차 떠들썩한데

아쉬운 작별도 없는
나는 왜
한장 차표를 쥐고 창가에 말없이
눈물에 젖어 서있는것인가

북부탄전-내 잊지 못할곳으로 가는
한장의 차표
거기에 찍힌 두 글자
듣기만 하여도 목메이는
은덕역

내 손에 꼭쥔
자그마한 차표는 사랑스러이 속삭인다
-가자, 어서 가보자
수령님 해빛아래 락원으로 꽃핀곳
탄부들이 사는 탄광마을로

그 어느 채탄공의 손목을 잡아도
그 어느 굴진공의 손목을 잡아도
은혜입은 숨결이 풍겨오고
그 어느 소년단원의 머리를 쓰다듬어도
뜨거운 사랑이 안겨오는

번쩍이는 안전모의 불빛에도
흐르는 탄차바퀴에도, 길가의 게시판에도
회관에도 병원에도 리발소에도
사랑의 이야기 흐르는 그곳으로

내 밟고 다니는 이 땅 그 어디에나
은혜를 입지 않은 땅이 있으며
은덕을 받지 않은 사람 있으랴
영웅의 수자만 손꼽아보아도
가슴에 뜨거운 북부탄전 아오지에
수령님 주신 그 은덕 잊지 말자 이름 지은

은덕군!

열차에 오르지 않아도 벌써
가슴 뭉클하게 안겨오는구나
아버이수령님 걸으신 사랑의 자욱
가장 어려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친히 찾아오시기도 그 몇차례

은덕속에 해가 뜨고
은덕속에 별이 뜨는
북부탄전 오늘의 은덕
그 이름 외우고 또 외우며
눈시울 젖어 내 서있는 대합실

내 감격에 목메이는 이 대합실에서
나는 울었더라 왜놈의 세월 별이를 떠났던
할아버지가 굴속에 생매장됐다는...
아버지가 탄차에 깔려 중태에 빠졌다는
청천벽력같은 전보 그때마다 받아들고

아,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던 아오지
가면 다시 못온다던 아오지
아오지 차표를 싸들고
눈물없이는 그려볼수 없는 그 고장 이름을 외우며
출표원도 다시 보는 그 고장 이름 외우며 나는
울었더라

슬퍼서 기막혀서 울던 이 자리
오늘은 감격에 목메여 울며 서있다
그날과 다름없이
한장 차표를 끊어들고

이 땅우에 수천수만 이름 다른 고장들
수령님 은덕속에 꽃피지 않은 고장 있으랴
은덕-

이 두 글자 박힌 차표를 내밀면
그 어디라도 갈수 있으리

하지만 너무나도 질통이 무거웠던 탄굴
너무나도 억울하던 천대
너무나도 생죽음이 쌓이던곳이어서
이 땅우에 제일먼저 그 이름 안고 소생을 고한
은덕!
나는 바로 그곳으로 간다

굴진공의 기쁨

박희구

뿔어온 굴길 여기서 끝나도
굴진공 우리의 기쁨 여기서 샘솟는다
엇갈리는 안전등 불빛속에
웃는듯 일어서는듯 반짝이는 탄발, 탄발!

누구는 마구 그러안고
누구는 쓸어보며 만져보며
탄우에 눈물 떨구는데
탄맥에 다달은 우리의 이 기쁨
갱구는 땅우에 전하고
산정은 구름에 실어 하늘에 띄우는가

아, 수령님께 기쁨드리는 굴진공 우리 가슴
이슬에 젖는 순간이여,
이 시각을 위해
한치한치 심장으로 정대를 돌릴 때
눈앞에 비껴흐르는것은
저 탄맥에 이어진 조국의 모든것-

탄을 부르는 조국앞에
땀땀이 굴진공이 서야 할
이 시각을 위해
우리는 달아오른 착암기 놓을줄 몰랐다.

석수를 헤치고 암반을 뚫고
퍼내고 퍼낸 그 많은 버력대신
끝없이 깊어지는 굴길에
웃음과 노래를 가득 채우며
우리는 왔다, 이 시각으로.

이 시각을 위해

막장에 달려온 제대병사-저 굴진공은
잔치날도 미루어달라고 간청하였고
이 시각을 위해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그 미래의 몫으로
우리는 한발과 더 더쳤다.

이 시각을 위해
미더운 안해들과 귀여운 아이들이
출근길 안정들을 닦아주고
퇴근길 가방을 받아안았다.

아, 보람찬 삶의 매 순간을
이 시각을 위해 사는 굴진공들-
우리의 그 마음이
저렇듯 탄맥으로 빛을 뿜는것인가!

사람들이여, 보는가
하늘가득 불타오르고 누리에 찬란한
조국의 아름다운 쇠물빛노을도, 불빛의 은하도
여기 천길땅속 우리의 이 기쁨속에서
피어나고 빛발쳐간다!

이 시각에 언제나 살아
지심천리에 착맥지점을
위훈의 리정표처럼 수없이 새겨놓으며
수령님께 기쁨드리는 굴진공들,
진정, 우리의 충성의 마음
우리 흘린 땀 스며있어
그래서 이 석탄은 《검은금》인가!
그래서 이 석탄은 빛과 열이 되어 불타는것인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검은금

장청현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탄광들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의례히 안주, 신창, 아오지 등으로 꼽아나갈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사람들의 기억이나 인상에 별로 없던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내에 있는 천성청년탄광이 소문없이 큰 일을 하면서 손꼽히는 큰 탄광들과 어깨를 겨루기 시작한 것이었다.

우리는 흥미와 큰 기대를 가지고 그곳으로 취재를 떠날 결심을 했다. 이 결심을 부추켜준 것은 그곳에 경제선동을 나가있는 친구인 김동무의 편지였다.

분명히 막장의 간데라불빛에서 휘갈겨쓴 듯한 그 편지에는 석수까지 떨어져 잉크가 피었으나 내용만은 훌륭한 기사의 글감이었다.

우리는 흥분된 마음을 안은채 대한추위를 맞받아 곧 길을 떠났다.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한 일군으로부터 기업소내 탄광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우리는 천성으로 가는 뺨스를 잡아탔다. 날씨는 맵쌀으나 자리에 앉아 한참 있노라니 차안에 훈훈한 기운이 들기 시작했다.

문득 앞에 대동강이 흐르고 푸른 색으로 깨끗이 단장한 옥류교가 한눈에 안겨왔다. 아니 그것은 순간적인 착각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추위로 대동강물은 땅땅 얼어붙었고 그 우로는 옥류교와 똑같은 설계인듯싶은, 그 경쾌한 인상을 주는 현대식 교각이 가로놓여있었다.

여기서부터 뺨스는 점차 거리를 벗어나 촌길에 접어들었다. 바른쪽에서 비치던 해빛은 정면으로 눈부시게 비쳐들었고 한참 달리다가는 또 바른쪽으로 기울기도 한다. 그것으로 미루어 천정탄광은 순천에서부터 동북방향의 위치에 자리잡고있음을 틀림없었다. 산 넘어 고개 넘어 가쁜 숨을 쉬면서 뺨스는 용케도 굵이굵이 돌아간다.

길 좌우쪽으로는 산과 들, 그리고 벼랑들이 런던 지나간다. 설경도 아닌 겨울풍경이라 별로 흥취를 돋굴만한 절경은 못되나 알뜰하게 꾸려진 과수원이라든가 분수기며 고압전주들이 이따금 눈에 띄이자 이 산골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현대문명의 혜택이 어김없이 미치고있구나 하는 웅당한 리치가 웬일인지 새삼스럽게 되새겨져 가슴이 뜨거워움을 어찌할수 없었다.

때로 뺨스는 거의 몇다섯이 하길래 이젠 다 왔는

가부다 했는데 다시 부릉부릉 용을 쓰면서 험한 산 골짜기를 집요하게도 누벼나간다.

이윽고 뺨스는 현대적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탄광마을에 들어선다. 지붕이며 문짝이며 치마들로 보아 그 집들은 지은지 얼마 안되었음을 확연히 알수 있었다. 아니, 유심히 보면 지금 한창 건설중에 있는 집도 드문하였다. 아늑한 기분을 주는 아담한 살림집들이었다.

드디어 뺨스는 마감역, 천성에 도착하였다. 마감역이라 하니 좀 요란스레 들리지만 실지 도중역이라야 한두개 있으나마나 하였는데 그것도 농장원인 듯한 사람들의 요구에 운전사가 임의의 지점에서 그에 응해 기꺼이 문을 열어주면 정류소로 되는 듯한 그런 도중역들이었다.

탄광구내 입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글발이 길 좌우에 걸쳐 무지개모양으로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뜻밖에도 김동무의 마중을 받아 당위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공원처럼 깨끗이 꾸려진 구내였다.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힘있는 구호판들과 함께 길 좌우편에는 어느 직관원의 솜씨를 보여주듯 다양한 색으로 된 구도속에 멋부린 붓글체로 씌여진 《6강 리일불굴불기소대 힘있게 돌파구를 연다!》라든가 《천리마3강 승계식체탄중대 설비마다 만부하 걸어 새해 첫달계획을 완수!》라는 속보판들이 걸려있었다.

넓은 길바닥에는 혁신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중앙예술단을 환영하는 모임이 있었는지 오색 꽃보라가 깔려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예측은 전혀 과녁을 맞히지 못했다. 김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로 지원해나선 제대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환영했소. 한번 불결 그랬소.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여기서는 지난해말에 제대군인들을 위해 독신자합숙과 200세대의 문화주택을 지어 놓고 벌써 살림들을 하지. 그런데 오늘 또 몇세대 왔다고. 그러니 앞으로도 집을 계속 지어야 할것 같소.》

이미 뺨스를 타고오면서 본 그 아담한 현대식문화주택들이 바로 제대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살림집들이었다. 이 집을 짓노라고 지배인,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온 탄광마을이 다 떨쳐나섰다. 물론 김동무도 한몫 끼었다.

새로 배치받은 제대군인들을 휴가보낸 그 사이에 장관이요, 부주막이요, 회칠을 다 해놓고(지어 가두녀성들이 김장까지 나와 해주었다.) 그들이 오면 집안근심을 전혀 하지 않아도 마음놓고 직장에 출근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은것이였다.

여기 탄부들의 대부분은 탄광 개발당시부터 제대군인들과 고졸졸업생들이었다. 그래 천성탄광에다 《청년》자를 덧붙여 《천성청년탄광》이라고 부르는것은 그 력사가 짧다는 뜻도 있겠지만 기본은 청년탄부들이 개발하였는데 있는것 같다. 그러니 오늘의 성대한 환영모임도 오랜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온 제대군인들을 새 초소에서 맞이하는 의의깊은 감정적인 모임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해 떨쳐나선 이곳 탄부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김동무로부터 전해들으면서 우리는 흐뭇한 마음으로 초급당위원회에 들렀다. 거기서 천성청년탄광에 대한 간단한 력사와 현재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참인데 마침 이곳 탄광개척자의 한사람으로 현재 2갱 채탄중대의 유능한 채탄공인 리정환동무가 들어와서 개발당시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들을수 있었다.

쑥발에다 천막을 치고 말뚝을 받으며 탄광을 개발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일해온 사람이라 하면 보통 퍼그나 늙은 사람으로 짐작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 리정환동무는 그 얼굴에 아직 청년티가 력력한 39살의 장정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탄광이 개발된 날이 1958년 9월 5일이였고 당시 리정환동무는 고졸을 갓 졸업한 18살에 난 청년건설자였기때문이다.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리정환동무를 비롯한 고졸졸업생들과 제대군인들은 그때 천성청년탄광개발에 지원해나섰으며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바치며 오늘까지 싸워오는 동무들이였다.

《처음엔 정말 쑥대발과 나무가 무성한 수림뿐이었지요. 지나가던 날새도 길을 잃을가봐 이 수림속에 들어올것을 저어했고 새끼짐승들도 이 수림속에 들어서기만 하면 엄지를 잃어 진종일 울며 돌아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호랑이가 나타나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느니 없었다느니 한것도 바로 그때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리정환동무의 말이였습니다.

제다가 그들에게는 기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으

며 기계설비도 없었다. 그야말로 곡괭이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들이 가진것은 오직 젊은 가슴에 차넘치는 충성심뿐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난관앞에 굴하지 않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몇해 안되어 탄광생산을 인민경제계획에 정식으로 물리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10년후에는 년산 30만톤수준에서 석탄을 캐고 20년후인 지난해는 그보다 몇배의 탄을 더 생산하여 큰 탄광들의 뒤를 바짝 따랐으며 이곳 탄광을 인민경제의 믿음직한 석탄기지로 장성시켰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산골에서 벌방으로 찾아드는것이 어쩔수 없는 하나의 생활흐름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해매여간곳은 어디나 살기 어려운곳이였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빈궁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이 지어져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람들은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를 마다하지 않고 아무데나 찾아온다. 그것은 분명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그들의 심장에 그 영광의 초소에서 주체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활짝 꽃피우려는 뜨거운 충성의 열정만이 도도히 흐르고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언제나 탄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을 가장 빛나는 자리에 내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천성청년탄광은 기계화가 대대적으로 도입된 탄광으로 발전하였다.

탄광력사 20년이면 아직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이곳 탄광에는 오랜 경험을 가진 탄부들이 많지 못하다. 탄광의 물질기술적토대로 아직 만족할 수준은 못된다. 그 이름도 널리 알려져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20% 더 증가된 그들의 올해 생산계획량을 보면 거의 큰 탄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이르고있다.

그러면 벅찬 올해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기본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기본굴진을 어떻게 선행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굴진을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발전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기본고리는 굴진을 선행시키는것이다. 공업에서 채취공업이 첫공정이며 주타격방향이라면 채취공업에서는 굴진이 첫공정이며 굴진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석탄을 안전하게 생산할수 없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있을 때 분홍색머리수건을 쓴 한 처녀가 들어오더니 당위원회의 한 일군

을 보고 자기들이 휴식잠을 리용해서 익혀온 새로운 경제선동종목에 대한 시연회를 보아달라고 제기해왔다.

우리는 시연회를 흥미있게 본 다음 6갱쪽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기본굴진에서 고속도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 기적, 새 비약을 일으키고있다는 굴진갱탄부들의 이야기를 듣고싶어서였다.

《탄을 캐자면 굴진을 선행시켜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지요. 그래야 탄발을 조성하고 채탄하니깐요. 그런데 지난시기 이걸 잘 안했지요. 나를 포함한 일군들의 관점이 바로 서있지 않았기때문이지요. 지난시기에는 굴진이 좀 앞서나가도 회의에서 별로 칭찬이 없었고 잘 나가지 않아도 비판받는 법이 없었지요. 왜 그렇게 굴진이 차오시되었는가구요? 시계당장 눈앞에 있는 계획을 수행하는데는 굴진이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에서 온거지요.》

6갱 본조급당위원회의 한 일군의 말이였다. 이곳 탄광에서는 지난시기 투기업적으로 일을 하려했고 따라서 생산도 정상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석탄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자로 하여 일군들속에서는 심각한 사상투쟁이 벌어졌다. 공명주의적이며 요령주의적인 요소들이 뿌리뽑히기 시작했다.

일군들과 탄부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관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기풍이 확고히 서기 시작했고 굴진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기 시작했다.

고속도굴진운동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불려일으키고있는 6갱 리일봉, 강만수 소대들은 지난해 굴진계획을 선참으로 끝냈고 올해에도 자기계획을 넘쳐하고있다.

그들은 줄구멍식발과법을 창안도입하여 종전의 75% 발과효율로부터 95%이상의 발과효율을 보장하고있다. 그뿐아니라 6갱설비중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정대이음기》를 창안도입함으로써 폭약과 로력을 퍼그나 절약할수 있게 되었으며 1인당 생산성을 훨씬 높이고있다.

굴진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설비와의 사업을 어떻게 하며 설비와 자재를 어떻게 따라세우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착암기, 뽀베지트, 배관, 레루, 침목 등 여러가지 자재들이 빈틈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공기보장은 그 핵으로 된다. 압축기를 만가동해서 공기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들은 《순환식설비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웠다. 종전에는 여러대의 압축기를 가지고 쉬는 날에야 그것을 보수점검했지만 지금은 지정된 날자에 따라 순환식으로 보수점검을 정상화하여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하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여부는 지휘성원들의 지휘능력에 크게 달려있다. 이곳 지휘성원들은 종전과 같은 《유람식지도방법》을 완전히 근절하고 당의 호소대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산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갱장, 기사장, 굴진기사, 기계기사, 기술공정원들과 함께 갱직맹위원장, 갱사로청위원장을 포함한 지휘성원들은 한개 소대를 뚫고 단독으로 한 막장을 맡아 굴뚝기작업에 나선것이다. 《갱강소대》로 알려진 그들은 모든 역량을 굴뚝기에 집중하고 전투조직과 보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사업을 포치한 다음에는 갱에 들어가 착암기를 잡는것이였다.

우리는 뿌듯해오는 가슴을 안고 사무실을 떠났다. 그들은 해낼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해 지휘성원들과 탄부들 그리고 가두녀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나섰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이 철저히 몸 뻗어 이곳 탄부들은 지난해에도 언제나 그러하였던것처럼 올해과제도, 그리고 새 7개년계획의 과제도 반드시 넘쳐수행할것이다.

우리는 천성청년탄광을 돌아보며 조국에 바치는 탄부들의 뒸은 큰 탄광이나 작은 탄광이나, 이름난 탄광이나 그렇지 못한 탄광이나 조금도 다를것이 없음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의 마음이 크고작은 모든 탄광로동계급들의 심장에 하나와 같이 대하처럼 흐르고있기때문일것이다.

천성청년탄광이 안주탄광, 아오지탄광, 신창탄광과 같은 굴지의 큰 탄광으로, 이름난 탄광으로 빛내일 날도 멀지 않았을것이다.

우리는 산간벽지에 온것이 아니라 주체시대에 새로 탄생하는 문명탄전도시에 왔으며 굽이굽이 돌아가는 산골길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로동계급의 뜨거운 충성의 끈은 한길을 걷는 심정으로 이곳을 떠났다.

시대앞에 지닌 임무를 두고

김광수

내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믿음을 지니고 고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된지는 얼마 오래지 않다.

그러나 이 기간 청년굴진갱과 혁신갱의 막장에서 탄부들과 같이 살며 일하는 과정에 느끼고 체험한 것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나의 가슴을 언제나 뜨겁게 하는것은 탄부의 영예를 자각한 사람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와 그들의 불타는 충성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먼저 자기들이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말겨진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에서도 발현되는것이다. 나는 이것을 내가 담당한 갱의 탄부들속에서 잘 찾아볼수 있었다.

우리 굴진갱에는 60에 가까와오는 《아바이소대장》이 있는데 그는 앞으로 10년동안 소대장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일하고있다.

바로 이런 오랜 탄부들이 있는가 하면 어제 갓 중학교를 졸업하고 갱에 배치받아 착암기며 적재기, 굴뚝기방법 등을 배우기 시작한 《애송이굴진공》도 있다.

더우기 우리 갱에는 청년제대군인들이 많다. 그들은 모두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속에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탄부로 살며 일하는 높은 긍지와 영예를 안고 충성의 막장길을 힘차게 걷고 있다.

처음 내가 갱에 파견되어왔을 때는 일부 청년들이 탄광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안착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당조직과 힘을 합쳐 그들에게 석탄공업부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침투시키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으로써 일부 들떠있는 청년들도 탄부의 영예를 깊이 자각하도록 하였다.

청년탄부들은 어느 초소에서나 자기 한몫을 훌륭

히 맡아 수행하고있다. 특히 제대군인소대가 조직되어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오늘의 실정은 매우 감동적이다.

이들은 모두 탄부의 영예를 자각한 새세대들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라면 물불도 가림없이 뛰어드는 패기와 정열에 넘치는 청년들이다.

내가 갱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한달이 지난 어느날 나는 제대군인 전철귀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며 합숙길을 함께 걷게 되였다. 그는 한동안 머리를 수곳하고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발걸음을 옮겨 놓고있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머리를 떼는것이였다.

《소조원동지, 난 사실 희망이 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려고 했지요.》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전철귀동무의 얼굴을 이윽히 쳐다보았다. 이미 생활을 통하여 친숙해진 그의 진실한 심정을 내가 모르는바가 아니였다. 입대전에 고등물리학교를 다닌 그의 성적증에는 10점만이 가득차있었다.

과연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주시해보는데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있었다.

《우리는 제대군인소대를 무어서 한번 본때있게 해볼가 합니다.》

그의 이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짙막한 이 말속에 얼마나 많은것이 담겨져있는가! 초소는 변했지만 혁명임무는 변하지 않았다는 그 자각으로 어버이수령님 바라시는 한길에 한생을 바치려는 신념, 언제나 병사의 자재로서 탄부의 영예를 빛내가려는 충성의 맹세가 담겨진 뜨거운 말이였다.

김유권, 김정수, 리근영, 전경희, 리현상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소대원들은 바로 이런 결심과 각오가 있었기에 조직된지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고속도굴진의 앞장에 설수 있었던것이다.

언젠가 나는 일을 끝내고 갱밖으로 나오면서 즐거운 미소를 짓고있는 최희철동무에게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었다.

《희철동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요?》

그랬더니 그는 쾌활하게 대답하였다.

《오늘처럼 한 300프로썸 했을 때가 제일 기쁘니까.》

이 얼마나 소박하고 웅심깊은 심장의 말인가. 나

는 청년탄부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새세대의 의무를 자각한 청년들만이 할수 있는 말이다. 이런 청년들이기에 그들이 다가서는 막장마다 승리의 노래소리 드높이 울리는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 석탄을 더 많이 캐내는 데로 향해져있다. 유쾌하게 웃으며 떠들썩하게 일 쟁하는 청년들과 함께 나도 견고있었다.

나는 말수더구 적은 서동무의 잔등에 뺨팍갈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보자기가 동여매있어 슬그머니 만져보았다. 무슨 쇠불이가 손에 잡혔다. 무엇인가 고 물으니 그는 빙그레 웃으며

《탄알입니다.》 하는것이였다.

거기엔 정말 탄알처럼 귀중한 정알이며 착암기부속들뿐아니라 쇠줄토막, 나사못, 철조각 등 별의별것이 다 들어있었다. 착암기를 무기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착암수의 마음이 보자기에도 깃들여있었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탄부들의 생활이다. 하지만 이런속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것은 참으로 많다.

바로 이들의 진정한 마음이 있고 이들의 보람찬

투쟁으로 하여 우리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고 주체공업의 대들보가 튼튼해지는것이 아니라.

우리 갱의 탄부들은 제2차7개년계획의 주타격방향을 맡아선 커다란 영예를 간직하고 용기백배 전진하고있다.

방덕남소대는 지난해 년간계획을 200프로로 넘쳐 수행한 기세높이 새 전투에서도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으며 특히 제대군인소대는 월계획을 어김없이 300프로이상씩 넘쳐수행하여 중대의 기수로 다른 모든 소대들을 앞서가고있다.

패기와 정열에 넘치는 우리 탄부들과 함께 걸을 때면 언제나 신심과 용기가 솟는다. 이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랴.

나는 우리들 3대혁명소조원들을 혁명의 전위로, 투쟁의 기수로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기대에 효성으로 보답하여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겠다.

고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

수기

금지와의 기쁨

최희옥

길거리에 나설 때면 나의 눈길은 저도모르게 사람들이 들고있는 가방이나 트렁크에로 향해진다.

모양좋은 가방을 들고 점잖게 걷는 남자들이며 명랑한 처녀들의 밝은 얼굴과 어울려 그대로 꽃이런듯싶은 색깔고운 가방들을 보며 혼자서 웃음을 짓는 때도 많다. 가방생산자의 눈이어서 그런지...

가방은 우리 생활에서 늘쌍 쓰이며 그 색깔과 모양에 대하여 더우기 요구성이 높은 물건이라고도 할수 있다.

멜끈달린 자그마한 유치원어린이가방으로부터 여러가지 학생용가방, 남자용 들가방과 서류가방, 여자용손가방과 부인가방... 성별과 연령에 따라 제각각의 가방이 필요할것이며 직업과 사업용무에 따라서도 체육가방, 의료가방, 여행가방 등 그 가지수가 수십종에 달한다.

가방과 트렁크는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적 수요가 높아갈수록 또한 취미와 기호에 따르는 요구가 합쳐져 가방생산자인 우리자신도 미처 그 종류와 형태를 다 헤아리기 어렵다.

허술한 보자기에 물건을 싸가지고 이고 들고 지고 걸음을 서두르던 때는 벌써 아득한 먼 과거의 일로 되버렸다. 지금 와서 가방은 일상적인 휴대품처럼 되었고 차림새를 돋우어주는 기호품으로 하나의 문화용품으로 된듯싶다.

가끔 맵시있고 색깔고운 가방이나 트렁크가 옷차림과 생김생김에 어울려 어딘가 점잖고 우아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군한다. 그럴 때면 가방을 찬찬히 여겨보게 되는데 낯익은 그 가방에서 자랑스레 우리 공장의 이름을 읽어보는것이다.

이것은 나만이 체험해본 감정이 아니였다. 우리 직장의 많은 동무들에게서 나는 그런 말을 자주 들으며 목격한다.

《반장동지, 요즘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 여자용가방이 대인기야요. 그 가방을 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 그거야 우리 직장 전체 동무들의 마음이 합쳐진거니까 그럴수밖에 있지. 전번 합평회때 손

잡이고정못자리에 복숭아모양의 비닐을 덧대자고 한 네 의견이 참 좋았어. 그렇게 하니 가방이 더 맵시있지 않니.》

나는 갓 일하기 시작한 명희동무에게서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감과 책임성을 발견한것이 기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재봉작업반에는 나 어린 처녀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6개월이 걸려야 재봉일을 배운다던 전례를 깨뜨리고 단 2개월만에 모양고운 가방을 척척 만들어 내는 재봉공이 되었다. 서로 돕고 이끌며 우리는 자기의 기능을 높이였다. 기능이 곧 제품의 질과 연결되어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지난해계획을 넘쳐수행한 우리 재봉공들은 올해에도 질 좋고 다양한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련일 새로운 성과를 올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아졌으며 그들은 질 좋은 소비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와 올해 신년사에서 또 다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더욱 큰 기쁨을 안겨주어야 할 우리의 책임은 참으로 크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소비품생산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진심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주인공격에 일할것을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가방 하나를 만들어도 자기의 충성심과 알뜰한 마음이 거기에 스며배도록 자기가 만든 가방이 거리를 더욱 환하게 비치도록 바늘 한뼘한뼘에 정성을 쏟아붓고있다.

어느날 점심때였다.

나는 우리 작업반에서 만든 가방들에 혹 어떤 부족점이나 흠집이 없을까 하여 기대들을 돌아보고있었다. 그런데 스스로 《검사원》이 된듯 조명희동무도 기대결에 쪼그리고앉아 재봉한것들을 일일이 들춰보는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재봉한 가방을 들고 오래동안 만지작거리고있었다.

《명희동무, 왜 그래?》

조용히 다가서며 묻는 말에 그는 인차 대답을 못

했다. 나는 문득 명희의 눈에서 이슬같은것이 반짝이는것을 보았다.

《제가 그만... 재봉을 잘못하여 한군데 실땀이 건너편것이 있어요.》

물론 수정해야 할 불량품은 아니다. 그러나 바늘 한뼘이 건너편것을 두고 몹시 가슴아파하는 어린 처녀의 마음이 무척 아름다와 나는 그 가방을 들고 인차 자리를 뜨지 못했다.

《명희동무처럼 모두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단개의 수정품도 안나올거야.》

이날 우리는 총화모임때 자기가 만드는 가방에 한점의 티도 없게 하자고 결의들을 다지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직장, 우리 작업반이 걸어온 길에 너무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65년 2월 18일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가방끈고정작업과 트렁크궤매기 등 적지 않게 남아있던 손로동을 기계로동으로 바꾸었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흐름선콘베아도 설치하여 모든 작업을 전문화, 기계화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기만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우리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질 좋고 다양한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올해에도 기술혁신을 대담하게 벌리고 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더 많은 소비품을 생산할것이다.

우리가 만든 가방과 트렁크가 근로자들의 손에 들어가 그들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인것이다.

흘리는 땀과 쏟아붓는 정성이 꽃으로 되어 거리 거리에 넘쳐흐르게 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생산을 다그치고있으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올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 우리의 로력과 땀이 깃들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나는 아무리 일해도 더 일하고싶고 좋은것을 하나 만들면 또 더 좋은것을 만들고싶은 심정뿐이다.

맵시있고 색깔고운 가방을 한뼘두뼘 누벼가는 우리 재봉공들의 마음은 언제나 거리의 꽃밭을 가꾸는 마음그대로이다.

우리는 올해에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영예롭고 보람찬 전투과제를 훌륭히 넘쳐수행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 승리의 보고, 충성의 보고를 올릴 결의에 불타고있다.

평양일용품종합공장 가방직장

재봉작업반장

발동소리

리광식

오룡농장 채영금이라면 이악하기로 소문난 처녀였다. 키가 작달막하고 오동통한것이 생긴것도 만만치 않게 생겼지만 무슨 일이든 한번 맘먹고 달라붙으면 끝장이 날 때까지 떨어질줄 모르는 검질기고도 극성스러운 성미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차에 오르지 다섯해만인 지난해에 벌써 년간기대작업실적에서 군내 트랙트르운전수들의 최고수준을 돌파할수 있었던것도 그의 이런 성격의 덕분이었던지모를 일이었다.

사실 오랜 운전수생활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기술로 하여 저마다 내노라 하는 군내 수백명 청장년들과 어깨를 겨루고 년간 최고수준의 작업실적을 이룩할수 있었다는것이 스물두살 단발머리처녀로서는 말하기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난해 년말작업총화때는 연단에 나서서 경험토론까지 한 영금이지만 어쨌든 그도 인체는 만만한 자신심과 공지에 넘쳐있는 처녀운전수이다.

어제밤에도 60여리나 떨어져있는 소석회공장에 가서 산성화된 토지개량에 쓸 15톤의 소석회를 실어올데 대한 작업지령을 받자 영금이는 오늘 별이 총총한 새벽에 길을 떠났다. 작업량으로 보면 웅근이틀본의것이지만 이번에도 부지런히 뛰여 단하루 동안에 해제질 결심이었던것이다.

요즘 새해 농사차비전투를 마감고비에서 다그치고있는 농장은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제2차7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릴 한결같은 일념이 온 농장에 차고넘치였다. 이런 때에 하물며 영금이만이 어떻게 그날그날의 과제완수에만 만족할수 있단말인가. 소석회공장에 당도하여 그곳 로동자들이 집을 실어줄 때에야 그는 싸가지고온 밥짝 하나를 휴제실에 가지고 들어가 거기서 아침밥을 먹었다.

한데 그가 련결차 한가득 소석회를 싣고 공장을 떠나 잠시 달렸을 때였다. 갑자기 기관회전이 굼떠지는것 같더니 어쩔사이도 없이 스프르 발동소리가 꺼져버리었다. 제동기를 밟아 차를 세우는 영금의 가슴은 대뜸 철렁했다.

발동이 절로 꺼질 때에는 그 심중팔구가 연료공급계통의 고장이다. 혹시 도관이 터졌거나 분사구가 메였다면 다행이런만, 그러나 영금이는 벌써부터 얼마전에 고무를 덧대고 재생시킨 흡상뿔프가

미타했다.아니나다를가 얼른 내려보니 검은 타르칠을 한 뿔프케스에 뚜껑짚으로 새여나온 기름기가 번지르 흘렀다.

정작 흡상뿔프가 고장이란것이 확실해지자 영금이는 맥이 탁 풀렸다. 오늘 소석회나 싣고는 곧 바꾸어버리자던것이 이런 요진통에 말썽을 일으킬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그러나 그는 이내 연료공급을 정지시키고나서 열려진 운전칸문을 후려닫았다. 어차피 인체는 주변 농장기계화작업반을 찾아가서 새 뿔프를 빌려다가 바꾸어넣는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5리남짓한곳에 이곳 월현농장기계화작업반이 있다.

해뜨기전의 이른아침은 아직 살을 에일듯 맵찔다. 푸릿한 새벽빛이 어린 대지우로 간간이 찬 바람이 불어치는데 그때마다 눈과 먼지가 함께 떠올라 회오리를 일구었다.

물길은 군청색 털목도리로 머리와 목을 감싼 영금이는 두툼한 솜저고리속에 몸을 웅송그린채 쿵쿵 언땅을 구르며 반달음을 놓았다.

한데 그러던 영금의 걸음이 불과 얼마를 가지 못하고 점차 떠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멎어섰다. 월현농장기계화작업반기동조에서 김창수가 일하고있다는 생각이 얼핏 그의 머리속을 스쳐지났던것이다. 김창수에게만은 고장난 차의 부속을 얻으러 다니는 자기의 구차한 꼴을 보이고싶지 않은 영금이였다.

그는 핵 돌아서버리고말았다. 그러나 성큼 걸음을 옮기지는 못했다. 그다음으로 가깝기는 일해농장기계화작업반인데 거기는 가는것만도 시오리가 잘된다.

거길 갔다오고나면 차수리는 오전 한나절이 걸려야 끝날텐데 그러면 오늘중에 열다섯톤의 소석회를 다 싣자던 애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것이다.

영금이는 안타깝게 길복판을 맴돌았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김창수를 알게 되었던 지난해 년말작업총화때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것은 영금이자신도 뜻밖의 일이었다. 참말로 그는 자기가 군내의 수많은 트랙트르운전수들중에서 년간기대작업실적이 제일 높을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놀란것은 영금이뿐이 아닌것 같았다.

태반의 운전수청년들이 능금빛 영금이의 얼굴을 경탄 어린 시선으로 주시했다. 어떤 축들은 회의장 벽에 대문짝같이 크게 그려붙인 작업실적표를 들여다보고는 입을 딱 벌리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아연해서 부르짖기도 했다.

그것은 대개 영금이와 함께 중학을 졸업한 후 인차 양성소를 거치며 차에 오른 그 나이 또래 젊은 운전수들이었다. 학군이며 영팔이, 호갑이, 을선이... 그들은 모두 하나와 같이 숙소에서 강의실을 오가는 넓은 길도, 실습장의 넓은 운동장도 바로 제 것이거나 한 듯 독차지하고 웃고 떠들고 쪼고 까붙며 영금이를 비롯한 몇 안 되는 처녀 양성생들로 하여금 기를 펼 수 없게 날치던 《애군》들이었다.

그들은 아마 양성소에서는 발동도 제대로 걸지 못하고 앉은기가 낮아서 한뼘 두께나 되는 방석을 끼고야 실습차에 오르곤 하던 영금이가 자기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영금이가 연단에 나서게 된 것도 실은 이들이 집행부측에 낸 서면제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제법 젊잖게 《채영금동무의 귀중한 경험담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일치한 심정임을 확인하는바입니다.》라고 써냈던 것이다.

영금이도 처음엔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어서 그만 두려고 하였으나 오전 한나절을 준비시간으로 주면서 이야기해보라는 집행부의 권고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번 떠보자는 속심인 것만 같은 그들의 제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도 없지 않아서 토론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영금이가 높은 작업실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결코 남보다 힘이 세거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해서가 아니었다.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나는 열스무 걸음을 걷고 남이 열 걸음 걸을 때 나는 백 걸음, 이백 걸음을 달리겠다는 이악한 노력이 낳은 고귀한 열매였다.

《...저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춥거나 덥거나를 가리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곳은 일 마른 일 멀고 가까운 길도 가리지 않았습시다. 내가 한 시간이라도 서있으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한 집이라도 등짐을 더 져야 하고 한 이량이라도 더 보탑을 잡고 땀을 흘려야 한다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다니면서 아침 두, 점심 두, 저녁 두 되도록이면 모두 차안에서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기술 두 경험 두 어린 제가 남들만큼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금이는 계속하여 자기가 처음 차에 오르면서 내가 이 성미 사나운 무쇠철마를 꽤 다루어낼 수 있을가 걱정하던 일이며 한평의 논밭이라도 더 갈고

하루 한탕이라도 더 뛰기 위해서 아글타글 애쓰던 일을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비록 너자의 몸이고 기술도 경험도 어리지만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부지런히 달리고 또 달린다면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원수님께 적으나마 기계화초병으로서의 충성을 바칠 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영금이의 진실한 토론은 참가자들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영금이와 함께 양성소를 나온 청년들도 손바닥이 깨여지도록 박수를 치며 결의 사람들과 수군거리는 품이 영금이로 말하면 자기와 한 실습차에서 운전기술을 배운 동무라고 자랑하는 듯싶었다.

토론이 끝나자 여러 사람들이 이것저것 질문을 제기했다. 주로는 영금이의 로동일과와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소박한 영금이의 대답을 듣고는 그의 극성스러운 일본새에 혀를 내둘렀다.

그런데 맨 나중에 한 청년이 장내복판에서 일어섰다. 연한 하늘색 와이샤쓰에 줄무늬 건너간 넥타이를 메고 그우에 검은 모데트론양복을 쪽 뿔아입은 스물대 여섯살 나 보이는 청년이었다. 기름을 발라 넘긴 그의 총 센 머리칼이 시종 잠들지 못하고 회관 천판을 곤대짓했다.

《채영금동무의 토론에 저도 전적인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듣고 싶은 것은 채영금동무가 단위 시간당 작업실적을 높이고 톤키로당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런 측면에서의 경험입니다.》

영금이는 대번에 당황해버리었다. 사실 물동운반과 같은 작업에서 운행키로당 톤중을 따지면서 일해본 영금이가 아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 없기도 하지만 준비조차도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영금이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여러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마침 폐회시간이 박두했던 때여서 영금이는 인차 웅색한 자리를 모면하고 연단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회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때까지도 없힌 마음이 내려가질 않았다. 토론은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 청년의 마지막 질문만 아니었다라면 퍼그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토론을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청중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부끄러운 나머지 것처럼 까다로운 질문을 제기한 그 청년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숙소에 다달았을

때였다. 현관출입문고리를 쥐는데 누군가 등뒤에서 《영금동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돌아서보니 뜻밖에도 그앞에는 아까의 그 질문자 청년이 서있었다.

《아까는 내가 좀 지나친 질문을 했던것 같은데 그렇다면 양해하시오. 난 월현농장 김창수라고 합니다.》

그는 어쭙은 미소를 그리며 사과겸 자기 소개를 하는데 멋을 부린듯한 옷차림과는 달리 매우 순직해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지금 영금이의 눈에 그가 순직하게 보일리는 물론 만무였다. 지어 흠잡을데 없이 단정한 외모마저도 어쩐지 그것은 영금이의 눈에 몹시 거슬리었다.

《용건을 말하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영금동무는 평소에 연유절약을 위한 일에도 많이 노력하였을줄 아는데 그 과정에 얻은 경험 같은것을 아무거나 좋으니 좀 이야기 해줄수 없겠소?》

순간 영금이는 이 친절한 청년이 또한번 자기를 수세에 빠뜨리기 위하여 찾아왔다는것을 확신하였다.

《미안하지만 동무는 제가 토론에서 제기한 기본 문제점을 혼동하고있는것 같군요. 저는 연유절약경험이 아니라 작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이야기했을뿐인데요.》

영금이는 이러고나서 표연히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버리었다. 들어오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의 굽인돌이에서 얼핏 바라보니 청년은 아직도 멍청하니 그 자리에 서있었는데 그 꼴을 본 영금이는 그 제야 속이 좀 개운해지는것 같았다...

이런 창수에게서 영금이가 어떻게 고장난 차의 부속을 얻을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도대체 영금이의 긍지높은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일이기도 했다.

영금이는 10리나 더 멀지만 일해농장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대신 그는 차 있는대로 돌아와 목도리와 숨저고리를 벗어서 운전석에 던져넣었다. 그리고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비호산기슭의 밤나무풀안에 남향을 하고 들어앉은 차고안은 텅 비어있었다. 맨 구석 차고안에 고장난것인듯한 한대의 프락포르가 서있을뿐 바퀴자국 어지러운 앞마당도 쥐죽은듯 피피한데 다만 저쪽 차고끝에 잇달려지는 나지막한 사무실안에서 전화를 받는 그 누군가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제가 읍쪽으로 가는건 사실이지만 반장동무가 부탁하는 그 짐을 실을수는 없습니다... 그 리유에 대해서야 이제껏 제가 설명해드리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가구요?... 글썄 어떻게 해야 할는

지는 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까.》

사무실출입문앞까지 걸어가는동안 영금이는 두칸두칸 들려오는 말소리며 미루어 전화를 받고있는 사람이 운전수이며 그가 지금 어느 한 작업반장의 물동운반청탁을 거절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계획했던 짐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러나 그는 급히 무엇을 찾아보는 모양인지 벌컥벌컥 종이장 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한참후에야 다시 수화기를 들고 지금 월현농장 프락포르 한대가 읍으로 가는길에 3작업반에 들리게 될테니 그 편을 리용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전화는 월현농장의 그 누구인가와도 잠시 계속되였다.

헌데 굵직한 그 음성이 어쩐지 귀에 익은듯하여 창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던 영금이는 그만 흠칫 놀랐다.

두툼한 수첩을 들고 이쪽으로 돌아앉아 전화를 걸고있는 사람이 바로 다름아닌 김창수였던것이다. (아니?!)

영금이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탄성이 새어나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놀라운 순간이 지나가자 그는 또한번 창수에게서 모욕감을 느꼈다.

인제 보면 창수는 그때 자기의 소속마저 슬쩍 속이면서 숙소에까지 따라와 싱겁고도 희떠운 질문을 했던것이 아닌가...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창수가 성큼 나서는바람에 영금이는 미처 돌아가자는 생각조차 할 사이가 없었다.

《채영금동무가 아니요?》

첫눈에 그를 알아본 창수가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깔끔한 시선을 들며 짙막히 인사를 하였으니 그는 창수가 내민 손은 못본체 해버리었다. 그바람에 창수는 내밀었던 손을 그대로 가무리기가 멎적었던지 영금이의 손 대신 자기의 왼쪽손을 들어 슬쩍 마주잡았다.

《월현농장에 계신다더니 인젠 여기서 일하시는 모양이군요.》

《허허... 그렇게 됐습니다.》

창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했다.

영금이는 그가 자기의 거짓말이 탄로되는바람에 당황해서 그러는것이라고 짐작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흠상뽕프? 어디 뽕시다.》

창수는 두말없이 열쇠뭉음을 꺼내들더니 창고안

으로 들어갔다.

잠시후에 그는 어른들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새 흡상뿔프 하나를 들고나와 영금의 손에 넘겨주었다.

《고마와요.》

영금이는 역시 짝막하게 사의를 표시했다. 그러자 창수가 물었다.

《참, 영금동무는 아마 소석회공장쪽에 차를 세웠겠지?》

《동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두 지금 그쪽으로 가려던 참인데 내 차를 타고 함께 갑시다.》

창수가 이러며 자기 차로 가려 하자 영금이는 《괜찮아요, 전 걸어가겠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하고나서 무어라고 할 사이도 없이 둔덕아래 길로 총총히 걸어내려왔다.

…보기엔 어른들 주먹만했지만 쇠덩어리여서 그런지 흡상뿔프는 퍼그나 무겁고 거치장스러웠다. 근 5리길을 오면서 머리에 이어도보고 잔등에 지어도 보았으나 이것도 저것도 다 맞갖지를 않아서 나중엔 어린애 안듯 품에 안았다. 그리고나서 영금이는 줄곧 달리었다.

그런데 그가 일해벌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창포천을 건느고있을 때 별안간 등뒤에서 《따따따따…》 하는 프락프르와 다기찬 동음이 들려왔다. 돌아다보니 방금 그가 지나온 오리봉기슭의 굽인돌이길우에 불쑥 올라선 《천리마》 호 한대가 뻗긴 상체를 위태롭게 기울거리며 이쪽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있었다.

혹시 창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영금이는 뒤돌아보기를 그만두고 길섶에 나서서 부지런히 걸었다.

한데 다가온 차가 지나칠것만 같이 몇걸음 앞서더니 문득 멎어섰다.

《영금동무, 어서 타우. 나도 소석회공장에 가는 길이요.》

운전칸문을 열고 이러는 사람은 과연 창수였다.련결차우엔 한가득 석회석이 실렸다.

《글쎄, 괜한 걱정이야요. 어서 먼저 가세요.》

영금이는 버티고서서 오를 차비가 아니었다.

그러자 흠뻑 튀어내린 창수가 그의 품속에서 흡상뿔프를 빼앗아 운전석에 던졌다.

《무슨 고집이요? 어서 오르우.》

《어마나, 명령하는거예요?》

《그렇소, 동무나 나나 귀중한 시간을 길바닥에 흘려버릴 아무런 권리도 못가지고있소.》

제법 엄격한 어조로 이러고난 창수는 제먼저 차에 올라 운전대를 쥐었다.

영금이도 그 소리엔 대꾸할 말이 없어서 잠간 생

각해보다가 따라올라갔다.

영금이가 고장난 흡상뿔프의 조임나사들을 한참 풀고있는데 공장에 들어가 석회석을 부리운 창수가 이번에는 허연 소석회를 싣고 달려나오다가 멈춰세웠다.

《혼자서 꽤 해냄직하우?》

창수가 다가오며 물었다.

《왜요? 도와줄 용의가 있는가보지요?》

《용의야 있구말구요. 영금동무가 필요를 느낀다면야 언제든지…》

《고마와요. 하지만 이만것쯤에 다른 사람의 손까지 빌고싶은 생각은 없는걸요.》

《그건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영금동무에게 자력갱생간고분투하려는 혁명적투지가 있다는…》

그 소리엔 영금이도 픽 웃었다.

《비행기를 태우지 마세요. 저도 어린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창수는 어느새 벌써 덤석 기름 묻은 나사틀개를 잡고있었다.

《인주시오. 내가 열른 해버릴테니.》

그바람에 영금이는 밀려날뻔하다가 나사틀개를 붙들고 간신히 붙어섰다.

《아니… 이걸, 이걸 왜 이래요, 비켜요, 주인이 뒤에 서서 구경만 하란 법이 어디 있어요.》

영금이는 깜짝 놀라 총알같이 내쏘았다. 그들은 두어뿔 기장이나 되는 나사틀개를 움켜쥐고 한참 싱쟁이를 했다.

《에이, 내 졌소!》

먼저 창수편에서 꺾꺾 웃으며 물려섰다.

《그럼 내 먼저 갈테니 인차 뒤따라오우.》

하는수 없다는듯 이러고나서 자기 차로 돌아가는 창수를 바라보며 영금은 소리없이 웃었다.

한데 그는 인차 뒤따라오라고 하던 창수의 말이 이상스러워졌다. 어디로 가갈래…? 그리구 저 소석회는…? 소석회는 요즘 오통리에 배당된것밖에 없지 않는가?

아니나다를가 영금이가 소리쳐 물어보니 자기는 오통농장에 3작업반 방풍장지주목을 실러 가는데 올라가는길에 영금이네 소석회를 한차 실었다는것이다.

그러자 영금이는 발끈 성을 냈다.

《동문 정말… 도대체 누가 동무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자, 이걸 또 생트집이로군. 부탁은 무슨 부탁이겠소. 빈차루 올라갈수 없으니까 실은거지.》

(아이참, 별 싱거운 사람 다 보네, 자기네 짐이나 실을게지…)

되돌아가서 당장 집을 부리라고 우길수도 없는 일여서 말은 안했지만 영금이는 참말로 기분이 언짢았다.

더우기 창수가 자기네 농장 어느 한 작업반장이 부탁하던 집을 거절하던 아까의 일을 상기하자 그의 이 지나친 호의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흥, 마음대로 해보라지. 어쨌든 난 오늘 작업실적에 저 동무가 실어다준건 포함시키지 않을테니까.)

떠나는 차에 대고 이렇게 중얼거리던 영금이는 불안간 《아차!》하며 달리는 차를 뒤따라갔다. 기분이야 어쨌든 창수가 오룡농장으로 간다니 오일령이 얼음판이라는것을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한것이다.

《창수동무, 읍쪽으로 돌아가세요. 오일령이 얼음판이에요-》

그러나 이미 속력을 내기 시작한 차안에서 그 소리가 들릴리 없었다. 영금이는 단념하고 돌아섰다. 오일령이 얼음판이라는것은 갈림길에 가서도 능히 알수 있을것이였다. 영금이자신이 얼마전에 《주의! 오일령이 얼음판임, 돌아갈것.》라고 쓴 표식판을 붙여놓았던것이다.

해가 올라오자 날씨는 썩 따스해진듯 하였으나 바람은 오히려 더 세차졌다.

영금이 가 수리를 끝낸 차를 몰고 나지막한 재를 넘어서니 비호산마루를 기여넘어온 강한 서북풍이 30리일해벌 한가운데서 제멋에 겨운 란무를 하였다. 영금이는 그속을 뚫고 질풍처럼 차를 몰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로상에 벌충할 셈이였다. 최근에 운전기술이 부쩍 는 그는 변속썩씨도 여간 아니고 정황처리도 능숙했다. 고개를 앞두고는 벌써 멀리서부터 탄력을 얻기 위하여 부쩍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령중턱에 이르러서는 제때에 속도를 죽임없이 변속을 하군하는데 우들먹거리기 잘하는 무쇠철마가 그의 작은 손안에서 입안의 혀처럼 말을 잘 들었다.

그런데 읍과 읍을 련결하는 대도로에 나서서 오일령쪽으로 뻗은 갈림길을 지나면 영금이는 문득 제동기를 밟아 차를 세웠다. 오일령쪽 눈길우에 새겨진 바퀴자국이 얼핏 눈에 띄었던것이다.

차에서 내려 다가가보니 확실히 프락프르 한대가 꺾어들어갔다.

누가 저쪽으로 갔을까? 혹시 창수동무가 표식판을 못본거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흘끔 갈림길어귀의 나무밑을 바라보던 영금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표식판이 온데간데 없었던것이다. 누군가 억지로 뜯어낸듯

판자쪽 한귀퉁이를 문채 박혀있는 꺼렇게 녹슨 못을 잠시 바라보던 영금은 자기의 실책을 깨달았다. 너무 키낮은곳에 붙였으니 장난 심한 아이들이 지금쯤 거기서 뜯어낸 판자로 썰매를 만들고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영금은 급히 차를 돌리어 오일령쪽 갈림길로 접어들었다. 아니나다를가, 고개밑에 이르러보니 길옆에 차를 세운 창수가 열심히 얼음을 까고있는게 아닌가.

영금을 돌아다보는 그의 얼굴에서는 비오듯 땀이 흐르고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그만... 미처 일러드리지못해서...》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요?》

영금이의 자책에 겨운 목소리에서 이상한것을 감촉한듯 창수가 물었다.

《글쎄, 전 갈림길에 표식판을 세웠다는것만 생각하구... 창수동무가 그걸 보구 읍쪽으로 돌아갔으려니만 여겼했어요.》

《표식판은 나두 읽었소. 한데 그건 누가 써붙였소?》

《네?!》

《오일령이 얼음판이라면 가버리구라도 지름길을 다녀야지 이것때문에 20리길을 에돈다는게 뭐요? 내 그래서 그 표식판을 들어오다가 뜯어버렸소.》

영금이는 모든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창수는 결코 모르고 접어든것이 아니라 우야 얼음을 까자고 들어온것이다. 영금은 이런 창수를 걱정하며 다쫓아들어온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졌던지 모른다.

《동문 정말 사람들을 바보나 머저리로 치부하는데 습관된 모양이지요?》

그래 동무처럼 이렇게 해서 얼음판을 극복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영금은 바르르 약이 올라서 쏘아붙였다.

창수는 잠시 어리둥절해있었다. 그도 하루밤만 지나면 고개길이 다시 얼음판으로 되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 같았다.

사실 산비탈우에는 사철 마를줄 모르는 썸터가 있었다. 바위틈에서 솟구쳐오르는 그 썸줄기는 원래 너머편 골짜기로 흘러내리던것인데 지난 가을에 있는 채석장 확장공사로 말미암아 산릉선 한쪽 귀퉁이가 허물어져 패이면서 이 고개마루쪽으로 그 흐름을 바꾸었던것이다. 영금이라도 처음엔 고개길 얼음을 까버리자고 했었다. 그러나 썸터를 올라가 보고는 언땅과 바위를 까고 썸을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한해겨울 읍쪽으로 돌아다니는편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었다.

영금의 설명을 듣고난 창수는 껄껄 웃었다.
《결국 영금동무가 언땅과 바위 앞에 무릎을 꿇셈
이로군! 허허허.》

《뭘라고요?》

《채영금동무답지 않은 말이요. 영금동무가 얼음
때문에 20리길을 에돌아다닌다면 아마 사람들이
놀랄거요.》

《좋아요, 아무렇게나 해석해두세요. 하지만… 하
지만…》

영금이는 종시 말끝을 맺지 못한채 책 돌아서서
고개미를 뒤희내려왔다.

《영금동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등뒤에서 여러번 들려왔으나
그는 돌아다보지 않았다. 마지막 말을 가슴이 뜨끔
하도록 쏘아주지 못한것이 얼마나 분했는지 운전칸
에 뛰어올라 차머리를 돌리는 영금이의 눈에 눈물이
쫄끔 솟기까지 했다.

(실컷 고생을 해보라지. 그래야 사람의 자존심두
한계가 있다는것을 깨달을수 있어!)

그는 옥한 마음을 사려먹고 이렇게 증얼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읍쪽길을 에돌아 농장으로 차를 돌아가는
영금의 마음은 차츰 이상해졌다. 창수의 고집이 뚱
기는 하지만 역시 그를 돌려세워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자기의 께한 성미가 또 후회된다.

이렇든 저렇든 창수의 행동으로 말하면 그것은
참말 의로운 행동이 아닌가. 자신은 지주목만 몇차
실으면 언제 다시 넘어볼지 모르는 고개길을 그는
대체 누구를 위해 저러는가? 나를 포함한 우리 농
장 운전수들을 위해서인가?

모를 일이었다. 하여간 그는 자기가 지금 농장의
영농자재를 실러 간다는 생각마저 까맣게 잊고 온
하루를 저 고개길에서 헛되이 보내게 될지도 모
른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옳단말인가? 그를 고개길에
그냥 두고온 나는 옳았단말인가?

영금이는 너무나도 졸지에 찾아온 이 자책감앞에
서 자신을 어떻게 변명해야 좋을지 몰랐다.

관리위원회앞마당에 소석회를 부리고난 영금이는
그길로 채벌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창수가 실어
야 할 방풍장치주목을 자기가 싣기로 결심한것이다.

《아니, 창수동문 어떻게 됐게 동무가 지주목을
싣구오우? 동무는 어느 농장 운전수요?》

영금이가 창수네 농장 3작업반에 당도하자 지주
목을 부리러 달려나오던 작업반장과 농장원들이 차
에서 내리는 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금이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가는 후에 창수가 너

무 된욕을 볼것 같아서

《…창수동문 아마 오일령이 얼음판인줄을 몰랐
던가봐요. 그리구 고개밀에 접어들기만 하면 위낙
길이 비좁아서 차를 돌리기가 어렵거던요. 그래서
어차피 얼음을 까고 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어
요.》

하고 에둘러 말하였었다.

반장은 알만하다는듯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그
러더니 영금이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은근히
물었다.

《쳐너동무, 동무는 우리 창수동무를 잘 아우?》

《네? 아니, 전…》

영금이는 괜히 얼굴부터 새빨개지며 더듬거리었
다.

《사이는 가까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동무두 창
수의 됃됨을 잘 아는것 같지 않소. 창수가 얼음판인
줄 모르고 들어갔을리가 있소? 알구 우야 들어갔을
게요.》

반장의 말은 의미심장하였다.

《하긴 나두 창수가 우리 농장에 온지 한달이 지
났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건 오늘에야 푹푹히
깨달았소.》

반장은 그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
딜수 없다는듯이 때도 장소도 가림없이 말을 시작
하는데 듣고보니 그가 바로 오늘아침 창수에게 물
동운반을 부탁했던 작업반장이었다.

《…한데 이 사람이 대뜸 거절하는게 아니겠소? <
난 실을수 없습니다.> 하구말이요.》

난 원래 창수가 월현농장에 있을 때두 일 잘한단
소릴 들었구 그가 한분밖에 안계시는 어머니의 소
원대루 제 고향에 돌아와 우리 농장 기계화작업반
에서 일하게 된 뒤엔 물동운반이나 기타 다른 일감
이 없는가를 지나칠 정도로 자주 알아보길래 이 사
람이야말루 참 일을 찾구 만들어서 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구, 또 그래서 뭐든 차가 할일이 제기되
여 부탁하면 제격제격 해결이 될줄로만 믿었지요.

그런데 이젠 계획외의 운반을 따로 부탁하는것도
아니고 지주목을 실러 가는길에 한차 실어달라는건
데 그것을 마하다고 나서니 내 심정이 어떠했겠소?
입으로만 일을 많이 하는 빛좋은 개살구같은 친구
로나 할수밖에요.

하지만 내가 진짜 성이 난건 그 다음이었소. 글썽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오룡농장소석회를 싣구
올라가겠다는게 아니겠소?

<집이 없으면 모르겠거니와 읍까지 들어갈 저희
농장 물동이 있는데두 뭐 오룡농장소석회를 싣겠
어? 대관절 너 어느 농장 밥먹는 운전수냐?>

내가 이랬더니 이 사람이 맞받아 소릴 칩디다.

<거긴 글썽 집이 없어서 못간단말입니다.>하구 말이요.

난 이 사람이 말을 잘못들었나보다 했지요. 그래서 집이 있길래 내려오라는건데 없다는건 무슨 소리냐구 고향을 질렸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 사람이 말을 잘못들은게 아니라 내가 잘못들었었소.

<반장동무, 그렇게두 말귀를 못알아들어요. 거기에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거기까지 싣고 갈 집이 없단말입니다.>

또박또박 깨우쳐주듯하는 이 사람의 말을 난 한참이나 혼자 외워보구서야 그게 무슨 소리라는걸 깨달았지요.

글썽, 기계화작업반이 저렇게 뻥히 건너다보이는 데 싣고올 집이 없어 못오겠다니-, 난 화를 꼭 참고 물었지요.

<그래, 거기서 여기가 대체 몇린가?>

<2키로지요. 반장동무.>

<흠, 알아두 정확히 아는군. 그래 2키로를 집이 없어 못오겠단말이지?>

<그렇습니다. 2키로가 아니라 단 한발자국도 만짐을 싣지 않고서는 움직일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차에서 울리는 발동소리는 만부하를 걸었다는 소리로 리해하셔도 좋습니다.>

난 창수의 이 말에 말문이 막혔소. 소석회농장까지는 15리이지만 거기에는 자기네 기계화작업반결에 있는 석회석채취장에서 듬뿍 원료를 싣고갈수 있다는것이였지요. 어느쪽 로정을 택하는것이 경제적이구 국가적립장인가구 묻는데 내가 더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소?

얼마후에 전화가 또 걸려오구 뒤편 월현농장 트랙포르운전수가 읊으로 들어가는길에 우리 물동을 싣어주겠다고 꾸어갔던 가마니 천매까지 싣구 넘어왔을 때 나는 창수란 사람이 이게 보통 운전수가 아니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깨달았지요.

도대체 창수가 동무의 움직임을 어떻게 알고있느냐구 물었더니 운전수가 이렇디다.

<그 친구의 수첩을 보십시오. 거기엔 자기네 농장은 물론 거래가 잦은 주변농장들에서 요즘 트랙포르들이 무슨 일을 하구, 어디까지 가야 할 영농작업과 관련된 물동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다는것이 대체로 기록되어있지요. 그가 사람들을 만나면 트랙포르가 해야 할 작업들을 미리미리 알아보구 가끔 전화통을 들고있아서 이야기를 나누곤하는것이 한담이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자기 차는 물론 모든 차들이 단 1키로두 빈차를 뛰지 않고 언제나 만짐을 차고 달리도록 하고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런 궁리도 해낼수 있게 했던가봅니다. 하여간 이 농장에 복덩이가 굴러든줄 아십시오.>

처녀동무, 이런 창수동무가 오일령이 얼음판이라구 20리를 에돌것 같소? 천만이 말씀이요. 그는 고개길얼음을 말끔히 까버릴거요. 다시는 고개길이 얼음판으로 되지 않도록 해놓고서야 떠나올거요. ...>

지주목을 다 부리운지는 오랫동안. 영금이는 반장과 인사를 나눈 자기가 어느결에 공장으로 내려와 소석회를 싣었던지 기억하지 못한다.

김창수란 과연 그런 사람이었던가.

기대에 만부하를 걸지 않고서는 단 한결음도, 단 한순간의 발동소리도 울릴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를 뜬내여 전화를 걸고 사람을 만나 일감과 물동을 료해하는 운전수, 그가 바로 김창수였던란말인가!

창수처럼 운전수들모두가 기대마다 만부하를 건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가면서도 오면서도 발동소리를 울리는 순간마다 만부하를 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것인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다. 생각은 고사하고 창수의 이런 일본새를 리해조차 못해온 자신이다.

무언가 새롭고 훌륭한것을 취해보려는 것처럼 진지한 탐구의 열망에서 출발하였던 창수의 제의를 내 무엇이라 일축하였던가.

자기네 농장 물동을 마다하고 소석회를 싣은 창수에 대하여, 오일령으로 접어들어 얼음을 까던 창수에 대하여 내 무엇이라 생각하였던가!

생각하면할수록 영금은 편협하고 용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느덧 갈림길에 이르자 영금은 주저없이 오일령을 향해 차를 들이몰았다. 어쩐지 지금에 와서는 영금에게도 고개길얼음을 까내던 창수의 행동이 어리석게 느껴지질 않는다. 자기더러 언땅과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던 창수의 목소리가 아프게 울려온다. 내가 창수처럼 생각했더라면 과연 썸을 울리지 못하였을것인가? 혼자서 어려워면 운전수들모두에게 호소하여서라도 해제했을것이 아닌가.

아니다, 도대체 영금이자신은 20리쯤 빈차로 다니는것을 아무렇게도 앓게 여겼던것이다.

창수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한순간도 용납될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썸을 돌리기전에는 고개마루를 떠나지 않을것이다.

인제라도 창수를 도와야 한다. 도와서 다시는 오일령이 얼음판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영금이는 이렇게 속다짐하며 닫는 말에 채찍질하듯 전속으로 내달리는 《천리마》호의 가스답판을 자꾸 눌러밟았다.

그런데 고개밑에 당도하여 차에서 내리던 영금은

그만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샘터라고 짐작되는 산비탈 솔숲속에서 떠들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여차, 여차, 여차...》

여럿이 힘을 모아 무엇인가를 들어올리는 소리다.

《땡! 땡! 땡!》

힘있게 정머리를 때리는 메질소리사이로 팽이질, 삽질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소리도 간간이 들려온다.

영금이는 숨이 턱에 닿아서 산비탈을 뚫아올랐다. 샘터에 이르러서야 그는 10여명이나 되는 그들이 채석장에 왔던 자기네 농장원들임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지금 산릉선을 가로질러 20여미터나 되게 물끓을 썰고있는데 벌써 무릎이 잠기게 파제끼길 보니 일에 달라붙은지도 퍼그나 오랜 모양이었다.

인제 저기다 등성등성 막돌을 밀어넣고 묻으면 겨울에도 샘은 너머편 골짜기로 흐를것이다.

창수는 나이 지긋한 석공 한사람과 같이 샘터에 웅크리고 앉은 연자돌같은 바위에 달라붙었다.

창수가 다시한번 쇠장대에 몸을 싣는 순간 영금이는 저도모르는 사이에 새처럼 달려나갔다. 그는

열른 베개통만한 돌을 들어 입을 짹 벌린 바위틈에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멍청하니 서서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창수의 손에서 쇠장대를 빼앗아들었다.

그러나 쇠장대는 더 깊이 밀어넣을수 있었지만 그 혼자 힘으로는 바위가 끄떡조차 하지 않는다.

영금이는 애도 나고 화도 나서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며 힘을 써보았으나 허사였다. 그러자 창수가 빙그레 웃으며 다가와 쇠장대를 맞춰였다.

《창수동무, 저를... 저를 용서하세요.》

영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다.

《원, 무슨 소릴 다 하구 있소.

자, 영금동무, 힘을 씹시다. 하나, 둘, 셋!》

드디어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쇠장대끝에 들리어 뚝뚝거리더니 한고패 굴며 널찍한 배를 언땅에 붙이고 었어졌다.

《야, 그게 참 훌륭한 주추돌감이로구나!》

채석장석공령감이 바위를 어루만지며 떠들썩하는 소리도 영금이에게는 아득히 들려왔다. 가슴속에 웅크리고있었던 시름의 바위라도 들어낸듯 삼킨은 날것만 같이 가벼웠다.

출항의 아침

허관일

이 마음 진정이니
포구의 처녀들이 이리저리 말어라
이렇게 큰 떼도 있는가 해도 웃고
셋중에 선장이 누군가 그래도 웃고
즐거운 출항의 아침이라 말을 해도 웃으니
바다를 뚫아 마음도 커져서나
그 웃음들에 포구나 떠나가리라

그 잘 웃는 웃음 포구에 두고, 배에두 싣고
물결은 넘실 어찌면 저리도 잘 저어갈가
황홀하여 물에 선 나에게 손을 흔드는 처녀들아
수평선가까이면 몇리나 되는가
어느때이면 이 기슭에 들어오는가

조국의 바다
천만가지 보물을 안은 바다

저 고운 처녀들이 있어 더욱 잊지 못할 바다
이 동지달엔 포자를 심어
래년봄엔 햇미역을 따다고 했지-

온 나라 집집들에서 향기 그윽한 국을 뜸 때
너희들이 바다에 나가는 이런 겨울날
이런 새벽
웃음밖에 모르는 그 마음들을 잊지 못하리라

기특한 처녀들아, 돌아오면 내 할말이 있다
큰 배만이 이 바다에 출항이더냐
작아도 귀한 미역만 따니 사들선도 출항이지
그러자 이 마음속에 울리는듯
갈매기의 나래처럼 이 바다에선 떠날수 없는
그 높은 웃음소리, 그 밝은 웃음소리
포구의 웃음소리...

봉암령을 넘으며

방금숙

빠스창가에 흔들리며
하늘길을 가는듯
푸른 산 굽이굽이 감고도는
흰 실오리같은 길을 따라
한고개 넘으니

누런 소떼들
풀을 뜯는 산골짜기에
하얀 문화주택 마을이
수집은듯
열매 붉은 수림사이로
얼굴을 빠끔히 드러내며 웃고

텔레비존중계탑이
구름을 휘감고 마주 달려오는
연연히 펼쳐진 산밭을 따라
또 한고개 넘으니

가슴도 시원해라
푸르게 열리는 산중 저수지
거울같은 수면에
은빛 려객선이 그림처럼 고요히 떠가는데
소리개 한마리 그우에 점으로 날고있네

갑판우엔
꽃무늬옷차림의 산간녀인들
그속에 대학생교복의 처녀 하나
기사되어 고향가는 길인가
혹은 소조원인가
마주 손을 잡고
한껏 정을 담아 웃는
밝은 웃음소리...
고요한 물우에 기쁨이 찰랑이누나

아아, 잠시라도 걸을 멈추고
마을의 어느 집 문을 열어도
마음 착한 안주인들
꿀물 한대접 후히 권한다는

봉암령

어둡던 산그림자 몰아내준
은혜의 봄빛이 좋아
그 봄빛이
산에 산에 퍼우는
꽃이 좋아

해종일 웃음소리 가시지 않는
창문을 열어놓고
산에 정들어 산에 사는
구름우의 꽃마을이
호수에 어리어 웃고있는 봉암령

여기서 몇백리인가
문지령 성골령은
첩첩 두메길
흰구름 날리시며
수령님 그 령을 넘으시더니

온 나라 산촌이
꽃에 덮여
꽃에 묻혀
어느 령 기슭에나
창성의 모습으로 빛나는
내 조국 은혜넘친 두메산촌이여

눈시울 젖어드네
목이 메여오네
산짐승도 못살겠다 울며 넘던
봉암령
아름다운 꽃마을 차창에 비껴닫고
마음은 문지령, 성골령을 오르고있어라

한생 오르고 올라도
다 못 오를
사랑의 령을
나는 지금 눈물에 젖어오르고있어라

나는 그저 듣기만 하고…외 1편

김종백

나는 그저 듣기만 하고
로인은 신이 나서 말하네
달리는 렐차안에 자리를 같이하고
통성도 없이 시작한 이야기는
자기 마을의 자랑, 제 집안의 행복

풍년 보고 울리러 수도에 갔던
자기 마을의 관리위원장
영웅의 금별을 빛내며 돌아왔다고
로인은 채수염 흔들며 자랑 많았고

아들, 며느리, 막내딸
모두 프락프르운전수라
어제날 지계군네 집이
《기계화집》으로 불리운다고
로인은 앞단추를 헤치며 커다랗게 웃었네

그런 말이야 먼저 했어도 좋으련만
체면이 있어 슬며시 미루다가
마지못해 꺼내는듯
마누라에 대한 이야기
근로자고등학교의 최우등생이란
그 말엔 나도 웃고 렐차안이 다 웃고

로인의 이야기가 하도 좋아
하마트면 그저 지날뻔한
내가 내릴 역은 이제 차가 서는곳
거기서 다시 뺄스를 타고 200여리
내가 사는곳은 두메골의 외진 마을

회상령마루에 올라서면

텔레비죤 중계탑 솟아있는 산관으로
구름처럼 오르는 양무리
거기에선 공훈사양공 우리 마을 옥실이
홍겨운 노래소리 들려오리

과일나무 등판을 가꾸는 누이동생도
마을에서 소문난 원예기술자
농업과학 다니는 나의 가슴에도
농산기사 자격증이 안겨지리니
이젠 우리 집도 《기사네 집》

어찌면 로인이 하는 이야기
우리 마을 자랑을 하는것만 같아
우리 집 기쁨을 전하는것만 같아
나는 그저 듣기만 하고…

이웃 집의 가방이면 우리 집에도 그 자랑
우리 마을의 경사이면 이웃 마을에도 그 경사
세상에 부럼 없이 살아가라고
산촌에도 별방에도 외진 섬에도
아버이수령님 골고루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목이 메여 목이 메여

아, 차창에 안겨드는 황금벌의 꽃노을
공장의 은빛굴뚝, 열리는 다층주택 창문에서
웃는 그 얼굴
락원의 강산을 누벼가는 차바퀴소리가
내 할말을 다 하는것만 같아
끝날줄 모르는 로인의 이야기
나는 그저 듣기만 했네

여름옷을 받던 날

구질구질 내리는 장마비를 맞으며
저물녘 합숙에 돌아오니
나에게 소포가 왔구나
서둘러 풀어헤치니
안해가 보낸 여름옷
눈부시게 흰 샤쯔
칼주름선 바지와 양복저고리

주머니에 세모난 손수건도 꽂혀있는…

노을 핀 교외의 강언덕을 함께 걸던
그 저녁의 즐거운 추억을 불러오는 여름옷
문득 가슴뜨겁게 사무치는 정
만팔아기 꽃벌이의 새록새록 웃는 눈이
떠날 때 흔들어주던 꽃잎같은 작은 손이 보인다

새 광산을 개발하고 돌아오라던
온 집안의 당부가
다시금 사나이 큰 가슴을 치는데,

하지만 안해는 몰랐구나
초대봉령마루가 하도 높아
절기도 한걸음 늦어서 오는 이곳임을
비맞고 돌아온 저녁이면
오늘월에도 뜻뜻한 아래목이 좋다는것을
더구나 이 밤에 내가
눈비가 내리는 산정으로 떠난다는걸

여름옷을 보자기에 다시 싸서
배낭속에 깊이 가려넣고
언제나 말코지에 걸려있는

숨옷을 갈아입으니
으스스 죄여든 잔등이 후끈해온다

지질가방 어깨에 메고 문을 나서자
종구나 어느덧 하늘은 개이고
저 멀리 노을내린 갯구앞에
길게 뻗어가는 광차의 철길
선광장이 일떠서는 골짜기에는
우줄우줄 산밭을 넘어온 삭도의 철탑,

내 마음 즐겁다, 내 마음 가볍다
안해가 보낸 여름옷은 갈아입지 못했어도
보아라, 비워두었던 조국땅 한 구역이
저렇듯 전변의 새옷을 입고있거니

경상도집 아들

한상호

내 처음 학교로 가던 날
내 성적증 받아안고 기뻐하던 날
우리 마을 사람들 나의 머리 쓸어주며
함께 기뻐 말들하였다
경상도집 아들의 학교로 간다고
경상도집 아들이 최우등을 했다고

좋은 날 기쁜 일을 두고
나를 부르는 그 이름
커가는 내 모습 눈여겨보며
왜 이웃집 사람들이
경상도집 아들이라 부르는지
다는 몰랐다
다 알기엔 너무 어린 철부지였다

잊지 못할 그 밤이여
그 밤 바느질하는 어머니 옆에 앉아
경상도가 어디냐고
우리들 왜 경상도집이라고 하느냐고
철없이 묻는 나의 물음에
깊은 생각에 잠기던 어머니-

감나무 많은 고향집 언덕에
못잇을 박우물소리가 들려와서인지
찌그러진 오막살이 문앞에서
베치마 바람에 날리며 바래주시던

외할머니 얼굴이 안겨와서인지
대답없는 어머니의 눈가에
소리없이 흐르는 이슬을 보았다

오, 경상도-
갈라진 조국 남단에 자리잡은 땅!
거기 피를 나눈 한혈육들이
미제원췌의 총칼에 숨지고있어
날이 갈수록 이 날의 가슴깊이 젖어든다
경상도집 아들이 어른이 됐다고,
경상도집 아들이 기사가 됐다고...

오, 해를 두고 몇십년 가슴적시며
우리 마을 사람들 나를 부르는 그 이름!
못다한 경상도집 아들의 임무를 다 하라고
심장을 두드리는 정깊고 뜨거운 말
경상도야-내 너의 원한을 가셔주지 못한다면
그 무슨 너의 아들이라

경상도, 경상도야-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잇고
내 너를 찾아 떠나가는 날
우리 마을 사람들 쌓고쌓던 아픔을
한꺼번에 눈물로 다 쏟으며
기뻐서 기뻐서 말들하리라-
경상도집 아들이 고향으로 간다고...

병사시절에 바쳐

박창민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에겐 잊지 못할 시절이 있다
세월의 흐름속에
그렇듯 못잊을 추억도
기억속에 사라지는 일 있고
생활의 무수한 변화속에
그 흔적 찾을수 없는 일 많고 많건만
병사시절이여!
너는 언제나 나를
영원한 추억속에 세워놓는다

잊을수 없다
청춘과 함께 시작된
나의 병사시절은
열여덟 젊은 나이에 총을 잡고
군기앞에 엄숙히 선서하던
그날의 감격이 어제런듯...

구대원들의 목마를 타고
사랑하는 중대에 들어서던 그날로부터
나를 키워준 병사의 집이여!
그속에서 나는
강철같은 규률과 훈련속에
손에 총탁못이 박이고

이 가슴 담벽처럼 자라
조국을 지켜가는 마음
불길로 새겨졌다

학생티도 벗지못한 나를 키워
당원의 영예를 안겨주었고
학창시절에 다 알지 못한
하많은 투쟁의 진리를 배워준
한없이 소중한 병사시절이여!

어버이수령님께 엄숙히 다진
군인선서를 빛내가는 나날에
나는 배웠노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원췌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아, 병사시절!
이제는 10년 세월이 흘렀고
내 초소를 떠난지 오래도
조선인민군 전사
내 언제나 그 시절에 사노라
명령을 받은 병사의 마음 그대로...

상등병

부르는 칭호는 달라졌어도
언제나 마음속 깊이
정답게 새겨져있다
열아홉 피끓는 시절에
조국으로부터 받은
나의 첫 칭호- 상등병!

언제면 나도 구대원이 될까
상등병들의 림름한 모습이

너무도 부러워 너무도 대견해
남몰래 거수경례도 해보며
일당백의 힘 키워온 나날에
내가 받은 첫 칭호여!

내가 들어서던 중대의 정문으로
신입병사들을 목마에 태워오며
《신병칭호》를 인계한 나에게
조국이 상등병의 령장을 달아줄 때

아, 남몰래 거울앞에 다가서며
나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빨간령장을 만져보고 쓸어보며
한밤을 흥분속에 지새웠다

나이는 서로 같아도
전사들이 《상등병동지》라 부를 때
내 얼마나 뜨겁게 느꼈던가
그 한줄- 상등병 칭호가
조국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를...

그 한줄에
병사의 땀이 스며있고
천리행군의 기쁨,
언젠가는 분대를 지휘하여 감사받은
크나큰 자랑이 있나니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조국의 대문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게
일당백으로 준비되었다고
당이 나에게 보낸 크나큰 믿음이며
이 땅을 굳게 지키라고
조국이 나에게 준 명령이여

하기에 그 한줄이 쉽지 않듯이
그 임무 다하기 수월치 않아
총도 배낭도 무겁지 않더라
상등병의 어깨우에 놓인
그 임무보다는...

아, 세월의 흐름속에 추억은 멀어도
상등병령장이여
너는 내 마음속에
못잊을 지난날을 새겨준다

분대장

10년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나는 제일 좋더라
옛 군사칭호 그대로
《분대장동지》라 부름이-

집에서는 막내로
형들과 누나들의 혼시만 받던 나
조국이 한개 분대를 맡겨줄 때
마음은 만형의 심정이였다

가르치는 만형의 심정이라
나의 구령은 《다시!》...
이 반복구령속에
전사들을 일당백으로 키워야 했기에
무더운 여름 대렬훈련때도
나는 《인정》을 몰랐노라

그래도 밤이면 전사들은
제열에 침대를 비워놓았고
훈련길에 따온 한줌의 딸기도
오붓이 모여앉아 나누어먹었다

달빛 싸늘한 숙영지의 밤이면
전사들은 내 몸에 외투를 덮어주었다

어버이수령님 사랑 가슴에 넘쳐
교육은 엄격해도 사랑은 불같이
내 잠시 중대를 떠나도
전사들은 나를 찾고
나는 전사들을 그리였나니
친혈육이면 이보다 다정하랴

아, 지금도 그 시절 생각하면
《분대장동지》를 찾으며 달려오는
영원한 전우이며 형제들인
옛 분대 전사들이 눈에 선하다

조국의 서로 다른 초소에 있어도
우리 언제나 하나의 분대속에 살자
어버이수령님의 한품속에
혁명동지로, 친형제로 굳게 뭉친
그 하나의 분대속에...

중대

사나이들만 산다고
어찌 거칠다 하라
처녀들처럼 섬세하진 못해도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고
살뜰한 우정이 오고갔다
병사의 집- 중대는...

태어난 고향과 성은 달라도
위대한 수령님 부르시는 한길을 걷는
혁명동지이며 친형제들이었다
사랑하는 중대 전우들은...

내게 걸음마를 익혀준 탁아소에서
내게 춤과 노래를 배워준 유치원에서도
내게 글을 가르쳐준 학교에서도
다 안을수 없었던 큰 생활이
병사시절의 중대에 있었다

총을 잡고 수령님을 보위하는
규율과 일과 속에 결합된 집단
기상으로부터 점검까지
각이한 고향, 각이한 성격이
하나의 사상속에 결합된 대오

어머니를 떠나선 살수 있어도

떨어져 살수 없는 사랑의 품
중대를 떠나 먼곳에 있을 때면
어머니 계시는 고향보다 그림던
병사의 집-우리 중대

끝끝한 대장부들로 식솔을 이루고
조국의 대가정을 지켜가는 중대여
사랑과 우정이 샘솟는
아, 병사의 집이어!

지금도 중대를 생각하면
무엇인가 두고온것 같은 마음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대를 이어 조국을 지켜가는
병사들의 집
내가 누웠던 그 침대우에
지금은 어느 병사가 자리잡았을까...

나의 총을 세웠던 총가에
지금은 누구의 총이 세워져있을까
아,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전조선의 집이어!
미제국주의 멸망의 그날을 위하여
조국의 성벽이 되어 서있는 집이어!

조국의 땅과 바다와 섬에 대한 생각

우윤식

조국의 지도를 펼치면 톱날처럼 도드라진 무수한 반도와 꽃잎을 쥐어뿌린듯한 수백개의 섬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지구 력사의 어느 한 시기에 자연적인 지각의 변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 상식에 다른 하나를 더 붙이게 되었으니 여기 은률땅의 금산포를 찾는 사람 이면 커다란 감동속에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연계의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 의하여 바다가 메워지고 땅이 넓어진다.

하루에도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은률땅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어제날에는 바다한복판으로 아득히 뻗어나간 이 주체의 강철다리-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화폭에 경탄을 보냈다면 오늘은 이 수송선에 의해 이루어진 바다 한가운데로 쪽 뻗어나간 반도가 능금섬을 련결하고 다시 곱섬을 향해 뻗고있는 거창한 모습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럴진대 이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 건설자의 한사람인 나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어느 휴식날 나는 뺨스를 타고 이제는 룽지의 한 부분으로 된 섬아닌 《능금섬》을 찾아갔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휴식일이면 감탕에 발목을 잠그고 썰물을 따라 굴송이를 주으러 다녔고 배를 타고 갈매기알을 주으러 가던 능금섬으로 오늘은 뺨스를 타고 가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천지개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산골짜기를 방불케 하는 능금반도의 입구에 들어서자 몇해전 바다물이 출렁이던 여기서 해불을 추켜들고 콘베아의 첫기둥을 세우던 그 격동적인 밤을 잊을수 없다. 그날은 썰물시간이 제일 긴 날이었다. 썰물이 시작되어 밤9시에 드러난 감탕밭은 새벽3시면 다시 물에 잠기게 된다. 바로 이 공간을 리용하여 다섯립방메터나 되는 콩크리트를 쳐넣고 그 위에 높이가 10여메터에 달하는 강철기둥 두대를 세워야 했다.

11월인데 이제는 날씨도 변덕스러워 하니바람이 별스럽게 기승을 부리고 차거운 바다물은 살을 에이는듯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심장과 심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시고 당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실현되는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창조물의 첫 기둥을 세운다는 크나큰 자부심과 긍지로 하여 뜨겁게 불타올랐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밀려

드는 밀물을 몸으로 막으며 지탱점도 없는 난바다 한가운데에 그 육중한 강철기둥을 세웠는지 놀라웁기만 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다에 첫기둥을 세웠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우리모두를 영웅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겨울에 바다에서 고생을 한다고 우리들에게 두툼한 솜옷과 고무옷 등 여러가지 선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이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우리 건설자들은 다함없는 행복과 환희를 안고 같은 집채같은 성에장과 함께 밀려드는 사나운 파도와 싸우면서 불과 두달 남짓한 기간에 120여개의 강철기둥을 바다위에 세웠으며 묶음식확대조립방법과 새로운 형의 자행식기중기를 창안하여 수백개의 강철교각을 바다위에 가로질러놓는 영웅적위훈을 세웠던 것이다.

...서해바람을 맞받아 달리던 뺨스는 마치 중간정류소에라도 온듯 부림대차가 있는 반도의 중간에서 멎었다. 어서 오라고 손저어 부르듯 50메터나 되는 긴팔을 량옆으로 벌린 부림대차에서는 버력의 폭포가 끊임없이 흘러 바다를 밀어내고있다.

부림대차운전실 창가에는 《전투속보》에서 그 이름을 자주 보게 되는 운전공 신동무의 얼굴이 나타났다. 한때 25톤급 대형자동차 운전수였던 그는 자진하여 부림대차운전공이 되었다. 밤새 하나의 산봉우리와 맞먹을 박토산을 바다에 밀어넣은 자부심을 안고 싱긋이 웃는 그의 얼굴을 보니 언젠가 그가 했다는 말이 생각키워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건설》호 운전수가 그에게 자동차를 몰 생각이 나지 않는가고 물었을 때 신동무는 시치미를 떼고 《25톤급 자동차운전수 200명을 취락퍼락하는 운수 직장장이 된셈인데 무슨 생각인가.》고 호통을 뿜다고 한다.

하루에 이 콘베아로 5만톤의 버력이 흘러가고있으니 그것은 25톤짜리 자동차 200대가 진종일 바퀴에 불이 일도록 달리며 쏘아붙는 박토량이다.

생각하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준공의 테프를 끊던 날이 어제같은데 1년남짓한 기간에 구월산을 다 허물어다 바다에 펼쳐놓은듯 지도에 능금반도라는 새 구역이 생겨나고, 빨간 능금알이 주렁져도 누구 하나 따주지 않던 능금섬이 조국의 품에 안겨 자기의 모든것을 이곳 광부들을 위해 바치게 되었으니 참으로 인간의 힘은 얼마나 위력한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그쳐야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을 가진 인민의 힘은 그 무엇에도 대비할수 없이 무궁무진한것이다.

인간의 힘이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서나 다 이처럼 큰것은 아니였다.

지난날 일제의 통치밑에서 인간이 한갓 돌맹이처럼 버림받던 때에 인간의 힘이란 얼마나 보잘것없었던가.

모지라진 곡괭이로 한덩이 두덩이 캐여낸 쇠돌을 질통에 켜어지고 피땀을 흘리며 언덕길에 오르다가 쓰러진 광부들이 얼마이던가.

지난날 질통에 놀리워 쓰러지면 일어날 힘조차 없던 우리 인민에게 이처럼 자연을 쥐락펴락하는 위대한 힘을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품!

참으로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힘을 낳는다. 지난날 한생을 쫓아내도 오소리굴밖에 못파던 광부들,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땅속에 무진장하게 묻혀있는 쇠돌을 놓고도 겹겹이 쌓인 박토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모대기며 수백대의 대형자동차가 진땀을 뻘뻘 흘리며 이곳에 오늘은 단발머리치녀가 빨강고 파란 신호등을 보며 손가락으로 단추를 눌러 수백대의 자동차를 대신하고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이처럼 산을 떠올려 바다를 막고 수백년 캐도 못다 캐 쇠돌밭을 마련해놓았으니 이것을 어찌 화산의 분출이나 지각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진 자연의 힘에 대비하겠는가.

하기에 이속을 찾은 외국의 한 벗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후의 업적은 저 서해바다물을 잉크삼아 다 찍어써도 못다쓰겠다고 한것이 어찌 우연한 말이겠는가.

능금반도의 《계곡》을 달리던 빠스는 어느덧 서해의 물결이 출렁이는 《능금섬》기슭에 와닿았다. 빠스가 닿자 기다린듯 맵시있는 운반선 《능금》호가 기슭에 와닿았다. 매일같이 보는 《능금》호이지만 볼 때마다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

콘베아건설이 한창이던 1975년 초봄, 능금섬2호 전동실 건설자들에게는 뜻하지 않는 애로가 생겼다. 며칠을 두고 련속 물아치는 사나운 바다바람에 매일같이 먹을 물을 실어오던 자그마한 배가 오지 못

한것이다. 그리하여 이곳 건설자들에게 먹을 물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몸소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속도발동기가 달린 배에 사랑의 생명수를 실어 이곳 12명건설자들을 위해 보내셨다.

그 생명수를 받아안은 건설자들은 그처럼 갈증으로 시달렸지만 선뜻 마실수 없었다.

그들은 물보다 먼저 감격의 뜨거운 눈물부터 삼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물은 사랑의 젖줄기였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기에 이 땅에서 인간은 무한히 억세고 슬기로와지며 자연도 더욱 아름답게 변하는것이다.

참으로 은룡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의 매 구간, 대형파쇄기로부터 작은 라사못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고마운 사랑이 깃들어있지 않은것이란 없다.

《능금》호는 발동소리를 울리며 갈매기를 앞세우고 떠났다. 은구슬 금구슬을 휘뿌리며 곱섬의 코송이를 돌아가는 《능금》호를 바라보니 이제 머지않아 꽃피날 조국의 새 모습이 눈앞에 확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이제 이 콘베아가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똑은 곱섬과 청량섬을 지나 파일군 월사반도를 련결하고 다시 북으로 머리를 돌려 은천군 제도리에 가닿게 된다. 그러면 평양과 파일군을 련결하는 서해의 새로운 축이 형성될것이다.

그때면 수도의 근로자들이 일요일마다 유람빠스를 타고 파일군 백사장에 와서 해수욕을 하고 돌아갈것이니 참으로 그날의 서해풍경은 얼마나 아름답을것인가.

또한 바다를 둘러막는 똑으로 하여 그 안에는 한 개 도와 맞먹는 수천정보의 새 땅이 생겨날것이며 능금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해의 푸른 파도와 설레이는 황금의 파도가 서로 슬레잡기를 할것이며 세기를 두고 속절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던 바다물이 수십만크바의 전기를 일으킬것이니 이 세상 그 어떤 《조물주》가 있다 한들 이처럼 아름답고 거창한 풍경을 만들어낼수 있단말인가.

조국의 땅과 바다와 섬을 자연의 조화에 맡겨 두지 않고 인간이 바라는대로 개조하며 그것을 한손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하는 우리 당의 위대한 힘!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아래 사회와 자연의 모든 령역이 주체의 모양대로 변모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주체의 나라!

오늘도 끝없이 좋지만 래일은 또 얼마나 휘황찬란할것인가!

가사의 형상과 생활세부

럼희대

가사는 노래로 되어 가장 널리 가장 빠르게 보급되어 사람들의 심장속에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혁명에 대한 열정과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가장 기동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의 한 형태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가사의 전투적사명에 맞게 그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사창작에서 생활세부를 깊이 파고들어 시적으로 잘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를 짓는데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짓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적형상이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실생활과 인간의 사상감정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은 사실주의적문학예술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특히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집적적으로 나타내는 노래의 사상예술적기초로 되는 가사를 구체적인 사실, 생활의 세부를 찾아 창작하는것은 그 주체사상적심오성과 예술적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가사를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선에 튼튼히 서서 사상적내용이 깊고 풍부하게 쓰는것과 함께 생활세부를 찾아서 형상적으로 잘 지을데 대하여 가르치였다.

가사가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하며 량만적인 생활감정을 담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생활적계기들에서 시를 찾아야 하며 거기서 발현되는 우리의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감정과 정서를 깊이있게 노래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생활세부를 찾아 가사를 형상적으로 잘 짓는것이 중요하다.

가사문학의 경험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가사들이 생활세부를 찾아서 형상한 작품들임을 보여준다.

어느 한 구체적인 생활적계기에서 종자를 잡고 그것을 시적으로 형상한 가사들에는 레외없이 구체

적인 생활감정과 독특한 서정이 풍부하게 흘러넘치고있다. 그와 같은 실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가요들에서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씌여진 《샘물터에서》와 《아무도 몰라》를 비롯한 가사들과 최근년간에 창작된 가사 《병사는 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어서 가요 먼저 가요》, 《장령은 전사와 쌍보초 서네》 등 적지 않은 작품들을 그 실례로 들수 있다.

특히 최근에 창작된 가사 《충성의 일편단심》(최준경)은 얼마나 구체적인 생활정서가 흘러넘치고있는가.

1. 향기로운 꽃을 봐도 내 가슴 설레이네
황금벌을 바라봐도 내 가슴 설레이네
아, 수령님 모시는 길에
언제나 기쁨드릴 충성의 일편단심
2. 행복이 넘쳐나도 내 마음 변함없네
비바람이 불어와도 내 마음 변함없네
아, 수령님 따르는 길에
한생을 빛내여갈 충성의 일편단심
3. 이 세상의 끝에 가도 내 마음 하나일세
하늘땅이 변하여도 내 마음 하나일세
아, 수령님 길이 받들어
영원히 꽃피워갈 충성의 일편단심

가사는 행복한 나날에도 비바람 사나운 역경속에서도 하늘땅이 변하여도 오직 어버이수령님만을 모시고 따르며 길이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한마음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작품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과 크나큰 은덕으로 끝없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세상 끝까지 하늘땅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따르는 영광의 한길에서 한생을 빛내여나가려는 변함없는 충성심을 시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가사를 세심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생활계기에서 받아안은 생활감정과 정서에 대한 깊이있는 체험과 탐구에 의하여 작품의 사상적집중성과 풍부한 서정성이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사람들이 레사로운 나날에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크나큰 어버이사랑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며 충성을 다하려는 가장 깨끗하고 숭고한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 구체적인 생활적계기가 제시되어 있다.

작품에서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굳게 다지게 하는 구체적인 생활적계기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보며 대풍이 들어 가없이 설레이는 황금벌을 바라볼 때이다.

가사에서의 《향기로운 꽃을 봐도》, 《황금벌을 바라봐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쁘고 행복한 생활감정을 뜨겁게 체험하는 구체적인 생활계기로 된다.

2절에서는 가사의 1절에서 주어진 기쁘고 행복을 느낄 때마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성심에 대한 정서적체험과 탐구를 심화시켜나갔다.

그리하여 행복이 넘쳐날 때에도 사나운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즉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수령님만을 따르며 높이 우러러모시는 길에서 한생을 빛내여가리라는 우리 인민의 확고하고도 숭고한 의지와 충성심을 정서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 절에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마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생활감정을 사상정서적으로 승화시켜 행복한때도 엄혹한 시련이 닥쳐와도 오직 어버이수령님만을 따르며 우러러모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심을 시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주어진 생활적계기에서 환기된 사상감정과 정서를 깊이 체험하고 탐구하였기 때문이다.

3절에서는 사상정서적체험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 이 세상의 끝에 가도 하늘땅이 변하여도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토록 받들어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이 일편단심 변함없는 충성심을 숭고한 높이에서 사상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사는 우리 인민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보내는 평범한 나날의 순간마다 체험하고 되

새기는 사상감정은 단순한 기쁨과 행복의 감정인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 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도 누릴 수 없었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시고 크나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정과 일편단심 영원토록 변함없는 충성의 사상감정이라는 것을 시적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이처럼 사상정서적체험을 심화시켜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흔히 느끼는 감정, 평범한 생활의 계기마다에서 사람들이 뜨겁게 받아안은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나날에도 사나운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역경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민족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며 길이길이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가장 고결한 사상감정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높은 시적경지에서 일반화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과 변함없는 충성심을 담은 가사의 숭고한 사상은 맑고 깨끗하며 뜨거운 서정을 타고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오직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한다.

가사의 사상에술적성과는 이처럼 평범한 생활흐름의 구체적인 계기에서 체험하는 기쁨과 행복의 생활감정을 독창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그 체험의 밑바탕에 줄기차게 흐르는 우리 인민의 가장 전형적이며 본질적인 사상감정인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일편단심 변함없는 충성심을 뜨겁게 차고넘치는 숭고한 서정에 담아 절절하게 노래한 데 있다.

가사가 참으로 의의있는 종자를 아름답고 정서적인 시형상을 통하여 훌륭히 꽃피울 수 있었으며 작은 형식에 크고도 숭고한 사상감정을 깊이있고 풍만하게 담은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성과작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생활계기에서 환기된 생활감정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사상정서적체험을 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가사 《어서 가요 먼저 가요》(리종률)도 흥미있게 되었다.

1. 사격에서 우를 맞은 포차들 달리다가
풍년날알 듕뿍 실은 트랙틀과 마주쳤네
갈길은 바쁘지만 서로 길을 내어주며
어서 가요 먼저 가요 인사도 정다워라

아, 수령님 이끄시는 한길에서
오고가는 군민의 정 깊어만 가네

2. 명사수의 자랑떨친 초병들 앞서야지
가을걷이 일손바쁜 처녀들이 앞서야지
사랑과 존경담아 군민의 정 나누면서
어서 가요 먼저 가요 말씨도 살뜰해라
3. 높이 쌓은 벼넉가린 병사에게 새힘 주고
명사수의 꽃송이는 처녀에게 기쁨주네
초소와 농장으로 갈길은 다르지만
어서 가요 먼저 가요 마음은 함께 가네

아, 수령님 이끄시는 한길에서
오고가는 군민의 정 깊어만 간다네

가사 《어서 가요 먼저 가요》는 사격에서 우를 맞고 돌아오는 인민군포병들과 풍년날알을 듬뿍 싣고 달려오는 트랙토르 처녀운전수가 한길에서 마주친 구체적인 생활체계에서 그들사이에 오고가는 군민일치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생활적으로 잘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에서는 군민의 정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현되는 구체적인 생활계가 독창적으로 탐구되었으며 또한 거기서 환기된 생활감정, 즉 작품의 주제사상적파제인 군민일치의 사상감정이 추상적이며 메마른 호소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동한 생활감정과 밝고도 량만적인 정서로 훌륭히 표현되어 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사격에서 우를 맞고 돌아오는 포차와 풍년날알을 듬뿍 싣은 트랙토르가 마주쳤을 때 누구나 갈길은 바쁘지만 서로 양보하며 앞길을 내여주는 군민일치의 정이 아름답게 꽃피날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계가 제시되어 있다.

아름답고 고상한 군민일치의 사상감정이 집중적으로 드러날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계의 탐구와 발견은 2, 3절에서 가사의 종자를 사상정서적으로 훌륭히 꽃피울수 있게 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었다.

아름다운 군민관계가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생활계에 대한 독창적인 발견이 없었다면 거기서 깊이 체현된 군민일치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독특한 정서를 그렇듯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고 풍만하게 담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가사로 꽃피울수 없었을것이다.

2절에서는 1절에서 노래된 초병들과 트랙토르처

녀운전수들 사이의 군민일치의 생활감정을 사상정서적으로 심화시켜 갈길이 바쁜 초병들과 처녀운전수들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서 가요 먼저 가요라고 하면서 앞다투어 길을 내주는 아름다운 사상감정과 정서적체험을 깊이있게 개방하고 있다.

3절에서는 1절에서 제시되고 2절에서 심화되고 개방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아름답고 고상한 군민일치의 혈연적생활감정의 위대한 힘과 사상정신적바탕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병사들이 사격에서 이룩한 성과는 처녀들의 기쁨으로 되고 처녀들이 높이 쌓은 풍년날가리는 병사들에게 새힘을 준다고 혈연적인 군민관계를 시적으로 일반화하면서 서로 갈길(초소와 임무)은 다르지만 군민의 깊은 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나가는 한길에서 더욱 두터워진다는 사상이 정서적으로 훌륭히 노래되고 있다.

이처럼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 인민군대와 우리 인민들간의 혈연적인 군민관계-전통적인 군민일치의 고상한 사상이 활짝 꽃피어나고있음을 뜨겁고도 살뜰한 생활감정과 독특하고 풍만한 정서로 자랑차게 노래하고 있다.

가사를 대하면 사격을 마치고 돌아오는 포차와 날알실은 트랙토르가 한길에서 마주친 정황에서 포병들과 처녀운전수들이 《어서 가요 먼저 가요》라면서 서로 양보하며 앞길을 내여주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가 얼마나 정겹게 느껴지는것인가. 또한 그들사이에 오가는 살뜰한 군민일치의 사상감정-백발백중 명사수의 슬기를 키우며 벼넉가리 하늘높이 쌓아가는 충성의 한길에서 그들사이에 두터워지는 사랑과 존경의 아름답고 고상한 감정이 얼마나 생동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강렬한 정서로 뜨겁게 안겨오는것인가!

작품에 차넘치는 밝고도 명랑하고 량만적인 서정은 시인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탐구된 포병들과 트랙토르운전수들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매력있는 생활의 세부, 즉 어느 한쪽이 앞길을 내여주어야만 하는 피치 못할 구체적인 생활체계에서 우리나온 아름다운 생활감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생활의 세부들은 독특한 생활감정과 정서를 날게 하는 생활적바탕으로 되며 생활세부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는 가사의 독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도 되는것이다.

현실에 실재하는 생활의 세부들은 서로 같지 않을뿐아니라 각이한 생활세부들이 자아내는 생활감정과 정서가 같을수도 비슷할수도 없듯이 가사 《어서 가요 먼저 가요》의 감정적특질과 정서적색깔은 군민일치의 사상을 노래한 종전의 어떠한 가사와도 전혀 류사하지 않다.

작품은 그 사상정서적특성으로 사람들속에서 남다른 사랑을 받고있으며 우리 가사문학의 화원을 더욱 다채롭고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는것이다.

생활의 세부를 깊이 탐구하여 시적으로 쓴 가사 작품들에는 구체적인 생활계기에서 환기된 독특한 서정이 풍만하게 나래치고있음을 이밖에도 여러 작품들을 레로 들어 말할수 있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실생활에 기초하여 인간의 내면세계-사상감정과 정서를 깊이 파고든것으로 하여 시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이 풍만하게 나래치는 참다운 시로 되었다.

이것은 가사를 생활세부를 찾아서 형상적으로 잘 쓸데 대한 주체적문제이론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오늘 노래들이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어 군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전투적무기로서의 영예롭고 무거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곡의 사상예술적기초로 되는 가사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그 사상예술적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생활세부를 찾아서 형상적으로 가사를 잘 써야 한다.

다시말하여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구체적인 생활의 어느 한 계기에서 시적인 종자를 잡고 생활의 세부를 깊이 탐구하여 독특한 정서로 충만된 시형상으로 아름답게 꽃피워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현실의 여러 모를 다양하게 반영한 성격이 있고 양상이 다른 노래의 가사, 시대감정과 정서를 깊이있고 생동하게 노래하는 훌륭한 가사를 창작할수 있는것이다.

생활세부를 찾아 가사를 쓰는것, 다시말하여 가사창작에서 생활을 깊이 판다는것은 구체적인 생활에서 시를 찾고 생활세부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의 아름답고 숭고하며 매력있는 사상감정과 정서를 독창적으로 깊이있게 탐구해낸다는것을 말한다.

가사에서 생활의 세부란 결코 생활의 형상단위로써의 구체적인 생활적계기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

으며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의 내면적체험 즉 깊고도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감정과 정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활세부를 찾아 가사를 형상적으로 쓴다는것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의의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나 생활적사실을 피상적으로 노래하는것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가사창작에서 생활세부를 깊이 파고든다는것은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는 생활의 세부가 자아내는 인간의 생활감정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탐구하여 시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결국 가사창작에서 생활세부에 대한 탐구는 서정적주인공이 구체적인 생활계기에서 개성적으로 체험한 독특한 서정에 대한 독창적이며 깊이있는 탐구인것이다.

생활의 세부를 깊이 파야 가사창작에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감정과 정서로써가 아니라 실생활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황과 생활계기에서 받아안은 사상감정과 정서를 깊이있게 탐구하여 그것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할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의 커다란 사상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생활세부를 깊이 파는것은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를 잡고 가사창작에서 도식과 류사성을 없애기 위한 중요조건으로 된다.

현실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생활이란 없으며 그것은 항상 구체적인 생활의 세부로서 존재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생활의 세부들은 어느것이냐 구체적이고 생동하며 비반복적이다.

따라서 생활세부를 깊이 파야 서로 같지 않은 구체적인 생활계기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체를 가사의 종자로 잡을수 있으며 거기서 체험된 독특한 생활감정과 정서를 생활 그대로의 아름답고 정서적이며 비반복적인 시형상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사문학의 류사성을 극복할수 있다.

또한 생활의 세부를 깊이 파야 가사의 생명인 서정성을 최대한으로 살릴수 있다.

생활의 세부는 시(가사)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을 낳게 하는 구체적인 생활감정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정황과 계기 즉 생활의 세부를 떠나서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정서가 생겨날수 없으며 그를 떠나서 구체적인 생활적계기에서 체험된 사상감정과 정서의 산물인 시의 서정은 태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생활세부를 깊이 파고드는것은 가사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생활을 깊이 파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적 및 미학적안목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고 우리 인민의 전형적이며 본질적인 생활감정과 정서를 시대적높이에서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다.

생활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또한 시인이 높은 사상미학적안목에 기초하여 시대의 정신 즉 시대의 호흡과 맥박, 시대의 특징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독창적으로 예리하게 포착하여야 한다.

그것은 구체적인 생활계기가 독특하고 풍부한 사상감정과 정서를 낳게 하는 중요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활세부를 찾아 가사를 형상적으로 창작하는데서 구체적인 생활계기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와 발견은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시대의 정신과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이며 본질적인 생활감정이 드러나는 구체적이며 생동하고 특징적인 생활계기를 독창적으로 포착하여야만 가사를 메마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써가 아니라 새롭고 특색있는 생활감정과 정서로 차넘치게 할수 있다.

또한 가사창작에서 생활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포착한 새롭고 구체적이며 특징적인 생활의 계기에서 체험된 시대감정과 정서를 깊이있게 체험해야 한다.

생활을 깊이 판다는것은 구체적인 생활이 불러일으키는 생활감정과 정서에 대한 깊이있는 체험을 말한다.

시대감정과 정서가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독창적으로 포착했다고 하여 곧 훌륭한 가사작품이 되는것이 아니다.

가사가 서정의 문학인것만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가사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서정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서정적주인공이 구체적인 생활계기에서 받아안은 독특한 사상감정과 정서를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깊이있게 탐구하여야 한다.

가사가 시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거기에 서정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하며 가사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하여 흘러나와야 한다. 가사형상의 힘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시대의 서정이 넘쳐나는 훌륭한 가사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시대감정과 정서가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독창적으로 포착한데 기초하여 그것이 자아내는 독특한 생활감정에 대한 정서적체험과 탐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생활세부를 찾아 가사를 형상적으로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독창적인 창작적자세를 가지고 현실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체현해야 하며 창작적사색을 깊이하여야 한다.

높은 사상미학적안목과 함께 독창적인 창작자세를 가지고 현실생활을 정서적으로 체험하고, 정력적으로 깊이있게 탐구하지 않고서는 시대의 사상과 감정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포착할수 없을뿐아니라 거기서 발현되는 생활감정과 정서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받아안을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혁명적서정이 풍부하게 차넘치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훌륭한 가사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서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가사의 본성은 현실생활을 깊이있게 체험할것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독창적인 창작자세를 가지고 현실생활을 독창적이며 개성적으로 깊이 있게 체험하고 탐구함으로써 시대적이며 혁명적인 서정이 내려치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가사창작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창작적사색은 현실생활에 대한 사상정서적체험의 심도를 보장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생활체험과 함께 사색을 깊이하여야 작은 형식에 심오한 사상을 담을수 있고 현실이 자아내는 생활감정을 시대적인 감정과 정서로 승화시켜 혁명적인 서정이 넘쳐나는 시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적으로 심오하고 혁명적서정이 넘쳐나는 훌륭한 가사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생활체험과 함께 정서적인 사색을 깊이하여야 한다.

우리는 생활세부를 찾아 가사를 형상적으로 쓸데 대한 당의 주체적문예방침을 받들고 가사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제2차7개년계획의 전투적과업수행에로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가사문학의 혁명적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